

일제 잔재 청산 교육프로그램 자료집

일제 잔재 청산
교육프로그램 자료집

들어가는 말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역사교육의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3·1운동 정신 및 임시정부 10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기 위해 학교 내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 문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이에 2020년에는 「인천 학교 내 일제잔재 및 군사문화 바로 알기」, 2021년에는 「학교 내 일제 잔재 동상 및 조형물 실태 조사 및 교육적 활용 모색」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생각보다 학교 내 일제 잔재 문화가 많이 남아있었고, 일상속에 스며들어 일제 잔재 문화인지도 인식하지도 못한 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일제 잔재 동상 및 조형물 청산과 더불어 학교 내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우리의 일상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 문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학습되어 일상에서 재생산되어 표현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또한 일제 잔재가 청산되지 않아 나타나는 문제들을 바라보며 느끼게 되었던 현장의 고민과 성찰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은 교과 연계 교수학습자료와 교외 체험 활동자료로 제작하였습니다. 교과 연계 교수학습자료는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 듯 느껴질 수 있으나 맥락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었으니 현장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선별하여 교육활동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본 자료집의 교육프로그램들이 학교 현장 속에서 실제 수업에 적용되어 다양한 사례로 확장되고 실천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실천 사례들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함께 고민하고 개발하고 실천하는 다양성이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자료 개발이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자료의 풍성한 열매는 또 다른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교육은 역사적 진실을 직면하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하는지를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자 주도성을 키워주는 교육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교육의 모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료 개발진 일동

CONTENTS

교과 연계 교수학습 자료

- ① 학교 내 일제잔재 조형물, 어떻게 할 것인가? 7
- ② 일제 잔재 청산의 역사적 의미와 필요 20
- ③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의 필요 40
- ④ 우리 일상 주변의 일제 잔재 인식하기 62
- ⑤ 일제 잔재의 개념과 우리 삶 주변에서의 일제 잔재 79

교외 체험 활동 자료

- ① 당신이 걷는 이 길은 87

1. 학교내 일제잔재 조형물, 어떻게 할 것인가

가. 수업 개요 및 교수-학습 지도안

과목	한국사	단원명	Ⅲ.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Ⅳ. 대한민국의 발전
성취 기준	[10한사03-01] 1차 세계 대전 전후 세계 정세의 변화를 살펴보고,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과 경제 구조 변화의 특징을 파악한다. [10한사03-05] 일제의 침략 전쟁 이후 식민지 지배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전시 동원 체제로 달라진 민중의 삶을 사례 중심으로 파악한다. [10한사04-02]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과정과 의의를 살펴보고,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한다.		
학습 목표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수업유형	토의, 토론 / 구술 발표	총 차시	1차시
인천 핵심 역량	☐ 자기관리역량 ☒ 의사소통역량 ☒ 다양성존중역량 ☒ 문제해결역량 ☒ 협력역량		
수업 흐름	탐색과 공감 -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일제 잔재 조형물 소개 - 제물포고등학교에 남아 있는 정초석 안내 ⇒ 문제파악 및 해결방안 도출 - 일제 잔재 조형물인 정초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 실천과 공유 - 모둠별 활동 내용 공유하기		

교수-학습 지도안(1차시 - 일제잔재 청산 사례)

단계	교수·학습 과정	교수·학습 자료
도입 (5분)	▶ 일제 잔재 청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고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일제 잔재 조형물을 소개한다. ▶ 학습 목표 안내 학습 목표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제물포고등학교에 남아 있는 인천중학교 정초석에 대해 소개 ▶ 1935년 인천중학교 건물을 지을 때의 정초 인천부윤 나가이 데라오[永井照雄]가 학교설립을 주도했으며, 건물 시공 책임자는 시바타[柴田織造]였음.	자료 1 - 정초석 사진자료1 - 교사 자료

참고



▶ 2022년 6월 24일 자



▶ 정초석 철거 후 사진, 2022년 7월 18일 자

▶ 일제잔재조형물인 정초석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생각 해보는 시간을 가짐

활동 도움말

이전 차시에 진행되었던 일제 잔재 청산의 역사적 의미와 연계하여 적용하는 활동

② 일제잔재조형물 청산 방안의 예시를 제시하고 자신의 생각 표현하기

▶ 일제잔재조형물 청산 방안

1. 철거
2. 박물관 기증
3. 안내문 설치

활동 도움말

- 일제잔재 청산에 대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에 따라 모둠 구성
- 학생 인원수에 따라 모둠을 추가하여 구성 가능

1모둠	2모둠	3모둠
철거	박물관 기증	안내문 설치

자료 2 - 모둠별 활동지
- 교사 자료

	▶ 일제잔재조형물 청산 방안에 대한 모둠별 활동 모둠별 활동 1. 모둠 : 철거 - 학교 생활 속에서 청산해야 할 일제 잔재 찾아보기 -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제 잔재 청산 홍보문 작성하기 2. 모둠 : 박물관 기증 - 박물관 리플릿 제작하기 3. 모둠 : 안내문 설치 - 안내판 디자인하고, 설명문 작성하기	
정리 (10분)	◎ 모둠별 활동 내용 발표하기 - 각 모둠에서 진행한 활동 결과물 공유하기 - 학교 홈페이지에 기억 공간 배너 만들기  활동 도움말 활동 결과물을 학생회 활동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일제 잔재 청산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천하기	

나. 모듈별 수업 활동지

1 모듈	일제 잔재 청산 반드시 해야 한다.	()학년 ()반 ()번 이름 ()
-------------	--------------------------------	---

1. 학교 생활 속에서 청산해야 할 일제 잔재 찾아보기

예시) 파이팅 : 일본군 출전 구호다. 그 유래는 권투경기 시작을 알리는 ‘Fight(파이트)’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화이또’라는 군인 출진 구호로 부른 데에서 찾을 수 있다.
 → 잘하자, 힘내 등으로 바꿔 사용하자.

2. 일제 잔재 청산 홍보를 위한 홍보문 작성하기(학생회 활동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활동으로 연계)

2 모듈

일제 잔재 청산 반드시 해야 한다.

()학년 ()반 ()번
이름 ()

1. 모듈원이 함께 하고자 하는 여행 경로 순서대로 사진을 붙여봅시다.

예시) 출처: 인천광역시립박물관



3 모듈

**일제 잔재 청산 반드시
해야 한다.**

()학년 ()반 ()번
이름 ()

1. 안내판 디자인

(예시) 인천중학교 정초석(머릿돌) 안내판 디자인



학식은 사회의 등불
양심은 민족의 소금
제물포고등학교

2. 설명문 작성하기

다. 교사 참고 자료

1935년에 설립된 5년제 일본인 학교 인천부립중학교는 광복 후 국가로 인수되었다. 이후 1945년 11월 27일 인천중학교가 개교하였다. 수업연한 4년에 4학급 60명으로 편성하여 공립학교로 개교하게 되었다. 인천부립도서관을 교사로 사용하고, 초대 교장에 길영희(吉瑛羲)가 취임하였으며, 교사는 6명이었다. 1954년 8월 13일 제물포고등학교가 개교하였다.

제물포고등학교는 이후 1968년 18학급, 1974년 36학급으로 학급을 증설하였으며, 인천중학교는 1972년 평준화 시책에 따라 34회 총 8,94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폐교되었다. 교훈은 ‘양심은 민족의 소금, 학식은 사회의 등불’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학교, 지역사회가 동경하고 선망하는 학교, 존경과 신뢰를 받는 학교, 창의력을 기르고 교육개혁을 주도하는 학교를 교육지표로 하고 있다. 1956년부터 무감독 고사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학교의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다.¹⁾ 제물포고 본관 정초석(머릿돌)이다. 정초석은 건물의 근간이 되는 기초석을 뜻하며 머릿돌이라고 불린다. 정초란 건물을 세울 때 기초 공사를 뜻한다. 건물을 세울 때 기초 공사를 마치고 정초석을 설치하며, 연월일을 적고 공사 착수를 기념하는 정초식을 진행한다.

[그림] 본관 건물 입구에 있는 정초석(머릿돌)



昭和十年七月五日
礎定
仁川府尹 永井照雄

제물포고등학교 본관 입구에 있는 정초석 정면에는 “1935년 7월 5일 정초(定礎) 인천부윤(仁川府尹) 나가이 데라오[永井照雄]”라고 적혀있다.

[그림 4-6] 본관 건물 입구에 있는 정초석(머릿돌) 측면



柴田織造
請負人

1) 「제물포고등학교」,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A0%9C%EB%AC%BC%ED%8F%AC%EA%B3%A0%EB%93%B1%ED%95%99%EA%B5%90&ridx=0&tot=4586>)

정초석 측면에는 “청부인(請負人) 시바타[柴田織造]”라고 적혀있다. 청부인이란 ‘청부 계약을 맺은 당사자 가운데 일을 완성할 것이라고 약속한 자’를 뜻한다. 시바타는 건물을 짓는 책임자였다. 현재 본관 건물을 지을 때 땅에 묻어져 있었는데, 버리지 않고 시멘트로 임시로 붙여 놓은 것이라고 했다. 제물포고등학교 본관 입구에 있는 정초석은 1935년에 건립된 인천중학교 건물의 머릿돌이다.

■ 정초석(머릿돌)

- 인천부윤(仁川府尹) 나가이 데라오[永井照雄]
 - 부윤(府尹) : 1914년 4월 1일 지방 행정구역 개편이 진행되었고 부제(府制)가 실시되었다. 부(府)의 최고 책임자이며 직위를 가진 자를 부윤이라고 하였다.
 - 나가이 데라오[永井照雄, 1888.8.29.~1942.1.4.]

[그림 4-10] 인천부윤 나가이 데라오[永井照雄]



- 인천부윤 부임 : “금번 지방관 이동으로 인하여 영정(永井) 목포부윤이 인천부윤으로 전임되어 16일 오전 8시 상인천역 도착 열차로 부임하였다고 한다.”²⁾
- 학력 : 1917년 가고시마현 고등농림학교 졸업. 1923년 교토제국대학 경제학과 졸업.
- 약력 : 1917년 조선으로 건너와서 영림창(營林廠)에서 근무.
 - 1918년 11월 기수(技手)로 임명.
 - 1920년 6월 직장을 그만두고 교토제국대학 경제학과에서 공부.
 - 1923년 3월 학업을 마침.
 - 1924년 4월 다시 조선으로 건너와서 평안남도 관리가 되어 출세 가도를 달림.
 - 1927년 함경북도 학무과장.
 - 1929년 12월 함경남도 지방과장 겸 산업과장으로 여러 차례 승진. 목포부윤으로 전출.
 - 1933년 인천부윤으로 승진.

2) 『동아일보』 1933.08.17.

• 평가

- 연구심이 강하고, 왕성한 활동력을 가지고 있다.
- 인천부를 위해서라면 과감히 일을 추진해 가는 사람임.
- 때로는 일부 부민(府民)의 반감을 사거나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력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기 때문에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음.
- 농림과 경제학 분야의 기초 지식이 풍부하고 행정관으로서도 다년간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차분하면서도 능글능글한 처세술을 과시하는 스타일은 아님.³⁾

■ 1935년 7월 5일 정초(定礎)

현재 제물포고등학교 본관에 있는 정초석은 1935년에 부림으로 설립된 인천중학교 설립과 연관된 것이다.

(그림4-11) 인천중학교 설립 관련 기사(1)



인천중학교가 4월부터 개교한다는 기사. 나가이 인천부윤이 맹렬하게 학교 건립을 위한 운동에 나섰다라는 내용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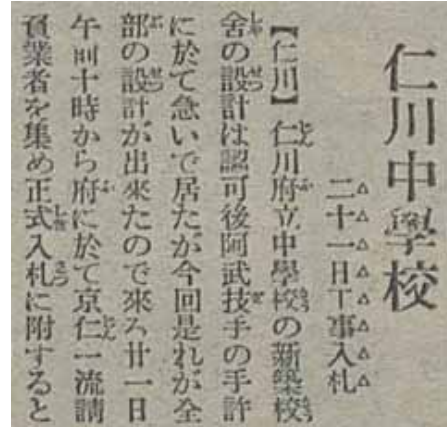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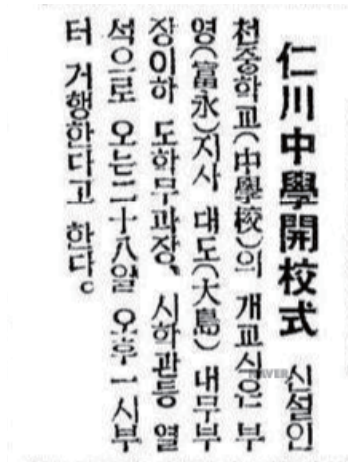
인천중학교 설립 위치를 놓고 인천부민의 불평이 야기되고 있다는 내용⁵⁾

3) 나가이 데라오(永井照雄)의 학력, 약력, 평가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현대인물자료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im>) 참조.

4) 『부산일보』 1935.02.25.

5) 『조선일보』 1935.03.09.

[그림 4-12] 인천중학교 설립 관련 기사(2)



인천중학교 개교식이 4월 28일 1시에 진행된다는 내용.⁶⁾

인천중학교 신축 교사 공사 입찰이 1935년 6월 21일부터 진행된다는 내용.⁷⁾

■ [정초석 측면] 청부인(請負人) 시바타[柴田織造]

935년 6월 21일부터 진행된 공사입찰을 통해 시바타가 인천중학교 교사 건설 권리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시바타에 대한 자세한 약력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인천지역에서 토목건축 청부 및 운송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된다.⁸⁾

[표 4-1] 시바타[柴田織造]가 운영한 회사 정보

회사조합명	土木建築請負柴田組(合資)	株式會社柴田運輸組
자본금	30,000원	30,000원
불입금		30,000원
목적	토목건축 청부 및 운송업	운송 및 운송 취급 영업
사장/대표	柴田織造	柴田織造
중역	柴田シヨウ, 藤本信次郎	森秀雄, 岡田貞雄, 柴田龍一, 永井哲夫
설립일	1935.10.28.	1939.12.19.
본점주소	인천부 빈정 25	인천부 화정 3정목 26

6) 『동아일보』 1935.04.26.

7) 『부산일보』 1935.06.21.

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현대회사조합자료(<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hs>)

■ 제물포고등학교 본관 앞에 있는 정초석

1935년 인천중학교 건물을 지을 때의 정초석이다. 인천부윤 나가이 데라오[永井照雄]가 학교설립을 주도했으며, 건물 시공 책임자는 시바타[柴田織造]였다.

(참고) 정초석과 관련된 최근 사례 : 한국은행 본관 정초석 처리 문제

기사1) 한은 본점에 ‘침탈 상처’ 고스란히 … 일제 머릿돌 남아 있는 이유⁹⁾

“이 머릿돌은 일제 침탈의 흔적이지만, 남겨 둬으로써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그림 4-15]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글씨체



사적 제280호 「서울 한국은행 본관」 현재의 정초석
· 현재 정초(定礎) 글씨가 남아 있음, 당시 정초 일자와 서명은 지워져 있고,
후에 “음력 3년 7월 11일(1909.7.11.)이 새겨져 있음



일본 하마마츠시 시립중앙도서관/하마마츠시 문화유산 디지털아카이브
[명치 42년 7월 11일(1909.7.11.) 공작이등박문]

9) 『뉴스1』 1921.09.15.(<https://www.news1.kr/articles/?4436036>)

한국은행은 1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은행 본점 화폐박물관 머릿돌(정초석) 앞에 이 같은 문구를 넣은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화폐박물관 건물은 1907년에 착공돼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은행 본점으로 사용됐다. 광복 후 1950년부터 1987년까지는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은이 들어섰다. 1987년 신관이 건립되면서 현재 화폐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적 제280호로 지정돼 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화폐박물관 모퉁이의 머릿돌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6년이다.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뜻의 ‘定礎’(정초)라는 글자가 조선총독부 초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의 글씨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그러나 이후에도 제대로 된 고증이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해 정치권의 지적에 문화재청이 자문단을 꾸려 현지조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문화재청은 이토 히로부미의 글씨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먹으로 쓴 ‘정초’ 두 글자의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비스듬하게 내려쓴 획에선 이토 히로부미의 글씨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러나 문화재청과 한국은행은 이 머릿돌을 그대로 두고 이를 설명하는 안내판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뒤이어 한은은 안내판을 이날 설치했다. **아픈 과거를 감추기보다는 이를 되돌아보면서 역사의 교훈으로 남긴다는 취지에서다.** 이제 화폐박물관으로 가면 건물 한켠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로 새겨진 우리 역사의 ‘상처’를 볼 수 있다. 안내판의 문안은 아래와 같다.

“이 머릿돌(정초석)은 일제가 침략을 가속화하던 1909년 7월 11일 설치되었다. ‘定礎(정초)’라는 글씨는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가 쓴 것이다. ‘**隆熙三年七月十一日(융희 3년 7월 11일)**’은 광복 이후에 새긴 것으로 추정되나,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다. 이 머릿돌은 일제 침탈의 흔적이지만, 남겨 둬으로써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그림 4-16] 한국은행 정초석 안내판



기사2) 한은, 이토 히로부미가 쓴 정초석 안내판 설치¹⁰⁾

[그림 4-17] 한국은행 정초석 안내판 내용

안내판 문안(문화재청 통보)

이 머릿돌(정초석)은 일제가 침략을 가속화하던 1909년 7월 11일 설치되었다. ‘定礎(정초)’라는 글씨는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가 쓴 것이다. ‘**隆熙三年七月十一日(융희 3년 7월 11일)**’은 광복 이후에 새긴 것으로 추정되나,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다.
이 머릿돌은 일제 침탈의 흔적이지만, 남겨 둬으로써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 1907년부터 사용된 대한제국의 마지막 연호

10) 『데일리안』 2021.09.15.(<https://www.dailian.co.kr/news/view/1033726/?sc=Naver>)

한국은행은 15일 화폐박물관 머릿돌(정초석) 앞에 이를 설명하는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안내판에는 머릿돌이 1909년 7월 11일 설치됐으며, ‘定礎(정초)’라는 글씨는 이토 히로부미가 쓴 것이라고 적혀있다. 한은의 이 같은 조치는 머릿돌을 현상대로 유지하되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한 문화재청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한은 본관의 정초석의 ‘정초’ 글씨가 이토 히로부미가 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문화재청이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조사한 결과,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정초석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거셌으나, 문화재청과 한은은 결국 정초석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다. 문화재청은 안내판의 문안, 크기,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하여 한국은행에 준수토록 통보했다.

(예시) 인천중학교 정초석(머릿돌) 안내문

이 머릿돌(정초석)은 1935년 인천중학교 건물을 지을 때 설치되었다. 인천부윤 나가이 데라오[永井照雄]가 학교설립을 주도했으며, 건물 시공 책임자는 시바타[柴田織造]였다. 제물포고등학교 건물이 세워질 때 땅에 묻혀 있던 것을 발견하였다. 인천중학교는 철저하게 일본인 중심의 학교였다. 인천중학교 머릿돌은 일제가 남겨 둔 잔재이다. 하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현재 제물포고등학교가 설립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과거를 기억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발전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

참고 문헌

- 이연경, 문순희, 박진한, 『인천, 100년의 시간을 걷다』, 북멘토(2019)
- 인천교육청, 「인천 학교 내 일제잔재 및 군사문화 바로알기 조사 결과 보고서」(2020)
- 인천교육청, 「학교 내 일제 잔재 동상 및 조형물 실태 조사 및 교육적 활용방안 모색」(2021)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2019.~2021.)

2. 일제잔재 청산의 역사적 의미와 필요

가. 수업 개요 및 교수-학습 지도안

과목	세계사, 동아시아사, 한국사, 현대세계의 변화		
성취 기준	[12세사05-01]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이에 대항한 아시아·아프리카의 민족 운동에 대해 조사한다. [12세사05-02] 제1,2차 세계 대전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고,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12동사04-02] 제국주의 침략의 실상과 일본 군국주의로 인한 전쟁의 확대 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대항한 각국의 민족 운동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12동사05-01] 제2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 과정을 알아보고, 동아시아에서 냉전의 심화해체 과정과 그 영향을 분석한다. [10한사04-02-0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한다. [12현세02-01] 유럽이 제국주의 경쟁에 나선 배경과 결과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당시의 식민 지배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12현세02-02] 제국주의에 저항한 식민 지역의 저항 운동을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세계적으로 민족주의가 확산된 과정을 탐구할 수 있다.		
학습 목표	1. 제국주의 유산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의미를 토론할 수 있다. 2. 제국주의 유산의 다양한 활용 방법과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수업유형	토의, 토론 학습 / PBL	총 차시	4차시
인천 핵심 역량	☐ 자기관리역량 ☒ 의사소통역량 ☒ 다양성존중역량 ☒ 문제해결역량 ☒ 협력역량		
수업 흐름	탐색과 공감 - 일제잔재 종류와 의미 ⇒ 문제파악 및 해결방안 도출 - 일제잔재 처리와 활용 - 일제잔재 청산의 필요성 - 제안서 작성하기 ⇒ 실천과 공유 - 제안서 공유 및 실천 다짐		

교수-학습 지도안(1차시 - 제국주의가 남긴 것)

단계	교수·학습 과정	교수·학습 자료
도입 (20분)	▶ 제국주의 통치가 남긴 것에 대한 문제 제기 - 남아공 식민주의자 로즈 동상 철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054216 - 영상 시청 후 동상 철거에 대한 모둠 토의	자료 1 KBS 뉴스 2015.04.10. - 활동지1 - 교사자료1

	활동 도움말 * 제국주의 유산 처리의 이유와 의미,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 * 역사 공부는 정답을 찾기보다 성찰을 통해 좀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안내한다. * 태피나 스마트폰으로 검색 가능한 와이파이 교실을 사용한다. ▶ 학습 목표 안내 학습 목표 제국주의 유산의 종류를 파악하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전개 (25분)	① 제국주의가 우리에게 남긴 것 (모둠별 탐구) ▶ 우리 주변에 있는 일제 잔재를 찾아 유형화하고 의미를 생각해 보기 - 일제 잔재의 종류와 기준 그리고 의미 ① 인적잔재-친일 부역자, 반민족행위자 ② 물적잔재-친일재산, 적산 ③ 유형잔재-일제 상징물과 조형물 ④ 무형잔재-생활문화, 제도, 의식, 문화예술 - 우리가 사는 지역이나 학교에 있는 일제 잔재 찾아보기 활동 도움말 * 일본과 관련된 것이 무조건 일제 잔재가 아닐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 현재 자신이 사는 곳과 다니는 학교에 대해 돌아보도록 하고 일제 잔재가 가지는 의미를 현재로 확장한다.	자료 2 - 활동지2 - 교사자료 2~4
정리 (5분)	◎ 작성한 모둠 활동지 중 일제 잔재의 종류와 기준 그리고 의미에 대해 모둠 활동을 공유한다. ◎ 다음 차시 안내 - 일제 잔재 청산의 필요성 활동 도움말 다른 모둠의 의견을 경청하고 학급에서 비슷하거나 다른 의견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교수·학습 지도안(2차시 - 제국주의 유산에 대한 우리의 자세)

단계	교수·학습 과정	교수·학습 자료
도입 (15분)	▶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처벌과 과거청산에 대한 문제 제기 -도쿄재판 일본 전범들의 무죄 주장 근거 https://www.youtube.com/watch?v=YjgVOF_w5I -과거를 해방해야 미래도 해방된다. 과거의 악행을 반성하는 독일 https://www.youtube.com/watch?v=XIkITdRIAqs - 영상 시청 후 전범 재판과 과거사 청산에 대한 모둠 토의 활동 도움말 * 2차 대전 이후 동서 냉전이 아시아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에 대해 생각하도록 한다. * 다른 나라의 과거사 정리를 통해 우리나라 과거청산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도록 한다. ▶ 학습 목표 안내 학습 목표 일제 잔재 청산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자료 3 KBS 역사저널 그날 2019.12.10. tvN 벌거벗은 세계사 2022.03.08. - 활동지3 - 교사자료 5
전개 (30분)	② 제국주의 유산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모둠 토의) ▶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노력과 평가 - 우리 정부의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노력을 조사하고 토의 - 프랑스의 과거청산과 우리나라의 노력 비교, 평가 -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필요성과 바람직한 태도 활동 도움말 * 일제 잔재 청산이 과거만이 아니라 국가 신뢰와 국민 통합을 위해 현재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상기시킨다. * 과거를 성찰하여 현재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다면 좀 더 발전적인 미래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자료 4 - 활동지4 - 교사자료 6~8
정리 (5분)	◎ 일제 잔재 필요성에 대해 모둠별로 발표 ◎ 다음 차시 안내 - 일제 잔재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법	

교수·학습 지도안(3차시 - 평화와 화합을 위한 우리의 노력)		
단계	교수·학습 과정	교수·학습 자료
도입 (10분)	▶ 일제 잔재 청산이 현재와도 관련된 일임을 환기 -베를린 소녀상 철거 시위 독일인들의 분노 https://www.youtube.com/watch?v=IW0404NiFlw -영상 시청 후 사건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 모둠토의 ▶ 학습 목표 안내 학습 목표 일제 잔재의 다양한 처리와 활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자료 5 연합뉴스 2022.6. - 활동지5 - 교사자료 9
전개 (25분)	③ 평화와 화합을 위한 우리의 노력(모둠별 탐구) ▶ 일제 잔재에 대한 처리와 활용 방법 조사 - 일제 잔재의 합리적 처리와 역사적 활용 방법 활동 도움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다양한 활용 방법에 대해 생각하도록 안내한다.	자료 6 - 활동지6 - 교사자료 10~12
정리 (15분)	◎ 작성한 모둠 활동지 중 가장 바람직했던 처리 및 활용 사례 하나와 가장 미흡했던 처리 및 활용 사례를 하나씩 발표한다. ◎ 다음 차시 안내 - 일제 잔재에 대한 제안서 쓰기	

교수-학습 지도안(4차시 - 평화와 화합을 위한 우리의 실천)

단계	교수·학습 과정	교수·학습 자료
도입 (10분)	▶ 전사 학습 환기 - 일제 잔재 처리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 정리 - 모둠별 일제 잔재 선정 ▶ 학습 목표 안내 01 학습 목표 일제 잔재 청산의 방법과 활용에 논의하여 합리적 방법을 글로 제안할 수 있다.	
전개 (25분)	④ 평화와 화합을 위한 우리의 노력(모둠별 활동) ▶ 일제 잔재에 대한 처리와 활용 - 선정한 우리 주변의 일제 잔재에 대해 제안서 작성 02 활동 도움말 주변의 예시를 통해 일제 잔재의 처리와 활용이 우리의 삶과 관련 있음을 알게 한다.	자료 7 - 활동지7
정리 (15분)	◎ 작성한 제안서를 공유하여 일제 잔재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고민하고 현재 의미에 대해 생각한다. ◎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실천 활동 다짐 한마디 쓰기 03 활동 도움말 다른 모둠의 의견을 경청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한다.	

나. 수업 활동지

활동지 1	제국주의가 남긴 것	()학년 ()반 ()번 이름 ()
--------------	-------------------	---

1.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로즈 동상 철거에 대한 동영상과 읽기 자료를 보고 모둠 토의하기

〈KBS 뉴스〉 2015.04.10. 남아공 식민주의자 로즈 동상 철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054216>

〈한국일보〉 2015.03.22. 남아공 학생들, 백인 식민주의자 동상에 배설물
 아프리카 최고 명문대학으로 불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케이프타운대학 학생들이 이 대학 부지 기증자이자 유명한 식민지주의자인 세실 존 로즈(1853~1902년)의 동상에 배설물을 투척하는 등 동상 철거시위를 벌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케이프타운대학 구내에 있는 로즈의 동상은 검은색 비닐로 만들어진 쓰레기 봉투로 감겨 있다. 최근 한 학생이 동상에 배설물을 투척한 사건 이후 일부 흑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로즈를 ‘백인 압제의 상징’이라며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500여 명의 학생은 전날 “로즈는 몰락해야 한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맥스 프라이스 부총장이 연설하는 관리동 건물로 모였다. 프라이스 부총장은 식민지 정복의 많은 부정이 로즈의 감독하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하면서 그의 동상이 눈에 잘 띄는 지금 위치에서 옮겨져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그는 그러나 결정은 대학협의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4월 15일 협의회에 앞서 직원과 학생을 포함하는 대화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 동상이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가 끝난 지 21년이 되는 현재까지 인종차별 개혁 의지 부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동상 철거 날짜를 확실히 하라고 요구했다. 대학생 노말리과 하데베는 “변화가 곧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데 지쳤다. 우리는 그것이 5년 내가 아닌, 지금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이 땅은 처음 흑인 아프리카인들로부터 빼앗은 땅”이라며 “로즈가 유언으로 캠퍼스 부지를 증여한 것이 동상 설립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영국 출신으로 1870년 남아프리카로 이주한 로즈는 전형적인 식민지주의자로, 다이아몬드광·금광을 독점 경영 하면서 거부로 성장한 뒤 정계로 진출, 케이프 주 식민지 총독을 거쳐 남부와 중앙 아프리카에 대한 무력정복을 꾀했다. 1894년 잠비아·짐바브웨 등 중앙아프리카 정복을 완성한 뒤 자신의 이름을 따 ‘로디지아’라 명명하고 케이프타운에서 카이로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을 계획하기도 했다.

1)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어떤 나라인가?

.....

.....

2) 세실 존 로즈는 누구인가?

.....

.....

3) 왜 로즈의 동상을 철거하려 하는가?

.....

.....

4) 19세기의 일이 왜 21세기에 와서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

.....

5) 모둠에서는 로즈 동상의 철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보자. (의견+이유)

.....

.....

활동지 2

제국주의가 우리에게 남긴 것 - 일제 식민통치를 중심으로 -

()학년 ()반 ()번
이름 ()

2. 일제 식민 통치를 경험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일제 잔재를 찾아 유형화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자.

1) 일제 잔재란 무엇인가?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 침탈과 식민지배 과정에서 남겨놓은 부정적 유산

2) 시기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은가?

일제 침탈이 시작된 1875년 운요호 사건 이후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의 70여년

3) 각자 일제 잔재를 생각나는 대로 떠올려보고 모둠끼리 의견을 정리하여 종류별로 적어보자.

① 인적 잔재

② 물적 잔재

③ 유형 잔재

④ 무형 잔재

4) 일제 잔재를 정리하는데 모듬의 의견이 잘 일치하였는가? 만약 일치하지 않았다면 어떤 기준으로 일제 잔재를 정하였는지 다른 모듬에게 이야기해보자.

5) 남아있는 일제 잔재에 대해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 이야기해보자.

3. 조사한 일제 잔재 중 우리가 사는 지역이나 다니는 학교와 관련된 것은 무엇이 있었는가?

활동지 3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우리의 자세

()학년 ()반 ()번
이름 ()

4. 침략전쟁 처벌과 과거청산에 대한 동영상과 읽기 자료를 보고 모둠 토의하기

〈KBS 역사저널 그날〉 2019.12.10. 도쿄재판 일본 전범들의 무죄 주장 근거

https://www.youtube.com/watch?v=vYjgVOF_w5I



〈읽기 자료〉 천재교육 학습백과 중

정식 명칭은 극동 국제 군사 재판(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이다. 극동 군사 재판소가 도쿄에 있어 '도쿄 재판'이라고도 한다. 재판소는 1946년 1월 19일 '극동 국제 군사 재판소의 설립에 관한 연합국 최고 사령관의 특별 성명서'와 '극동 국제 군사 재판소 조례(총 17조)'에 의해 설치되어, ③ 평화에 관한 죄, ⑥ 통상적인 전쟁 범죄, ⑦ 인도에 관한 죄 중 ③에 관련되어 기소된 중대 전쟁 범죄자에 대해서만 심리·처벌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평화에 관한 죄를 침략 전쟁 또는 국제법이나 조약을 위배한 전쟁을 계획·개시·수행하는 과정에서 범한 죄 또는 그 계획·모의에 참가한 개인·단체 구성원이 범한 죄로 규정하여 이들을 A급 전범자로 규정하였다.

도쿄 재판소는 1946년 2월 18일, 연합국 최고 사령관인 맥아더에 의하여 웹 재판장(오스트레일리아)을 비롯한 10명의 재판관을 수석 검찰관으로 하는 30여 명의 검찰관이 임명됨으로써 발족되었고, 이에 따라서 1946년 4월 29일 도조 히데키 이하 28명의 피고가 A급 전범자로 정식 기소되어, 이해 5월 3일부터는 이에 대한 심리가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각 피고인이 선정한 28명의 일본인 변호인단과 2명의 미국 측 변호인단이 참가하였다.

법정은 1948년 11월 12일, 심리하는 도중에 사망한 마쓰오카 요스케, 나가노 오사미와 정신 이상을 일으킨 오카와 슈메이를 제외한 25명에 대하여 전원 유죄를 인정하여, 교수형 7명, 종신형 16명, 금고 20년 1명, 금고 7년 1명의 형을 선고하였다.

〈tvN 별거벗은 세계사〉 2022.03.08.

과거를 해방해야 미래도 해방된다. 과거의 악행을 반성하는 독일

<https://www.youtube.com/watch?v=XIkITdRIAqs>



1) 일본 전범이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보자.

① 잔혹행위는 전쟁 중 일어난 우발적 사건이다.

② 아시아태평양 전쟁은 미국의 침략에 대응한 자위전이다.

③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확산 방지가 목적이다.

2) 과거에 대한 일본과 독일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3) 전쟁 범죄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활동지 4

제국주의 유산에 대한 우리의 자세 - 일제 잔재를 중심으로 -

()학년 ()반 ()번
이름 ()

5. 해방 후 우리나라 정부는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조사해보자.

1) 이승만 정권(반민족행위처벌법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약칭 반민특위(反民特委)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제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서 설치한 특별위원회이다. 제헌국회에서는 1948년 9월 7일 국권강탈에 적극 협력한 자, 일제치하의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등을 처벌하는 목적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반민특위는 그 산하에 배치되어있는 특별경찰대를 활용하여 일제시대의 친일 기업가였던 박흥식, 일본군 입대 선전에 참여한 최남선·이광수 등을 검거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등 친일파들을 색출하였다. 그러나 해방 후 친일파를 대거 기용한 이승만 정부의 반대로 활동이 지지부진하였고 1949년 6월 6일 특별경찰대가 강제 해산당하면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였다. 곧 국회 중도파가 특위기간을 단축하였고 동년 10월에 완전히 해체되었다.

2) 김영삼 정권(역사바로세우기)

1993년도 문민정부 출범 당시 추진한 운동으로, 1949년 반민특위, 1960~61년 장면 내각과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과거사 청산에 이은 과거사 청산운동이다. 일제강점기 잔재 청산에도 나서서,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2월에는 '쇠말뚝 뽑기 사업'을 실시하고, 8월 15일에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있던 조선총독부 청사를 철거하기에 이른다. 그 외에 같은 해 새해부터 행정구역 개편으로 도농통합시를 대거 만든 것도 역시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가 조선인, 일본인 거주지 기준으로 행정 구역을 분리시킨 것을 통합하는 것으로 일제 잔재 청산의 목적이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모두 바꿨는데 이는 국민학교가 제4차 조선교육령 당시 일제가 황국신민을 만들어 내는 학교라는 의미로 국민학교로 소학교에서 이름을 바꿨기 때문이다.

3) 노무현 정권(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의 활동)

2005년 5월 3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약칭: 과거사정리법)에 의해 2005년 12월 1일 출범한 위원회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혀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이다.

6. 프랑스의 과거청산에 대한 자료를 보고 모둠 토의하기

〈읽기 자료〉『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이용우)에서 발췌 정리

- 대상시기 : 1940~1944 독일강점기 (비시 체제기)
- 주도세력 : 드골 중심의 레지스탕스 세력
- 규모 : 전국 약 35만명 중 12만 명 이상 재판, 98,000명 실형 선고, 약 38,000명 수감, 6,763명 사형선고 1,500명 사형집행, 9,000명 약식 처형, 약 20,000여 명의 여성 부역자 삭발, 21,000명 공무원 징계, 5,700명 공사직원과 15,000명 군인들 행정 숙청 → 프랑스인 116명당 1명 처벌
- 방법 : 초법적 형태-약식처형, 삭발식 / 합법적 형태-사법적 숙청, 행정 숙청, 경제 숙청 등
- 기간 : - 수치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상황에서 대부분 1944~45년 절박하게 수행, 부역자 재판소 1951년에 문닫음, 1950년 중반 귀국한 비시 관료 재판을 위해 다시 문을 었.
- 1970년대 초 프랑스 사회 문화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인륜범죄 적용 1998년 파퐁 금고형 선고
- 의미 : 정의실현-조국을 위해 희생했던 레지스탕스를 탄압한 자의 죄과를 물음, 유대인 절멸에 협력한 자 처벌,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체제 처벌
- 과거 청산에 관한 논쟁
 - 카뮈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 모리악 “오류를 범할 권리”를 인정,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 “우리는 게슈타포의 장화를 신어서는 안된다.”

1)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과거청산(시기, 규모, 내용 등)에 대해 비교해 보자.

.....

.....

.....

.....

.....

2) 과거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자.

카뮈의 정의와 모리악의 관용, 역사에 대한 기억과 망각의 태도에 대해 토의

인류에 대한 책임, 인간의 존엄성, 도덕에 따른 행동은 어떤 것인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한 미래지향적 역사 인식의 해법에 대해 고민

.....

.....

.....

7. 일제 잔재에 대한 역사적 정리와 처리의 필요성에 대해 토의해보자.

예시> 친일파 청산이 필요한 이유 <https://brunch.co.kr/@08c66b509d614bf/16> 중 편집 -

국가마다 역사의 정의를 세우고 실천하는 방식은 다르나 이는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관련이 있다. 2018년 미국은 뉴욕에 거주하고 있던 나치 부역자 95세 야키프 팔리를 독일로 추방했다. 미국이 독일에게 식민지배를 받았던 것도 아니고 나치 부역자가 미국 시민을 위협에 빠뜨렸던 것도 아니었음에도 미국은 그를 강제 추방하였다. 이는 아직도 국가를 상대로 친일 조상의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고 있는 한국과는 다른 환경이다. 국가가 과거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현재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

나치 부역자를 추방하면서 미국이 밝혔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는 미국이 인권 침해자와 전범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 정의를 실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역사상 최악의 잔학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끈질기게 추적해 나가는 법무부의 헌신이다.’ 라 하였다.

우리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이완용의 후손이 국가와 민족을 판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하사받은 경기 김포의 땅에 대해 그 후손들이 17건의 토지 반환 소송을 걸었고 실제 승소하여 소유권을 가져가기도 하였다. 친일파 후손이 자손 대대로 잘산다면 ‘옳은 일을 하면 손해’라는 잘못된 가치 신념을 고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대다수 친일 후손들이 사회 집권층이나 엘리트로 남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념대립과 분열을 꾀하였던 역사를 볼 때, 애국자에게는 상을 민족을 배반한 범죄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어야 한다. 이 작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국민을 단결시킬 수 없다. 민족을 배반한 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국민을 이념적으로 분열시키기 때문이다. 일제 잔재 청산은 과거에 대한 단죄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과거를 바로 잡고 현재의 가치를 다시 제대로 세워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 후손들이 조국의 역사에 자부심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국가는 일제 잔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채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로부터 역사적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노력이 모일 때 국민들은 국가를 신뢰할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역사에서 정의를 찾고 더 나은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세대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활동지 5

평화와 화합을 위한 우리의 노력

()학년 ()반 ()번
이름 ()

8.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동영상과 읽기 자료를 보고 모둠 토의하기

〈연합뉴스〉 2022.6. 베를린 소녀상 철거 시위 독일인들의 분노
<https://www.youtube.com/watch?v=IW04O4NiFlw>



〈오마이 뉴스〉 2022.7.20.

‘수요일이면 교사, 학생 오던 곳에 욕설만 가득, 이렇게 된 진짜 이유’ 중 편집

지난 7일, 경희대의 한 철학과 교수가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매춘한 것”, “성매매 여성들을 우리가 위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했다. 이 교수는 식민 지배를 ‘일제가 한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며 식민지 근대화론에 근거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학생들이 반발하자 교수는 일제 침략 자체를 옹호한 게 아니라면서도 위안부에 대한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2019년에는 연세대 류석춘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펴 사회적 논란이 됐다. 그리고 2021년에는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가 ‘태평양 전쟁에서 성을 위한 계약’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라 규정하려다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이렇게 교수들이 역사를 왜곡해도 대가는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다. 학생들의 항의로 논란이 되어서야 대학 당국은 징계에 들어간다. 류석춘 교수는 정직 1개월에 그쳤고, 이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정년퇴임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예정대로 배포되었다.

같은 전범국가인 독일은 공공장소에서 역사를 부정하거나 나치를 선동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 ‘5·18역사왜곡처벌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전례가 있다.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해서 처벌은 커녕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이다. 역사부정과 역사왜곡은 우리 사회로, 그리고 공동체 깊은 곳까지 확장된다.

요즘 수요시위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본래 수요시위는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현장이자 평화를 실천하는 곳이었다. 1992년 1월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된 수요시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쉼 없이 싸워온 위안부 할머니들의 투쟁으로 어느새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어왔다. 2022년, 현재 수요시위에서 역사부정세력들은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내뱉으며 소녀상과 피해자들을 모욕한다. 이들이 근거로 삼는 자료가 바로 일본의 지원을 받은 대학 교수들의 연구, 그리고 그들이 발표하는 논문과 책 등이다.

1) 일본군 ‘위안부’를 부정하는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신치일파

과거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와 관점의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보자

2) 과거 역사가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과거 역사에 대한 왜곡된 관점은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됨

3)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과거 역사에 대한 진실 규명과 정립을 통해 현재의 역사적 평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미래 후손에게 전수할 국가 정체성이 마련되고 국가 발전의 기초가 되는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활동지 6

평화와 화합을 위한 우리의 노력

()학년 ()반 ()번
이름 ()

9. 일제 잔재에 대한 처리 및 활용 사례를 찾아 의견을 나누어보자. (2가지 이상씩)

1) 철거 및 이전, 변경

① 2001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광신중학교 친일 기업인이자 설립자인 박흥식의 동상 철거

② 옥일기가 연상되는 교표 변경(김포 대명초, 양평 양동초, 화성 정남초 등)

2) 안내판(단죄문) 설치

① 2017. 4. 이화여대 '이대 친일청산프로젝트기획단'이 친일파 김활란 동상 옆 팻말을 세움.

② 광주 신사 계단 안내문 설치

3) 도서 편찬 및 아카이브 구축

① 민족문제 연구소 친일일명사전 편찬

②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아카이브 포털서비스 (<https://moveforward.library.kr/index.do>)

4) 문화컨텐츠 활용(다크투어리즘)

① 인천 개항장길 (구 제1은행 지점-개항박물관, 구 18은행건물-인천개항장근대건축전시관)

② 서울 국치의 길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0720>)

10. 다양한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노력에 대해 평가하고 의견을 나누어보자.

1)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

.....

.....

2)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

.....

.....

3) 우리 주변에 있는 일제 잔재에 대한 처리와 활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

.....

.....

.....

.....

활동지 7

평화와 화합을 위한 우리의 실천

()학년 ()반 ()번
이름 ()

11. 일제 잔재 중 하나를 정하여 모둠별로 활용 및 처리 방안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해 보자.

제안서

제안자 :

1. 일제 잔재 종류
2. 일제 잔재 대상
3. 일제 잔재 특징

일제 잔재 사진

4. 제안 사항과 이유

예시) 경기도 의회 의견서

최근 일부 기관 또는 학계에서 독립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동원 피해자를 모욕하고 일본의 침략 전쟁 행위를 미화하거나 찬양하여 심각한 역사 왜곡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발표한 11명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비극적인 오늘의 역사를 후손에게 물려 주지 않도록 시대적 양심과 도리로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제안한다.

1. 국회와 정부는 독립유공자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일본의 침략전쟁 행위를 미화, 찬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친일찬양금지법’을 제정하라.
2. 국회와 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이미 안장된 경우 이장을 강제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기 위한 ‘상훈법’을 개정하라.

12.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짐해 보자.

- ① 일본어투의 말을 순화하여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하기
- ② 우리 주변의 일제 잔재에 대해 명확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처리 방안 제안하기
- ③
- ④
- ⑤

다. 교사 참고 자료

1. <뉴스1> 세계 최고 로즈 장학재단 설립자 ‘제국주의자’라며 동상 철거위기 2020.06.18.

<https://www.news1.kr/articles/?3969587>

제국주의자 동상 철거해야: ‘로즈 머스트 폴’(Rhodes Must Fall, 로즈 동상이 철거돼야 한다는 집단) 운동가들은 이 동상이 제국주의와 인종차별주의의 상징이라며 철거를 요구했다. 오리엘 칼리지 이사회는 이번 철거 권고 결정이 “사려 깊은 논의와 성찰의 시간을 가진 후 도달한 것”이라며 “이 결정이 영국과 전 세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완전한 인식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로즈는 19세기 후반 대영제국 시절 해외 식민지 정책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던 전형적인 이 시대의 제국주의자이며 백인 우월주의자였다.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부리 깊은 인종차별주의도 그가 남긴 유산이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남아프리카로 건너가 다이아몬드와 금광을 개발하고 전신과 철도 사업을 벌이며 남아프리카 경제계를 주무르며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 이후 정계로 진출해 케이프주 식민지 총독을 지냈다.

그가 정복한 중앙아프리카 지역은 한때 그의 이름을 따 로디지아로 불리기도 했다. 현재의 짐바브웨가 1980년 4월 개명하기 전 국가명이다. 그는 성공한 후 자신이 졸업한 오리엘 칼리지에도 거금을 쾌척해 그를 기리는 장학금이 만들어졌다. 그것이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인 ‘로즈 장학금’이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와 토니 애벗 전 호주 총리 등이 바로 이 ‘로즈 장학금’의 수혜자들이다.

역사적 맥락으로 이해하고 보존해야: 로즈 동상의 운명은 여전히 분분하다. 벨 리베어로-애디 노동당 하원 의원은 트위터에서 “철거 권고는 옳은 결정”이라며 “로즈와 같은 인물들을 끌어내려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반면 대니얼 한난 전 보수당 하원의원은 “로즈의 관대함 덕분에 수많은 청년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다”며 “기부자를 이런 식으로 대우한다면 누가 기부를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루이즈 리처드슨 옥스퍼드대 부총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동상 철거에 반대하며 과거를 지켜야 한다”며 “우리의 역사를 숨기는 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역사적 상황과 그것이 만들어진 시대적 맥락을 이해하며 당시 사람들의 믿음과 신념이 형성된 이유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리처드슨 부총장은 “옥스퍼드 대학의 900년 역사 동안 800년간은 여성의 교육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운영했다”며 “그렇다고 그들을 비난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2. 일제 잔재 유형 (「인천 학교 내 일제잔재 및 군사문화 바로알기 조사 결과 보고서」 p5)

- ① 인적 잔재: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통치에 부역한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그와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맺어져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친일 비호세력

※ 친일파란?

을사늑약 전후부터 해방될 때까지 일제의 국권침탈, 식민통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우리 민족 또는 타 민족에게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끼친 자. 민족반역자와 부일협력자 상충부, 죄적이 현저한 친일행위자(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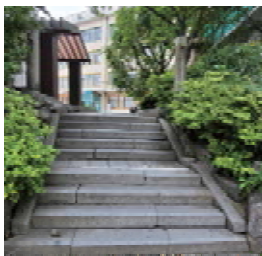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호 친일반민족행위의 정의 규정에 상당한 행위를 저지른 자(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② 물적 잔재

-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매국배족의 대가로 형성한 친일재산
- 기업, 단체 또는 개인이 부당하게 취득한 조선총독부 등 식민통치 기관과 재조일본인의 자산 등 적산(敵産)
- 국가가 관리하고 있으나 국(國)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조선총독부 등 식민통치 기관과 재조일본인의 자산 등 적산

- ③ 유형 잔재 : 일제가 침략전쟁과 식민 통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든 시설물과 선전 조형물 등
- 은행, 공장 등 상업, 산업시설
 - 포대, 방공호, 활주로 등 군사시설
 - 황국신민서사탑, 팔공일우탑, 내선일체탑, 보국탑 등 국책 선전 기념탑비
 - 신도, 정토진종 등 일본 종교 관련 시설
 - 승전비, 충훈비 등 전쟁 기념물
 - 동상, 송덕비, 공덕비 등 일본인과 친일 조선인 찬양 조형물
 - 재조일본인 지주의 별서(別墅), 농사(農舍) 등 일본식 가옥
- ④ 무형 잔재 : 장기간의 식민지배에서 오염된 정신문화와 훼손된 전통문화.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의식세계를 지배하며 해독을 끼치고 있는 군국주의, 국가주의와 사대주의적 요소
- 생활문화 : 언어, 용어, 놀이, 풍물, 관혼상제 등 관습
 - 법·제도 : 보안법, 판결문
 - 행정 : 지명, 서식
 - 의식·관행 : 관료·군사문화, 서열·도제문화
 - 교육 : 교가, 교훈, 급훈, 교표, 의례, 조례
 - 문화예술 :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무용, 영화, 체육 등 각 분야에 잔존하고 있는 일제시기의 문투, 음계, 화풍, 표현기법, 조직문화, 관행 등

3. 인천 관내 학교 일제 잔재 예시



인천여상 신사흔적



제물포고 정초석



3-1. <인천일보> 인천여상과 인천신사 2017.04.12.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58932>

인천여상산업고등학교(이하 인천여상, 인천시 중구 인중로 146)엔 성큼 봄이 와 있었다. 건물을 빠져나와 교정을 걷는데 실습동 앞에 부도처럼 보이는 ‘석탑’과 돌기둥 모양인 ‘석주’가 서 있다. 그 아래로 석축 같은 주춧돌도 여러 개가 눈에 들어온다.

“정확히는 모르겠구요. 아무튼 일본 관광객들이 오면 여기에 서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더라구요.”

“일제 강점기 일본 신사의 흔적이나”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혜리 행정실장이 대답해준다. 이것들은 모두 1890년 6월 17일 들어선 ‘인천대신궁’의 흔적이다. 인천대신궁은 개항 뒤 몰려든 수천여 일본인들의 정신적 구심점이던 건물로 그들의 조상신을 받드는 곳이다. 그로부터 30년 뒤 총독정치가 자리를 잡으며 일제는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 ‘인천신사’였다. 인천사람들에겐 먼 발치에서나 볼 수 있는 ‘기분 나쁜’ 곳이었으나 일본인들의 인천신사는 봄이면 벚꽃놀이로, 가을엔 신사제로 일본인들이 들끓었다.

일본인들은 이 자리를 ‘동공원’이라, 각국공원(자유공원)은 ‘서공원’이라 이름 붙였다. 인천사람들은 그러나 ‘팔팔로’라 불렀다. 인천신사 경내에 야사카로(八坂樓)란 일본요정이 있었는데 1889년 수명루와 명월루란 작은 요정들을 합해 대연회장까지 갖춘 큰 술집이었다. 인천사람들은 이 술집을 한글음역으로 ‘팔판루’로 부르다가 나중에 부르기 쉽게 팔팔로로 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태범 박사는 1996년 3월 펴낸 <인천 한세기>에서 “지금의 교문(현 실습동건물 자리)에 돌로 만든 조그만 홍살 문 같은 ‘도리이’(鳥居)가 서 있었고, 들어서면서부터 광장까지엔 잘 다듬은 돌길이 있었다. 길 양쪽과 경계선 밖에는 잡목과 잡초가 우거진 험한 땅이 군데군데 그대로 남아 있었고, 길가와 광장 주변에는 벚나무가 여러 그루 심어져 있었다”고 팔판루를 회상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뒤 일본은 이곳에서 축하·승전기원·애국일 행사 등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인천 공립여자상업학교가 개교한 때는 건물들이 모두 헐리기 전인 1945년 4월 1일이다. 일본인들이 세운 학교였다.

3-2. 제물포고등학교의 인천중학교 흔적

일제 강점기인 1935년 4월 1일 일본인 학생만 입학하는 인천중학교의 정초석을 비롯해 일본식 석물 등이 남아 있다. 제물포고 본관 기초석에서는 1935년 4월 1일 일본인 부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본관 앞에는 4개 정도의 일본식 석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4. <인천투데이> 사설 3·1운동 100주년과 친일행위자가 만든 교가 2019. 2. 25.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379>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내는 물론 재외동포사회에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이 25개나 된다.

기념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3·1운동의 정신과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제대로 이어받고 살리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제의 잔재를 청산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자주와 독립, 자유와 인권, 평등과 정의 등 3·1운동의 정신과 임시정부가 만들고자했던 나라를 현시대에서 실현하기 위해 실천하는 것이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지금, 친일 음악가나 문학가가 작사·작곡한 노래를 교가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적지 않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인천여자고등학교가 현제명이 작곡하고 모운숙이 작사한 교가를 사용하고 있고, 인하사대부고와 정석항공고는 김동진이 작곡한 교가를 사용하고 있다. 광성고 교가 작사자 역시 김동진이다. 동산고와 인천해양고학교는 이흥렬이 작곡한 교가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친일 음악가나 문학가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다.

인천지역 3·1운동 발상지인 창영초교 교가가 친일 경력자인 임동혁이 작곡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친일 음악가들이 만든 교가뿐 아니라, 일본인 교장 사진 전시 등 일제 잔재 청산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한 걸 보면, 일본인 교장 사진이 아직 전시돼있는 학교도 있을지 모른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러려면 역사를 제대로 알려줘 교훈으로 삼게 해야 한다.

인하대와 재능대도 친일 음악·문학가가 작곡하거나 작사한 교가를 사용하고 있다. 인하대 교가를 작사·작곡한 현제명은 조선총독부의 지원으로 결성된 조선문예회에 참여해 친일 활동을 한 인물이다. 조선음악협회의 음악회에서 친일 내용의 성악곡 ‘후지산을 바라보며’를 발표하는 등, 그의 친일 행적은 매우 뚜렷하다.

‘인하대 찬가’를 작사한 김성태도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다. 인하사대부고와 정석항공고, 인하대는 한진그룹 계열 정석인하학원이 운영하는 학교라는 공통점이 있다.

재능대 교가를 작사한 미당 서정주는 다쓰시로 시즈오로 창씨개명을 하고 태평양전쟁을 찬양한 친일파다. 그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705인에 포함됐다. 이러한 인물들이 만든 교가를 학교의 상징이라고 지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현 학교장 등이 몰랐던 사실일 수 있으나, 그것은 교육자로서 임무를 방기한 것과 같다. 우리 주변과 일상에서 일제 잔재를 없애가는 게 3·1운동 정신 계승을 실천하는 게 아닐까.

5.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범죄자 처벌 관련 참고 자료

- 일본을 변호한 라다비노드 팔의 이상한 판결 <https://brunch.co.kr/@kyou94/63>
-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논란과 의미 https://www.youtube.com/watch?v=uAH_vPpf8SY

6. 이승만 정권 반민족행위처벌법 관련 참고

6-1. 〈KBS 역사저널 그날〉 국민들의 염원 반민특위 2020. 4. 28.

https://www.youtube.com/watch?v=_Af1cgKxGeA

6-2. 반민족 행위 처벌법 (1948.9.22.)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작을 수한 자 또는 일본 제국 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제4조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습작한(작위를 물려받은) 자
2. 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 되었던 자
3. 칙임관 이상의 관리 되었던 자
4. 밀정 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 간부로 활동하였던 자
6.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7. 비행기, 병기 또는 탄약 등 군수 공업을 책임 경영한 자
8. 도, 부의 자문 또는 결의 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로서 일정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적 죄적이 현저한 자
9. 관공리 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10. 일본 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 본부의 수뇌 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11.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기타 각 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
12. 개인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6-3. 〈우리 역사넷〉 친일파 청산의 노력, 실패로 돌아가다.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o500500&code=kc_age_50

1949년 1월 8일부터 검거 활동에 나설 당시 반민특위는 반민족 행위자 7천여 명을 파악해 놓고 있었으나, 실제로 반민특위 공소시효가 만료된 1949년 8월 31일까지 취급한 반민족 행위자는 모두 688명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특별검찰부에 송치된 사람은 599명이었다. 특별검찰부에 송치된 599명 중 실제로 기소된 사람은 절반도 안 되는 293명에 불과했다. 특별검찰부가 기소한 자 가운데 1949년 10월 특별재판부가 해체되기 전에 판결받은 사람은 78명이었으며, 미결인 사람은 215명이었다. 1950년 4월부터 '임시특별부 재판부'가 설치되어 재판이 재개되었지만, 곧 이어 6.25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미결자 중 실제로 판결을 받은 자는 단 1명뿐이었다. 결국 판결을 받은 자 중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불과 10명이었으며, 그밖에 집행유예 9명, 공민권 정지 23명, 무죄 17명, 형 면제 9명, 공소기각 8명 등이었다. 대체로 반민특위 활동 초기에 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일정한 처벌을 받았으나, 반민특위 활동이 위축된 1949년 6월 이후 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거나 공소기각 되었다. 그러나 징역형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도 1951년 2월 14일 「반민족행위처벌법 등 폐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반민법 자체가 소멸되는 과정에서 모두 풀려났다. 이렇게 대한민국 건국 초기 친일파 청산 작업은 실패로 돌아갔다.

7. 대한민국의 과거사 청산 관련 참고

- 한국 사회의 과거사 청산 노력과 과제(친일 청산) <https://m.blog.naver.com/gabeci/222383823133>

- 과거 청산의 의미 <http://www.koreanhistory.org/2349>

8. 프랑스 과거 청산 관련 참고

- 나치 부역자 페탕 원수의 사망,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 <http://qq9447.tistory.com/413>

- <한겨레> 파풍, 무덤까지 따라간 나치 부역 2007.02.21.

<https://v.daum.net/v/20070221174105220?f=o>

- 『과거사 청산, 민주화를 넘어 사회화』 (김영수)에서 발췌

과거사 청산은 역사의 물줄기를 민주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국면에서 제기된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역사적 의제이다. 비록 역사적으로 인지되어있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과 관련된 진실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공인을 받게 하는 과정이다.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문제도 1950년대 초반부터 과거사의 문제를 물어두려 하였지만 68혁명 이후에 프랑스의 대독협력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왔다. 구소련 지역과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패망과 더불어 과거사 청산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과거사 청산은 민주주의로 이행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진실을 복원하여 기억하는 과제,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과제, 그리고 피해자들을 치유하는 과제 등의 차원에서 시도되었다.

-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 (이용우)에서 발췌

한국 사회는 ‘과거사 청산’이란 진통을 겪고 있다. 1995년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이어 2000년에 들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2004년에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동학농민혁명군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끝으로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이르기까지 수 십개의 과거사 관련 법들이 제정되었고 각종 과거사 위원회들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법안의 명칭이 보여주듯이 그만큼 지난 100여 년간의 한국 근현대사가 얼마나 암울했던가를 잘 드러내는 증거라 하겠다. ... 과거청산이 암울했던 역사를 드러내는 것으로만 볼 수 없다. 은폐되고 왜곡된 과거에 대해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것, 나아가 단지 말하는 수준을 넘어 진상을 확실히 규명하고, 잘못을 가리고, 희생자를 애도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잘못된 역사와 기억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 모두는 과거청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만 가능할 것이다.

우리 역사는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해체로 인한 친일 협력자 처벌 무산에서부터 1961년의 5·16쿠데타, 1979~1980년의 신군부 권력 장악에 이르기까지 과거청산의 기회가 계속해서 무산된 역사이기도 했다. 본격적인, 그리고 어느 정도 연속적인 과거청산 작업은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이는 그만큼 그 작업이 지난한 것임을 말해준다. 현재도 과거청산에 반대하는 온갖 논리, 즉 국론을 분열시킨다든가, 경제 문제가 더 중요하든가, 지나간 과거 문제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자든가, 공정성과 형평성이 의심스럽다든가, 모두가 죄인이거나 공범이라든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논리들은 기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반세기 동안 계속 되풀이되어서 너무도 익숙한 얘기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조의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 활력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과거’의 힘이 여전히 강고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 힘은 때로 시간 자체가, 즉 그 기나긴 세월 자체가 실어준 힘이기도 하다. 36년간의 식민통치, 30여 년간의 군부독재, 그리고 반세기가 넘도록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한반도의 냉전구도라는 그 긴 기간들이 과거청산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앞서 열거한 논리가 과거청산을 좀 더 제대로, 지혜롭게 수행하자는 쪽으로 이어져야지 과거청산 작업 자체를 저지하거나 지연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역사에 청산해야 할 과거가 너무 많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청산의 성과가 너무 적다.

우리의 과거사 청산을 논의할 때 특히 일제강점기의 친일파 문제를 얘기할 때 외국 사례로 거의 언제나 거론되는 것이 프랑스의 사례다. 프랑스의 대독협력자 숙청사례는 모범적 사례로 소개되고 언급되었다. ...한국과 프랑스가 처한 역사적 조건의 차이부터 주목해야 할 것이다. 먼저 **지배 및 점령의 성격과 그 기간의 차이**를 얘기할 수 있다. 20세기 초에 일본은 조선을 명백히 ‘식민지’로 지배하고 점령했던 반면, 1940년에 나치 독일은 프랑스를 명목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식민지로 간주하지 않았다. 단지 독일은 영국에 맞선 전쟁에서 프랑스가 자국에 우호적인 중립국 정도로 남기를 원했다. 독일은 적어도 1942년 11월 이전까지는 프랑스 영토 전체를 점령하지도 않았고 남쪽 절반 지역은 프랑스 정부인 ‘비시 정부’가 통치하기까지 했다. 또한 일제는 우리를 36년간이나 지배했지만 나치 독일은 1940년부터 1944년까지 단 4년간만 프랑스를 점령했을 뿐이다.

점령기간이 길면 길수록 협력자의 수가 많아졌을 것이고 ... 다음으로 **우리의 독립운동 세력과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세력 사이의 차이**도 논의할 수 있다. 레지스탕스 운동의 상당한 규모와 활력은 해방 후 대독협력자 숙청을 집행할 주체가 독일강점기에 이미 형성되었음을 말해준다. 끝으로 두 나라가 **해방된 방식과 양상의 차이**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해방이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갑자기 이루어진 반면, 프랑스의 해방은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부터 독일의 무조건 항복에 이르기까지 전투 과정의 산물이었다. 우리의 경우 광복군을 비롯한 무장세력이 전혀 개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방을 맞이한 반면 프랑스의 경우 자국 레지스탕스가 해방 전투에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기여를 했다는 점은 해방 후 두 나라의 판이한 역사 전개를 낳았다. 한쪽은 미군정의 실시와 이후 친일파에 기반을 둔 이승만 정권의 수립을, 다른 한쪽은 드골 임시정부 수립과 그 정부에 의한 대독협력자 숙청을 낳았던 것이다.

하지만 두 나라의 차이가 곧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든가, 프랑스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프랑스가 해방 후 대독협력자 숙청을 벌이기가 우리에게 비해 역사적 조건이 훨씬 유리했고, 우리의 경우 친일부역자 처벌이 훨씬 어려웠음을 말해줄 뿐이다. 두 나라의 사례를 비교할 수 있게 하는 최대의 공통점은 둘 다 해방 후에 점령국에 대한 협력의 문제가 주된 청산 대상으로 떠올랐고 협력자들이 처벌과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는 데 있다.

9. 일제 잔재 청산은 과거의 일? 관련 참고

- 〈오마이 뉴스〉 수요일이면 교사, 학생 오던 곳에 욕설만 가득, 이렇게 된 진짜 이유 2022.7.2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50646&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 〈MBC 뉴스〉 친일파의 호국인가? 국립묘지 안장의 조건 2020.06.06.
<https://www.youtube.com/watch?v=Z4jyrG2fCR4>
- 독일의 반나치법과 역사부정죄 처벌의 도입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ith_bubmusa&logNo=222033693828
- 친일파 청산을 반대하는 10가지 궤변들
<https://www.minjok.or.kr/archives/54971>

10. 경기도 교육청 교표 변경 사례

순	학교명	지역	개교연도	교표 (변경 전)	교표 (변경 후)	향후 교체 계획
1	김포 대명초	김포	1966			2019년 11월 '학생 주도 청산 프로젝트'로 청산 완료
2	양동초	양평	1931			2020년 일제 잔재 토론 활동 추진 이후 청산 완료
3	정남초	화성	1931			- 2018년 논의출발, 2019년 교육과정재구성, 프로젝트수업 : 학생 토론, 학부모 의견, 동문회 의견 수렴, 가치를 담는 로고 구상 인근 수원대 디자인과 학생 협력 수업 통해 교표 확정, 청산 완료

11. <연합뉴스> 광주시, 올해 21개 친일 잔재물에 단죄, 안내문 2020.06.09.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9067600054?input=1179m>

12. 다크투어리즘

- 서울특별시 뉴스 '기억의 터'를 지나 남산 곳곳에 남아 있는 국치의 흔적 2021.03.04.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0720>

- 독일 튀빙겐 시의 '국가사회주의 역사의 길'

<https://www.tuebingen.de/19.html#/16694>

‘튀빙겐 국가사회주의 역사의 길’은 당시 도시의 역사를 공공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결과물로 16개의 표지판이 국가사회주의 시기의 역사적 장소에 세워졌다. 이 표지판은 나치 시대의 정보를 제공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양자의 흔적을 유지하고 전시하는 역할을 한다.

참고 문헌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2019.~2021.)
- 엘리자베스 콜, 『과거사 청산과 역사교육』, 동북아역사재단(2010)
- 이영채·한홍구, 『한일 우익근대사 완전정복』, 창비(2020)
- 이용우,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 역사비평(2008)
- 인천교육청, 「인천 학교 내 일제잔재 및 군사문화 바로알기 조사 결과 보고서」(2020)
- 인천교육청, 「학교 내 일제 잔재 동상 및 조형물 실태 조사 및 교육적 활용방안 모색」(2021)

3.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의 필요성

가. 수업 개요 및 교수-학습 지도안

과목	한국사	단원명	Ⅲ.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Ⅳ. 대한민국의 발전					
성취 기준	[10한사03-01] 1차 세계 대전 전후 세계 정세의 변화를 살펴보고,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과 경제 구조 변화의 특징을 파악한다. [10한사03-05] 일제의 침략 전쟁 이후 식민지 지배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전시 동원 체제로 달라진 민중의 삶을 사례 중심으로 파악한다. [10한사04-02]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과정과 의의를 살펴보고,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한다. [10한사04-04] 4·19 혁명과 그 이후의 정치 변화를 살펴보고, 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과 그 의미를 탐구한다.							
학습 목표	1.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를 시대 배경과 연관지어 비판할 수 있다. 2. 학교 내 일제 잔재 문화와 용어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토의하고 그 과정을 통해 개념을 정립할 수 있다. 3. 일제 잔재청산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를 넘어 더 넓은 범위까지 사고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수업유형	토의, 토론 학습 / PBL							
인천 핵심 역량	☐ 자기관리역량 ☒ 의사소통역량 ☒ 다양성존중역량 ☒ 문제해결역량 ☒ 협력역량							
수업 흐름	<table><tr><td> 탐색과 공감 • 친일 청산의 필요성과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배경 조사 </td><td>⇒</td><td> 문제파악 및 해결방안 도출 • 학교 내 남아있는 일제 잔재에 대해 알아보기 • 해결방안 모색하기 • 인천지역 내 일제잔재 청산으로 범위 확장하기 </td><td>⇒</td><td> 실천과 공유 •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등 실천하고 공유하기 </td></tr></table>			탐색과 공감 • 친일 청산의 필요성과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배경 조사	⇒	문제파악 및 해결방안 도출 • 학교 내 남아있는 일제 잔재에 대해 알아보기 • 해결방안 모색하기 • 인천지역 내 일제잔재 청산으로 범위 확장하기	⇒	실천과 공유 •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등 실천하고 공유하기
탐색과 공감 • 친일 청산의 필요성과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배경 조사	⇒	문제파악 및 해결방안 도출 • 학교 내 남아있는 일제 잔재에 대해 알아보기 • 해결방안 모색하기 • 인천지역 내 일제잔재 청산으로 범위 확장하기	⇒	실천과 공유 •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등 실천하고 공유하기				

교수-학습 지도안[1,2차시 -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배경 (시대별)]

단계	교수·학습 과정	교수·학습 자료
도입 (10분)	▶ 전시학습 확인 - 5·10 총선거를 통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 친일 청산을 위한 노력(반민법, 반민특위 구성) ▶ 독일, 평생 나치 전범 추적 70대 노부부에 '훈장' 수여 (https://www.ytn.co.kr/_ln/0104_201507220539360091) 	자료 1 PPT 자료 자료 2 뉴스 영상

	▶ 나치 부역자 파퓰 전 프랑스 장관 사망...훈장 매장 논란(참고자료에 기사내용 참고)  ⇒ 영상에서 보이는 나치 협력자 청산에 대한 법과 대한민국 반민족 행위 처벌법과 비교 ▶ 학습 목표 안내 학습 목표 1.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를 시대 배경과 연관지어 비판할 수 있다. 2. 과거를 청산하는 방법(망각의 해법/기억의 해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다.	자료 3 뉴스 기사
전개 I (10분)	①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처벌 과정 ▶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처벌과정과 우리나라 친일 청산 과정과의 차이점 찾아보기 - 활동지를 통해 프랑스의 해방과정 시기부터 대한민국과 다른 점 등을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 (예) 프랑스는 연합군이 파리에 들어오기 전에 레지스탕스와 시민군에 의해서 해방, 나치 협력자 처단을 자발적으로 진행 / 드골의 강력한 정의론에 의한 처벌과 숙청으로 인해 나치 협력자들은 지배계층으로 다시 군림하지 못함/ 시민들한테 인지도가 높은 언론가들부터 숙청함으로써 본보기를 세움 등) ▶ 정의냐? 관용이나? 에 대한 자신의 의견 정리하기 - 카뮈와 모디아크의 나치협력자 청산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알아보고, 자신의 생각은 어떠한지에 대해 정리해보기 활동 도움말 1. 프랑스와 우리나라와의 상황을 해방과정부터 차례대로 비교해볼 수 있도록 안내 2. 프랑스 내에서도 나치 협력자 처벌을 두고 이견이 있었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음(대부분은 카뮈의 정의론에 동조하였지만 다른 입장도 존재함을 인지)	자료 4 활동지 1

전개
Ⅱ
(25분)

②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시기별로 나누어 조사

▶ 모둠별로 시기를 나누어 조사

- 미 군정기 시기
- 이승만 정부 시기
- 군사정권 시기 (박정화-전두환-노태우)

 활동 도움말

1. 모둠별로 원하는 시기를 선택. 하나의 주제로 몰릴 경우에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시기별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비뽑기, 사다리 타기, 가위바위보 등)
2. 모둠원별로 역할 구분(자료조사, 자료 꾸미기, 발표 등)
3.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배경에 대해서는 팀원 모두가 다 같이 추론하도록 함
4. 발표의 방식은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구성

▶ 과거사 청산 방법에 대해 설명

- 망각의 해법
- 기억의 해법

 활동 도움말

1. 망각의 해법과 기억의 해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학생들은 어느 입장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도록 함.
2. 다음 시간에 모둠별 발표를 모두 다 듣고 나서 과거청산에 있어서는 망각보다는 기억해야 한다는 점을 에스파냐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망각협정 → 역사기억법’으로 전환된 과정)

정리
(5분)

◎ 친일 청산의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 정리하기

◎ 다음 차시 예고

- 모둠별로 발표 및 질의응답
- 모둠별로 망각의 해법, 기억의 해법에 대한 의견 발표

교수-학습 지도안(3차시-학교 내 일제 잔재 문화와 용어 알아보기)		
단계	교수·학습 과정	교수·학습 자료
도입 (5분)	▶ 전시학습 확인 •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 - 시대별로 구분하여 설명 ▶ 학습 목표 안내 학습 목표 1. 학교 내 일제 잔재 문화와 용어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토의하고 그 과정을 통해 개념을 정립할 수 있다. 2.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이해와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자료 1 PPT 자료 (친일청산 실패와 관련된 자료, 남아 있는 친일잔재)
전개 I (15분)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 문화 ▶ 1960-90년대 학교와 2020년대 학교 문화 비교 - 영화 클래식 : 1968년 배경, 교문지도, 선도부, 체벌, 전체 조회 모습 등 활용(2분 정도) - 드라마 학교4 시즌2 - 1회 앞부분 교문지도, 복장 단속, 경례 모습 등 편집해서 제시(2분 정도) ▶ 모둠별로 영상을 참고하여 활동지의 1, 2번 항목 서술하기(영상 참고 및 인터넷 정보 검색을 통해 알아보기) - 1960-90년대 학교 모습과 2020년대 학교 모습 비교하기 - 학교 내 사라진 일제 잔재 문화 찾아보기 ▶ 모둠별 발표(* 시간 부족시 현재 사라진 문화만 발표) 참고 - 사라진 일제 잔재 학교 문화에 대한 내용 설명(액자형 태극기와 교련과목 등) - 그 외 사라진 일제 잔재 문화 등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발표를 통해서 공유(차렷, 경례 문화 / 단체 아침 조회 / 전체 체조 / 교단 / 국기에 대한 경례/ 주변 등-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 활동 도움말 1. 일제 잔재 문화는 일제 강점기 시기만이 아닌, 그 뒤 군사독재 시기에도 이어져 왔음을 인식. 서열이나 위계 질서, 복종, 충성, 애국 등을 강조하는 학교 내 군사문화 분위기도 일본 군국주의의 잔재였음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함. 2. 학교도 일제 잔재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변화되고 있다는 점 안내, 학생들 스스로의 변화와 활동도 중요하다는 점 강조	자료 2 관련 영상 소개 영화 클래식 (1시간3분-5분/ 1시간 22분) (드라마 학교 시즌2 1회) 자료 3 활동지 2

전개
Ⅱ
(20분)

② 학교 내 일본 잔재 문화와 대안에 대해 토의

▶ 일제 잔재 문화와 그에 대한 대안 토의하기(모둠별 논의)

- 학교 내 남아있는 일본 잔재 문화 알아보기(용어 포함)
- 일제 잔재 문화를 청산하기 위한 대안
- 일제 잔재 문화 청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

 활동 도움말

1. 일제 잔재 문화를 찾아보고, 찾은 것들이 일제 잔재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모둠별로 자유롭게 논의하면서 일제 잔재 문화에 대해 모둠별로 개념을 정립해나가기(일제 시대에 시작된 것들은 다 일제 잔재인 것인가? 일상생활 속에서 외래어는 많이 쓰는데 일본식 용어는 무엇인 문제인가? 등에 대한 논의도 나올 수 있음)
2. 일제 잔재 용어의 대안책에 대해서도 하나로 통일할 것이 아니라 학생별로 나온 의견들을 다 같이 공유하고 발표하는 것도 좋음. 하나의 결과를 지향할 필요는 없음
3.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은 본인들이 정말로 실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해보기

정리
(10분)

◎ 모둠별로 작성한 내용 발표하기

- 각 모둠에서 진행한 활동 결과물 공유하기
- 각 학급 홈페이지나 클래스에 결과물 올리기

 활동 도움말

- 하나의 용어에 대해 대안이 여러 개가 나왔다면 모든 대안들을 다 같이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
- 모둠 내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은 학급 전체와 토의해 봐도 좋을 듯(다수결 등 제안)

◎ 다음 차시 안내

- 인천 지역 내 남아있는 일제 잔재는 무엇이 있고, 잔재 청산을 위한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

교수-학습 지도안(4차시-일제 잔재 조형물의 처리방안 논의)		
단계	교수·학습 과정	교수·학습 자료
도입 (5분)	▶ 전시학습 확인 - 학교 내 남아있는 친일 잔재(용어 및 문화) -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실천방안 ▶ 학습 목표 안내 학습 목표 1. 일제 잔재 조형물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 2. 건의문을 작성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 실생활과 연관 된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	자료 1 PPT 자료 (일제잔재용어나 문화)
전개 I (15분)	① 박제순 공덕비와 새로 설치된 단죄비 소개하기 ▶ 공주지역의 일제 잔재 청산 내용 시청(뉴스영상) - 공덕비 포장 못하게..(https://tv.naver.com/v/16112003) ▶ 인천 향교에 설치되어 있는 박제순 공덕비와 단죄비 소개 - 2020년 박제순 공덕비는 높히고, 단죄비 설치 참고  2020년 인천시는 미추홀구 인천 향교 앞 역대 인천부사 비석군에 인천부사를 지낸 ‘을사오적’ 박제순 공덕비를 높혀 놓고, 그 옆에 ‘단죄문’을 설치한 뒤 역사의 교훈으로 삼음 <공덕비 내용 : ‘행부사박공제순영세불망비(行府使朴公齊純永世不忘碑) - 인천 부사 박제순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 참고 공주에 있는 박제순 거사비 내용 : 복된 별이 비치어 공이 은혜를 베풀었다. 비적(동학농민군)으로부터 백성을 구하여 편안하게 보살폈고 조를 내고 말을 보내와 부서진 이인역(공주)을 다시 복원했다. 이에 그 덕을 칭송하는 비를 세워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한다. ▶ 인물조사 - 모듈별로 박제순의 친일행적 조사, 정리	자료 2 관련 뉴스 영상 소개 (SBS 뉴스, 2020. 10. 7.) 자료 3 활동지 3

	활동 도움말 단순히 공덕비의 내용만 보면 업적을 세운 위인이라고 오해하기 넘어가기 쉽지만, 일본군과 연합해 공주에서 동학농민운동군을 진압한 진상이나, 그의 또 다른 활동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역사에는 기록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해석이 포함된다는 것을 인지한다.	
전개 Ⅱ (20분)	② 일제 잔재 조형물 청산 관련 건의하기 ▶ 박제순 공덕비 처리 방안에 대해서 건의하기 - 2005년 공덕비가 철거된 이후로 향교 돌담 아래 방치 - 2019년 3.1운동 100년을 기념하며 인천시에서 박제순 공덕비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 → 처리 방안에 대한 건의문 작성하기(모둠별로 논의) 활동 도움말 1. 다른 지역의 건축물이나 조형물의 사례 참고(철거 / 단죄문이나 죄상문 설치 / 박물관에 이관 / 밟고 다니게 하기) 2. 일제 잔재 청산의 의미나 필요성을 살릴 수 있는 건의안 작성 3. 건의문 작성 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제시(단죄문 문구나 박물관 안내문 문구 작성, 단죄문이나 안내문의 디자인 등) 4. 준비물: 보드판이나 색지(도화지), 사인펜, 색연필, 매직 등	
정리 (10분)	◎ 모둠별로 작성한 건의문 발표하기 - 각 모둠에서 진행한 활동 결과물 공유하기 - 각 학급 홈페이지나 클래스에 결과물 올리기 활동 도움말 다른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문이나 그림, 디자인들을 작성해서 같이 발표하면 좋을 듯 ◎ 다음 차시 예고 - 모둠별로 일제 잔재청산과 관련하여 실천한 내용들 공유하고 의견 교환하기	

나. 수업 활동지

활동지 1	일제 잔재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배경	()학년 ()반 ()번 이름 ()
-------	---------------------------------	---------------------------

※ 프랑스의 나치 협력 민족반역자 숙청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모둠별 활동을 해보세요.

■ 파리해방과 나치협력 민족반역자 숙청

1944년 6월 6일 영·미·불 연합군은 프랑스 노르망디에 성공적으로 상륙한 후 수도 파리를 향해 진격했다. 프랑스를 점령한 나치 독일 군대는 동쪽 독일영토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1944년 8월 19일 수도 파리의 레지스탕스는 시민에게 총 쏘기하라는 비라를 거리에 뿌렸다. 파리의 레지스탕스와 시민봉기군은 연합군이 입성하기 전인 8월 25일 독일 점령군 사령관 폰 콜티츠 장군으로부터 항복을 받았다. 드골은 임시정부의 각료들과 모든 저항단체 대표들에게 나치협력자라는 민족반역자에 대한 숙청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성원하였다. 나치협력 민족반역자를 응징하기 위한 드골의 기본 도구는 '정의의 법정'이었다. 프랑스 본토 저항단체와 마찬가지로 임시정부가 준비한 최우선 과제는 다른 아닌 나치협력 민족반역자의 숙청이며, 해방 지역에서 무자비한 보복과 일부 지역의 인민재판에 의한 총살집행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정의의 법정'을 통해 응징하였다.

■ 나치협력 민족반역자들에 대한 재판

드골이 주도하는 나치협력자 대숙청은 민족을 배반한 '비천한 것들'을 모두 지배 세력에서 뿌리 뽑았고 악질적이며 광적인 나치협력자들을 사형과 무기강제노동형에 처함으로써 다시는 지배 세력으로 군림할 수 없도록 영원히 매장해버리는 데 성공한 본보기가 되었다.

파리의 숙청재판정에 가장 먼저 끌려나온 피고들은 널리 알려진 나치협력 언론인들이었다. 드골은 전쟁회고록에서 '언론인은 도덕의 상징이기 때문에 첫 심판에 올려 가차없이 처단했다.'고 기록되어있다. 변호사들조차도 이들 언론인들을 '나치협력 선전원'이라고 부를 정도로 나치 독일 점령기간에 나치에게 협력했던 그들을 향해 드골은 정의의 심판을 통해 숙청의 칼을 빼 든 것이다. 나치협력 부역자 처단을 주도했던 드골은 "이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프랑스를 배신하는 프랑스인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 정의냐? 관용이나? (문호 카뮈와 모리아의 재판 대논쟁)

- 카뮈의 정의론: 누가 감히 용서를 말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칼은 칼에 의해서만 이길 수 있고 무기를 잡아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이다. 감히 누가 이 진리를 망각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내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증오가 아니라 기억을 기초로 하는 정의이다.
- 모리아의 관용론: 적이 우리에게 행한 짓을 우리는 하지 말자. 적보다는 고양된 도덕성을 가지고 우위에 있어야 한다. 심판하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에게는 과오를 범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며, 우리 모두가 이것을 인정하자.
- 카뮈 : 나치 협력은 과오가 아니라 범죄일 뿐이다.
- 프랑스 문학신문 :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게 용기를 주는 것과 같은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프랑스 공화국은 절대로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1. 프랑스에서는 정의냐? 관용이나? 라며 민족반역자 처벌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 우리나라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써보세요.

2. 모듈별 활동

[] 모듈				
주제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			
시기	미 군정시기 / 이승만 정부 시기 / 군사 정권 시기			
모둠원 이름 및 역할	이름	역할	이름	역할
	이름	역할	이름	역할
주제와 관련된 사건들	▷ 미 군정시기 • 조선인민공화국(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서 변화)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음. • 조선총독부 행정과 치안체제를 그대로 이용, 오히려 부일 반민적행위자들을 보호 • 미군정 하의 입법기관인 남조선 과도입법위원의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간상배에 대한 특별법' 제정, 통과시켰으나, 미군정이 동의하지 않아서 공포되지 못함. ▷ 이승만 정부 시기 • 반민족행위 처벌법 제정에 이승만의 반대 의사. • 반민족행위 특별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담화문 발표(지금은 반공이 우선이다.) • 국회프락치 사건 • 경찰 간부에 의한 반민특위 사무소 습격사건 • 반민족행위 처벌법 개정 ▷ 군사정권시기 • 5·16 군사정변 : 군인들이 정치권 장악 • 반공을 강화하면서 군대 위주의 위계나 서열을 강조, 학교 내 군대식 조직이나 훈련(교련수업) 다시 도입 • 일본의 교육척어, 군인칙유를 본뜬 국민교육헌장이나 국기에 대한 경례 등 일제시대 충성과 복종을 강조하던 모습 다시 도입			
청산되지 못한 이유 (시대적 배경과 연관)	- 당시 사건들과 연관지어서 추론한 내용들을 정리			
발표 형식 및 구조화	- 보고서 발표 - 그림 등을 통한 도식화 - 역할극이나 뉴스 진행 형식 - 프리젠테이션 활용			
과거사 청산의 방법	기억의 해법 / 망각의 해법			
기억이냐? 망각이냐? (조원들 의견 종합하여 발표)	- 하나로 굳이 종합하지 않고, 전반적인 의견들을 다 이야기하면 됨			

활동지 2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 문화

()학년 ()반 ()번
이름 ()

1. 영상 속의 예전 학교생활과 현재의 학교생활을 비교해보세요.

〈참고영상 : 영화 클래식 - 1968년 배경 / 드라마 학교 시즌2 1화 - 1990년대 말 배경〉



〈선도부〉



〈체벌〉



〈전체 조회〉



〈아침 복장검사〉



〈두발검사〉



〈가방검사〉

1960년대-1990년대	2020년대

2. 1960년-1990년대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사라진 일제 잔재 문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1번 내용 참고, 인터넷 정보 검색)

〈참고자료〉 사라진 일제 잔재 문화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료를 통해 알아보세요.



액자형 국기 틀은 일본 조선 총독부가 민족말살과 천황에 대한 충성을 이 끌어내기 위해 강요했던 일장기 게시 방법이다.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 해 교육인적자원부 등 정부 부처는 2002년 행정부 장·차관실과 지방자 치단체장, 일선 학교 등의 태극기를 족자형 태극기로 교체하기로 했다. (사진 출처: “액자형” 태극기 → “족자형” 국기 틀로, 세계일보. 2007. 8.25.)



1940년대 일제 군국주의의 영향으로 자연스레 “학교의 병영화”가 이뤄 졌다. ‘병영화’는 통제와 위계, 획일 등의 폐단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는 해방 이후 분단 상황에서 안보와 연결되는 국방 등의 문제로 교실에까지 이어져서 교련이라는 과목으로 이어지게 된다. 점차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2011년 친일 잔재였던 교련과목은 완전히 사라졌다.

3. 학교 내 남아있는 일제 잔재 문화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제 잔재 문화가 남아있다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세요.

	개선 전	대안
일제 잔재 문화 (일제잔재용어포함) * 용어는 학교 내에 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까 지 확대 적용 가능	예> 차렷, 경례 예> 수학여행 예> 시마이 예> 신빙 예> 잔반 예> 반장	예> 자유로운 인사, 학급 내에서 문구 정하기 등 예> 문화체험, 현장체험 등으로 변경 예> 마무리, 끝냄 예> 새것 예> 남은 음식 예> 학급대표

- ▶ 일제 잔재 문화를 청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모둠에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뽑아보고, 실천의지를 다짐해보세요.

예시>

1. 학교 홈페이지에 ‘역사와 기억’이라는 메뉴를 만들어 인천 내 일제 잔재 문화에 대해 알린다.
2. 동아리를 만들어 전시회나 캠페인 같은 활동을 벌인다.
3. 학급회의 시간에 주기적으로 일제 잔재 청산 관련 회의를 열고 결정 사항을 실천한다.
4. SNS를 활용하여 인천 내 일제 잔재 흔적에 대해 알리고 개선하고자 노력한다.
5. 전단지, 포스터 등을 만들어 게시한다.
6. 여러 시민단체나 인천시청에 청원서나 편지를 써서 개선을 요구한다.
7.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관련 공모전을 실시한다.(UCC나 포스터 등)

활동지 3

일제 잔재 조형물 처리 방안

()학년 ()반 ()번
이름 ()

- 자료를 읽고 모둠활동을 해보자.

박제순 '공덕비' 처리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다.

박제순은 1905년 우리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에 서명한 대한제국 관료 5명에 포함, 이완용과 함께 을사오적이라 불리는 매국노다. 박제순은 이에 앞서 1888년 5월부터 1890년 9월까지 2년 4개월 동안 지금의 인천시장격인 인천부사를 지냈다. 당시 도호부 관아가 있던 문학동 주민들은 다른 부사들처럼 관행대로 박제순의 공덕비를 세웠고, 역대 부사들의 공덕비는 1970년대 인천 향교 앞에 모여 비석군을 이루었다.

하지만 2005년 친일파의 공덕비를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이어졌고, 인천시는 박제순 공덕비를 철거했다. 독립운동 100주년이었던 2019년 도호부 관아 건물 담장 아래 방치된 박제순 공덕비 처리 문제가 다시 불거졌고, 인천시는 여러 의견을 듣기 위해서 건의문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2005년 철거된 공덕비〉



〈인천도호부 청사 담장 밑 방치〉

1. 박제순은 누구인가? (생애 전체가 아니라 주요 사건들 위주로 구성)

2. 모둠별로 박제순 공덕비 처리 방안에 대한 건의문을 작성해보자.

건의하는 사람(단체)	
건의 받는 단체	인천시청, 미추홀구청
문제상황	
해결방안과 이유	예시> 1. 철거 2. 부숴버린다. 3. 밟고 다니게 한다. 4. 원래 자리로 옮겨놓는다. 5. 원래 자리로 옮기고 단죄문, 죄상문, 안내문 등을 같이 놓는다. 6. 박물관이나 전시관으로 옮긴다.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자료 (예) 단죄문 내용, 안내문 내용, 다른 지역의 사례 등)	

다. 교사 참고 자료

나치 부역자 파퐁 전 프랑스 장관 사망...훈장 매장 논란

한겨레. 2007. 2.22

- 유대인 이송 전력 숨기고 변절 거듭 '경력세탁'

■ '나치 협력자'가 훈장과 함께 묻힐 자격이 있는가?

17일(현지시각) 숨진 프랑스의 나치 부역자 모리스 파퐁(96)의 무덤에 그의 나치 협력 전력이 밝혀지기 전에 받은 훈장을 함께 묻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논란은 '변절'로 점철된 그의 삶을 되짚어 보게 하고 있다. 파퐁의 나치 전력이 밝혀진 것은 그가 정부의 예산 장관이었던 1981년이였다. 아우슈비츠에서 아버지를 잃은 한 학자가 프랑스 남부 보르도 지방정부 창고에서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한 먼지 쌓인 서류를 발견했다. 서류에는 어린이 223명 등 유대인 1690명을 포로수용소로 보낸 파퐁의 서명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2차대전 당시 프랑스에서는 유대인 7만4천여명이 수용소로 이송돼 극소수만 살아남았다. 소르본대학 출신의 엘리트인 파퐁은 2차대전 때인 1940년,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자 나치와 손을 잡았다. 그는 나치의 꼭두각시 정부인 비시 정부에서 1942~44년 프랑스 남부 도시 보르도에서 시정의 2인자로 일했다. 그는 유대인을 포로수용소로 보내는 업무를 맡았고, "기꺼이 협력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처음에는 외국인 유대인, 그 다음에는 프랑스 유대인을 잡아들였다.



■ 나치 부역자에서 관료로 = 독일의 패전이 눈에 보이자 그는 변신했다. 프랑스 저항 세력인 레지스탕스에 나치의 활동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파퐁은 전후 철저하게 진행된 나치 부역자 척결에서 살아남았다. 보신에 성공한 그는 종전 뒤 샤를 드골 정부 시절 랭드 지방 지사로 임명됐다. 이후 승진을 거듭했고, 58~66년 파리 경찰국장을 지냈다. 62년에는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를 받았다. 78년에는 예산 장관까지 올랐다. 하지만 그는 결국 과거가 드러나면서 97년 87살의 나이에 법정에 섰고, 98년 '반인도주의 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95년 처음으로 유대인 학살에 대한 프랑스의 책임을 인정한 뒤였다. 나치 독일에 저항한 레지스탕스를 자부하는 프랑스에서 비시 정부에 부역한 관료의 뒤늦은 처벌 논란은 프랑스의 아픈 기억을 들쭉셨다. 재판정에 선 그는 "나는 위에서 시키는 일을 했고, 나치가 무슨 일을 벌이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소에 앞서 99년 스위스로 도망하기도 했다. 2002년 9월 질환으로 석방되기까지 99년 10월부터 약 3년간을 감옥에서 짧게나마 역사의 찻값을 치렀다.

■ 끝나지 않은 논란 = 파퐁 쪽은 "반드시 훈장과 함께 안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다"고 비판받는 그가 훈장까지 안고 무덤에 가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집권 대중운동연합의 베르나르 아쿠아에 의원은 "시라크 대통령이 개입해서, 법이 존경받고 훈장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유대인학생연맹은 "그를 범죄자이자 프랑스의 유대인 학살 책임의 상징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아에프페>(AFP) 통신에 밝혔다. <인디펜던트>는 "파퐁은 야심적인 관료가 얼마나 쉽게 야만적 정권의 하수인이 되는지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 예시 > 과거 청산의 방법에 대한 생각

망각의 해법	기억의 해법
- 개인, 집단 모두 부끄럽거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지나치게 과거사에 매몰되어 오늘의 중요한 과제를 놓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위해 과거사는 적절하게 묻어 두고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 잘못된 저지른 가해자라 하더라도 꼭 처단이나 처벌을 해야만 하고, 그 역사를 계속 기억해야 하는 것만이 답이 아닐 수 있다.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관용 정신을 발휘하여 용서하고 묻어둘 수도 있다고 본다.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정의·진실만을 쫓지 않고, 질서·안정을 위해 망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 불행했던 과거사를 다만 가해자의 입장에서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화해란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에서 비롯되어 피해자의 관용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과거사를 기억하는 것은 처벌이나 비난보다는 진정한 화해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맺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계속 교육하고 기억해야 한다. 치욕스러운 역사더라도 제대로 바라보고 인정해야 다시금 되풀이 되지 않는다. - 나와는 상관없는 과거의 사건일지라도 그 역사적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그냥 덮어져 버린다면, 그 사건뿐만이 아닌 다른 사건들도 불합리하게 덮어져 버릴 확률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런 일들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합리와 부조리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나의 문제로 돌아온다고 생각한다.

※ 참고 : 망각의 해법과 기억의 해법 - 에스파냐의 망각협정

망각에서 기억으로.... 침묵에서 청산으로....

한겨레, 2013. 10. 4

- 독재자 프랑코 사망 이후 기억 아닌 망각에 합의한 스페인 정치인들 칠레 피노체트 사건 계기로 2007년 역사기억법 제정, 정의를 세우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조지 오웰의 말이다. 민주주의가 흔들거리면, 언제나 독재세력은 과거를 장악하려고 한다. 특정 세력이 특정한 목적으로 기억을 독점할 수 있을까?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국가에서, 기억의 정치는 다양하다. 독재자 프랑코의 사망 이후, 스페인의 좌우 정치세력은 기억이 아니라 망각을 선택했다. 과거를 묻지 말자는 망각협정에 좌우 정치세력이 합의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망각에서 기억으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었을까?

- 모두의 사면, 모든 것의 망각

망각협정은 좌우 정치세력의 타협이다. 민주화 이행기의 산물이기도 하다. 스페인에서 1975년 11월 독재자 프랑코가 죽고, 1982년 사회노동당이 집권할 때까지를 우리는 '민주주의 이행기'라고 부른다. 스페인의 민주화는 성공한 모델이다. 민주적 선거가 자리를 잡았고, 민주주의 제도가 뿌리를 내렸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온건우파와 온건좌파의 협력 정치 때문이다. 온건우파는 바로 프랑코 체제 내의 개혁세력이다. 후안 카를로스 국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프랑코가 지명한 총리를 해임하고, 온건한 정치인 수아레스를 대신 임명했다. 수아레스 총리는 공산당을 합법화하고, 야당 세력과 타협하면서 민주화 이행 과정을 관리했다. 1977년 총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노·사·정 협약인 몬클로아 협약을 체결했다.

민주화의 문턱에서, 좌우 협력의 정치에서, 역사가 문제였다. 프랑코 체제가 남긴 일그러진 인권침해의 역사 말이다. 1936년 7월에서 1939년 4월까지 스페인은 내전을 치렀다. 모든 이념의 전쟁터라고 불리는 내전은 바로 프랑코의 쿠데타로 시작됐다. 내전의 결과는 참혹했다. 사망자만 30만 명이다. 해외 추방자와 망명자도 30만 명 이상이다. 그리고 내전에서 승리한 프랑코는 철저하게 보복했다. '빨갱이 소탕'이라는 미명 아래, 내전 이후 10년 동안 5만 명 이상을 처형했다. 유례를 찾기 힘든 폭력의 정치다.

이 아픈 상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화의 길에서 과거 청산은 미래를 향한 출발이다. 그러나 스페인은 달랐다. 진실과 정의의 회복도, 청산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온건우파와 온건좌파는 ‘과거를 잊고, 미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그래서 정의와 진실을 그냥 덮고, 화해하기로 했다. 침묵협정 혹은 망각협정(Pacto del Olvido)이라고 부르는 구두계약이다. 계약의 법적 형식은 1977년의 사면법으로 구체화됐다. 내전과 내전 이후 모든 정치범죄를 사면한다는 내용이다. 내전의 패자, 즉 공화주의자들에게도 연금을 지급하고, 해고자들의 복직을 허용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다. 그러나 사면 대상에 군·공무원·경찰 등 프랑코 체제를 유지해온 모든 공권력의 범죄행위도 포함시켰다.

■ 망각에서 기억으로 전환 계기

바스크 민족당 대표의 말처럼, ‘모두의 사면, 그리고 모든 것의 망각’을 의미했다. 프랑코의 불법적 쿠데타를 비난하지도 않고,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사법적 책임도 묻지 않았다. 프랑코 집권 기간에 처형되고, 감옥에서 질병과 아사로 사망하고, 강제수용소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억울한 원혼을 그냥 덮었다.

어떻게 망각에 합의했을까? 좌도 우도 ‘오래된 상처를 다시 드러내는 고통’을 피하고 싶었다. 우파야 자신들이 한 일이 있기에 ‘화해를 위한 망각’을 주장했다. 그런데 좌파는 왜 진실과 정의를 포기했을까? 우익 쿠데타의 두려움이 컸다. 프랑코는 죽었지만, 프랑코의 국가는 그대로 존재했다. 좌파는 정의·자유·진실이 아니라 평화·질서·안정을 선택했다. 내전에 대한 책임감도 작용했다. 백색테러가 더 많았지만, 적색테러도 부정할 수 없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시 전쟁은 안 된다’에 합의했다. 1981년 일부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시도했을 때, 망각협정의 현명함에 안도했다. 1979년 이후 좌파가 집권한 일부 지방정부에서 망각협정을 깨고, 공화파의 집단 매장지를 발굴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쿠데타 시도 이후, 전국적으로 발굴이 일제히 중단됐다.

1982년부터 1996년까지 사회노동당 정부를 이끈 곤살레스 총리는 “망각이 내전의 승자와 패자의 화해를 가능케 했다”고 회고했다. 역사에 대한 침묵과 망각의 시간은 오래 유지됐다. 1986년 스페인 내전 50주년이 되는 해, 총리는 “내전은 역사일 뿐이다. 더 이상 현실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그것이 2004년까지 사회노동당의 공식 입장이었다.

스페인 국민 다수는 망각협정에 동조했다. 프랑코 사망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61%가 ‘모두의 사면’을 찬성했다. 왜 그랬을까? 대중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아픈 역사가 재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국민 다수의 일상의 삶을 프랑코 체제와 분리하기 어렵다. 어렸을 때부터 각종 파시스트 단체에 소속되고 선동에 동원된 기억이 있으며, 일부는 이웃이나 친척 혹은 가족을 고발한 경험도 있다. 부끄러운 과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망각은 정치 영역, 언론 영역, 그리고 일상의 저녁 식탁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됐다.

내전에 대한 집단기억도 작용했다. 프랑코 정권은 내전의 기억을 지배했고, 그것을 정권의 정당성 기반으로 삼았다. 쿠데타는 스페인을 무질서로부터 구원하는 구국의 결단이고, 민족 반역자 공화파에 대항하기 위한 애국 전쟁으로 규정됐다. 대중은 반복적인 역사 왜곡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1970년대라는 시대적 특성도 작용했다. 냉전 시기였고, 인권 개념이 보편적 가치로 부상하기 전이었다.

어떻게 망각에서 깨어날 수 있었을까? 바로 1996~98년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 사건이 결정적 계기다. 1996년 스페인 법원은 국외에서 저질러진 스페인 국민에 대한 살해·테러·고문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군부와 칠레의 피노체트를 기소했다. 결석재판이었지만, 희생자 가족들이 참여해 법정에서 증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그리고 1998년 피노체트가 병 치료를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했을 때, 스페인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영국 경찰은 이를 근거로 피노체트를 체포했다.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국제적 기소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때부터 약 1년간 피노체트의 재판 관할권을 두고 영국·칠레·스페인이 떠들썩했다. 영국은 그를 스페인이 아닌 칠레로 돌려보냈다. 피노체트는 휠체어에 실려 숨 넘어갈 듯 칠레로 돌아갔지만, 도착하자마자 벌떡 일어나 마중 나온 군부의 친구들과 악수했다.

■ 봇물처럼 쏟아진 기억투쟁

그러나 피노체트는 스페인 국민을 깨웠다. 소동을 겪으며 망각의 저편에 있던 기억이 돌아왔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피노체트 체포를 찬성했다. 피노체트는 무덤에 누워 있는 프랑코와 동일시됐다. 특히 진보 야당은 집권당인 보수 국민당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더 이상 망각협정은 유지되지 않았다. 기억이 정치의 중심으로 귀환했다.

어떻게 망각에서 기억으로 전환할 수 있었을까? 세대가 달라졌다. 2000년대가 되면서, 달라진 세대는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트라우마가 없는 내전의 손자 세대가 출현한 것이다.

시민사회도 깨어났다. 그중에서도 '역사 기억의 회복을 위한 모임'(ARHM)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모임을 주도한 실바는 2000년 어느 날, 레온 지역 신문에 "프랑코 세력에 의해 총살당한 할아버지의 유골을 찾고 싶다"는 내용의 투고를 했다. 억울하게 죽은 원혼을 달래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이었다. 내전의 희생자들은 죽어서도 차별이 계속됐다. 프랑코 쪽 희생자들은 기념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공화 진영의 희생자들은 이름 모를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된 채 방치됐다.

2000년 스페인 전역에 집단 매장된 주검은 4만 구에서 6만 구로 추정됐다. 할아버지의 유골을 찾아 정식으로 재매장하겠다는 손자·손녀들의 희망이 들불처럼 타올랐다. ARHM이 중요한 단체가 됐다. 급속하게 지방 지부가 설립됐다. 그리고 이 시민단체는 2002년 유엔에 청원을 했다. 스페인 정부가 내전과 독재 기간의 실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권고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유엔이 청원을 받아들였고, 스페인 정부에 권고했다.

망각의 시간 동안 억눌린 기억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기억과 관련된 사회운동이 조직되고 체계화됐다. 보수적인 국민당이 집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투쟁은 보수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2000년을 기점으로 내전에 관한 '기억의 홍수'라고 부를 정도로 영화·소설·다큐멘터리·전시회 등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리고 2004년 다시 사회노동당이 승리했다. 기억 정치가 날개를 달았다. 국민당 정권에 의한 당파정치, 우경화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선거 결과에 반영됐다. 선거를 승리로 이끈 사파테로 총리는 적극적으로 기억을 정치 무대로 불러왔다. 그의 할아버지가 내전 초기 프랑코 세력에 의해 처형됐다. 그는 총리 취임 연설에서 할아버지의 유서를 인용했다.

의회는 2006년을 '역사 기억의 해'로 지정했다. 2007년에는 '역사기억법'이 1년여의 논의와 협상 끝에 마침내 통과됐다. 내전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공공시설에서 프랑코 시대의 상징을 제거하며, 내전과 독재시대의 기록물을 수집·보관하고 공개토록 했다. 가톨릭 교회에 새겨져 있는 프랑코 시대의 구호도 철거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친프랑코 시위를 범죄로 규정했으며, 프랑코주의는 어떤 형태로든 표현이 금지됐다. 프랑코 시대의 잘못된 판결도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회노동당은 국민에게 '정의'를 돌려주었다. 그리고 진실의 문을 열었다.

■ 역사는 반드시 청산된다

가해자는 기억이 아니라 망각을 말한다. 불행했던 과거를 잊고, 미래를 위해 협력하자 한다. 독재세력은 언제나 과거의 기억을 장악해서 현재의 불의를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망각은 영원하지 않다. 정의와 진실을 영원히 막을 수 없다. 스페인의 사례처럼, 망각은 일시적이고, 기억은 반드시 부활한다. 민주주의는 정의와 진실이 뒷받침될 때 지속가능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진실과 화해를, 독일에서 기억과 성찰을, 스페인에서 정의와 기억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기억하지 못하면, 비극은 반복될 뿐이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단지 '청산의 시대'를 기다릴 뿐이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 프랑스와 한국의 민족반역자 숙청(처벌) 결과

▷ 프랑스 : 약 4년간의 점령기간(비시정부 수립)에 나치에 협력한 부역자 숙청
약 2백만명을 내사한 결과 99만명을 체포하여 조사

- 최고재판소 : 비시정부의 국가원수인 페탕과 총리 라발 및 전체 각료와 고위공직자들 및 이들의 공범자를 재판

사형	징역	공민권박탈
18(즉각 집행)	26	14

- 숙청재판소

사형	종신강제노동형	유기강제노동형	징역	공민권박탈
6,763(779명 집행)	2,777	10,434	26,529	3,678

- 시민재판소(경범죄 나치 협력자)

행정처분(공무원 대상)	시민권 박탈
120,000	70,000

▷ 한국 : 반민족행위 처벌법에 의거해 682명을 내사한 결과 408명을 영장 발부, 221명 기소됨. 그 중 재판이 종결된 것은 총 38명

(반민특위 산하) 특별재판소	사형	무기징역	징역	공민권 정지
	1	1	10	18

→ 1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5명은 집행유예, 7명은 형 집행정지로 풀려남

[생활 속, 일제 잔재를 청산하자] 친일파 기념물 보존해야 하나, 철거해야 하나

경기일보 2020.10.18.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010181141978>)

2008년 8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양지초등학교 앞 도로 공사에서 땅속에 묻혀 있는 비석 2개가 발견됐다. 이 비석은 친일파 송병준과 그 아들 송종현의 공덕비였다. 대표적인 친일파는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은 인물들인데 이 두 사람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송병준은 1907년 농상공부 대신으로 있으면서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일본이 고종을 강제 퇴위 시킬 때, 그리고 정미칠조약을 체결할 때 앞장섰기에 '정미 칠적'으로 지탄받은 대표적인 친일파이다. 송병준은 일제로부터 그의 친일 공적을 인정받아 1910년 자작이 됐고, 1920년 백작으로 승작됐다. 송종현은 아버지 송병준이 사망하자 그 작위를 물려받아 백작이 된 대표적인 친일파이다.

양지초등학교는 친일 거두 송병준과 송중헌의 기념비가 발견되자 이 소식을 용인문화원에 전했다. 2008년 9월6일 용인문화원 김장환 사무국장은 역사교사인 김태근과 흥사단 회원 등 이 비석에 관심을 가질만한 이들과 함께 학교로 달려 갔다. 현장에 도착하니 비석은 학교 창고에 보관 중이었다. 이들 일행은 창고 문을 여는 동안 학교 정문 옆에 있는 넓적한 돌덩어리에 걸터앉아 기다렸다. 당시 이 돌은 목재 벤치와 나란히 놓여 있어서 시민들과 학생들이 별생각 없이 휴식을 취하는 석재 벤치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이 앉아 있는 넓적한 돌덩어리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돌의 상단에는 큰 글씨로 ‘팔굉일우(八紘一宇)’ 글자가,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삼위 백작 야전중헌 근서(三位 伯爵 野田鍾憲 謹書)’란 글자가 한자로 새겨져 있었다. 돌의 측면에는 ‘개교 30년 기념 소화 16년 9월1일 동창회 후원회 증정(開校 30年 記念 昭和 16年 9月1日 同窓會 後援會 贈呈)’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야전중헌은 송중헌의 창씨명이다. 이 비는 소화 16년에 세워졌으니 1941년 송중헌이 쓰고 당시 양지초등학교 동창회가 후원해 건립한 팔굉일우비였다. 현장의 용인문화원 일행은 팔굉일우비를 발견하고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해방 후 한국 땅에서 사라진 팔굉일우 비석이 처음 발견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팔굉일우’는 1940년 일본 고노에 후미마로 총리가 시정 연설에서 “황국(일본 제국)의 국시는 팔굉을 일우하는 국가의 정신에 근거한다”고 말한 데서 유래한다. 이 시기는 일제가 동아시아 전역을 침략한데 이어 태평양으로 침략의 마수를 확대할 때이다. ‘팔굉일우’는 ‘전 세계가 하나의 집’이란 뜻으로 일본 제국주의가 그들의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 내건 제국주의 논리이자 구호였다. 일제는 제국주의 침략을 미화하고 홍보하기 위해 1940년 일본은 물론 조선 전역에 팔굉일우비를 건립했다. 팔굉일우비는 일제의 조선 침략과 지배 그리고 조선인 착취를 증언하는 역사적 기념물이다.

해방이 되자 한국인들은 팔굉일우비를 그대로 둘 수 없었을 것이다. 땅에 묻거나, 비석을 옮기고 석재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비석 중 일부는 파손해서 폐기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팔굉일우비는 우리의 시야와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팔굉일우비가 역사에 다시 등장한 것은 근래의 일이다. 2011년 전라남도 목포여자중학교에서 운동장 공사 중 팔굉일우비가 발견됐다. 이 비는 현재 목포근대역사관에 옮겨져 전시되고 있다. 2017년에는 전라남도 해남 마산초등학교에서 고인돌 상판으로 사용되고 있던 팔굉일우비를 학교 행정 직원이 점심시간에 산책 중 우연히 발견했다. 용인과 해남의 비석은 그 긴 시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심코 보고 넘긴 것을 ‘매의 눈’을 가진 이들이 발견한 것이다. 용인의 팔굉일우비는 해방 후 최초로 발견된 팔굉일우비이기에도 역사적 의미가 크다.



〈용인 양지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해방 후 최초로 발견된 팔굉일우비〉

팔굉일우비는 국내에서 3개밖에 없는 유물이고, 송병준과 송종헌은 대표적인 친일파이기에 이 비석들은 역사적 가치가 높다. 독립기념관 개관 이전이라 하더라도 이를 전시,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용인문화원과 용인시민, 그리고 용인시의 과제로 남아 있다.

경기도에는 친일파와 일제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기념물이 다수 남아 있다. 2020년 민족문제연구소 조사보고서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헌과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된 일제 식민지 시대 및 친일 관련 기념물은 188개이다. 현장 조사 결과 현존하는 것이 139개이고, 나머지는 멸실됐거나 현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이 조사는 경기도 전 지역에 대한 전수 조사가 아니기에 추후 세밀한 조사를 하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념물은 친일파의 기념비와 송덕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수룡수리조합기념비와 같은 식민지 지배 기구를 기념하는 비, 수원 권업모범장 잠업시험소 여자잠업강습소를 나타내는 표지석 그리고 일본인 동상 등이다.

이 중 주목해야 할 것이 친일파의 기념물이다. 대표적인 친일파의 기념물로는 2008년 용인에서 발견된 ‘백작 송종헌 영세기념비’이 있다. 군수를 지낸 친일파의 기념비로는 남한산성 남문 비석 군에 남아 있는 ‘강원달 광주군수 영세불망비’, 안성군 대덕면 사무소 앞에 있는 ‘최태현 안성군수 청덕애민송덕비’와 ‘서상준 안성군수 청덕불망비’, 안성군 양성면 양성향교 앞에 있는 ‘나호 안성군수 모성기념비’가 있다.

기념비의 명칭에는 ‘영세’, ‘불망’, ‘기념’과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 기념비를 세운 이들은 비석 주인공의 공을 ‘영원히’, ‘잊지 말고’, ‘기념하자’는 뜻에서 세웠을 것이다. 또 비석의 주인공은 자신의 공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기념’될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 이제 이 비석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영원히 친일파의 친일 행위를 기억하는 역사적 증거물이 됐다. 돌에 새겼으니 바람과 비에 시달린다 해도 오랜 기간 사라지지 않고 친일파의 행위를 증언해 주는 역사적 기념물이 될 것이다.

일제 식민지 시대가 남긴 기념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철거를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 일제 식민지가 남긴 유형의 기념물은 보존해야 한다.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역사, 그래서 우리 기억 속에서 빼버리고 싶은 역사이지만, 그 흔적을 지운다고 그 역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만이 역사적 기념물이 아니다. 민족의 아픈 역사도 우리의 역사이다. 친일파의 기념물, 일제 식민지 시대를 상징하는 기념물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물이다. 이들 기념물을 역사적 기념물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해 친일파의 행적을 기록하고 이들 기념물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관람객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일제 식민지 체제를 청산하고 극복하는 역사적 상징물로 활용해야 한다.

강진갑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장前 경기대 교수

“선정비 주인공은 친일 인사”...광주광역시, 친일 ‘단죄비’ 건립

한겨레. 2019.08.08(<https://www.hani.co.kr/arti/area/honam/904993.html>)



〈광주공원 안 바닥에 눕혀져 있는 윤웅렬·이근호·홍난유의 비석 앞에 세운 단죄비〉

광주광역시에 있는 일제강점기 친일 역사 잔재물 가운데 비석이나 현판 등의 연원을 기록한 ‘단죄비’를 설치한다. 시민들에게 일제강점기 때의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고 바르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8일 광주광역시가 2018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광주광역시 관내엔 65곳의 유·무형 친일 잔재물이 있다. 시는 2015년 친일잔재조사 티에프팀을 통해 비석·누정현판·교가, 군사·통치시설 등 65곳의 친일 잔재물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친일 작곡가가 작곡한 광주 관내 대학과 중·고교 교가 18개를 제외한 47개가 유형 잔재물이다.

47개의 유형 잔재물 중 25개가 국·공유지 안에 있다. 대표적인 것이 광주공원으로 오르는 계단이다. 이 계단엔 ‘일제 식민통치 잔재물인 광주신사 계단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신사는 일본의 신도 신앙에 따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일제강점기 때 이 계단은 신사참배를 하러 올라갔던 광주신사의 역사 잔재물이다.



광주공원엔 일제 귀족 작위를 받은 이근호(1861~1923)를 찬양하는 선정비가 남아 있다. 이근호 집안은 세 형제가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을 정도로 대표적인 친일 집안이다. 공적비가 남아 있는 윤웅렬(1840~1911)은 작위를 받은 직후인 1910년 12월 국채보상금을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에 건네 은사공채를 받았다. 1905년부터 1913년까지 광주군수로 재임한 친일 인사 홍난유의 비도 이 곳에 있다.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 측은 “한말 전남 관찰사로 재직했던 윤웅렬과 이근호가 ‘선정’을 베풀었다는 내용의 비석은 애초 다른 장소에 세워졌으나, 1957년 광주공원 들머리로 옮겨졌다가 1965년 비석을 모으는 과정에서 광주공원 동쪽 언덕 현재의 터로 이전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광주공원 인근 양파정에 걸쳐 있는 정봉현·여규형·남기윤·정윤수 현판, 세하동 습항각에 설치된 신철균·남계룡 현판 등이 친일인사 잔재물이다.

친일 잔재물 중엔 사유지에 있는 유형물도 있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도 포함된 법조인 송화식(1898~1961)의 부도비와 부도탑은 광주 원효사에 있다. 광산구 송정공원 안에 있는 금선사는 일제강점기 때 신사로, 한 때 철거를 둘러싼 논란이 빚어졌던 곳이다.

광주광역시시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공원 계단 앞에서 ‘친일 잔재 청산, 일제 식민통치 잔재물에 대한 단죄비 제막식’을 열었다. 시는 윤웅렬·이근호·홍난유의 선정비를 뽑은 뒤 한 곳으로 모아 눕혀 놓은 뒤 단죄비를 세웠다. 단죄비는 광주공원 계단에도 세워졌다. 단죄비엔 이들의 친일 행각 등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글이 적혀 있다. 양보근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협력국 담당은 “내년까지 국·공유지에 설치된 친일 잔재물 25곳에 대해 우선적으로 단죄비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순흥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장은 “교가 등 무형의 잔재물은 바뀌가고 비석이나 절 등 유형의 잔재물은 역사적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단죄비 형식의 설명문을 제시해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문헌

- 주섭일,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 사회와 연대, 2004
- 오익환 외 2인, 『반민특위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묻는다』, 한길사, 2019
- 한상범, 『우리 사회의 일제 잔재를 본다』, 푸른 세상, 2001

신문 기사, 뉴스

나치 부역자 파퐁 전 프랑스 장관 사망…훈장 매장 논란, 한겨레, 2007. 2.22
독일, 평생 나치 전범 추적 70대 노부부에 ‘훈장’ 수여, YTN, 2015. 7. 22
망각에서 기억으로 침묵에서 기억으로.... 한겨레, 2013, 10, 4

4. 우리 일상 주변의 일제 잔재 인식하기

가. 수업 개요 및 교수-학습 지도안

과목	한국사	단원명	Ⅳ. 대한민국의 발전
성취 기준	[10한사04-02]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과정과 의의를 살펴보고,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한다.		
학습 목표	1. 청산되지 못한 일제 잔재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 2. 일제 잔재 용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용어를 고안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		
수업유형	토의 / 협동 학습 / PBL	총 차시	1차시
인천 핵심 역량	☐ 자기관리역량 ☒ 의사소통역량 ☒ 다양성존중역량 ☒ 문제해결역량 ☒ 협력역량		
수업 흐름	탐색, 공감 - 일상 속 일제 잔재 파악 ⇒ 문제파악 및 해결방안 도출 - 학습자가 아는 일제 잔재 파악 - 모둠별로 친일 잔재 용어의 대안 용어 모색-나눔 활동 하기 ⇒ 실천과 공유 -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한 일제 잔재 청산 사례를 나누고, 오늘의 활동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다짐하기		

교수-학습 지도안		
단계	교수·학습 과정	교수·학습 자료
도입 (5분)	▶ 현재 본인이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일제 잔재의 사례를 파악하고 멘티미터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원이 함께 공유한다. 	자료 1 교사참고자료② 멘티미터프로그램 사용 방법 안내  자료 2 프리젠테이션 자료(1~4) 

▶ 학습 목표 안내

학습 목표

1. 청산되지 못한 일제 잔재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
2.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제 잔재 용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용어를 고안하고 실천할 수 있다.

①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유형화한다.

▶ 일제 잔재의 의미

- 친일 논리의 영향을 받은 유·무형의 유산

▶ 유형의 일제 잔재

- 건축물, 조형물, 친일파 등

▶ 무형의 일제 잔재

- 일상 생활 및 문화 속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
- 놀이 문화, 군사 문화, 법과 제도, 교실/학교 용어, 일상 용어 지역 행정 제도 용어 등에 다수 분포함.

참고

놀이 문화	군사 문화	일상 용어	지역 용어	교실 용어
• 묵찌빠	• 기합	• 우동	• 백마장	• 납기(일)
• 화투놀이		• 모찌		
	• 서열주의		• 일산	• 면학(실)
• 무궁화꽃 이 피었습 니다		• 땡깡		
	• 상명하복	• 다데기	• 분당	• 절취선

활동 도움말

일제 잔재는 유형/무형으로 나뉘며, 특히 무형의 친일 잔재가 일상 생활 속에서 무의식중에 내재화되어 청산되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 하도록 안내한다.

자료 2 프리젠테이션
자료(5)

전개
I
(5분)

② 모둠 별 활동 진행 및 나눔 활동

▶ 제시된 일제 잔재 용어 중 1가지 분류를 모둠별로 선택한다.

- [훈화 / 시건장치] [시정표 / 아침조회] [반장 / 부반장]
[신입생 / 졸업 사정회] [차렷 / 경례] [내교 / 3-3-7박수]

▶ 모둠별로 선정한 일제 잔재 용어의 대안 용어를 개인별-모둠별로 활동지에 작성하고 대안 용어의 의미를 서술한다.

자료 2 프리젠테이션
자료(7)

자료 2 프리젠테이션
자료(8)

전개
II
(30분)

▶ 모둠별로 선정한 일제 잔재 용어와 대미를 발표하며 공유와 나눔을 진행한다.

활동 도움말

1. 사전 모둠 구성을 마친 상황이 전제되어 있음.
2. 모둠 활동 시 개인별, 모둠별 활동지를 적극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진행한다.
3. 활동에 소극적인 개인 또는 모둠을 대상으로 “~하면 어때?” 등의 유화적 지원을 실시한다.

◎ 타 지자체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일제 잔재를 청산한 사례인 ○○초등학교의 교표를 제시하며, 일상 속 일제 잔재 청산의 실천 모습을 공유한다.

◎ 우리 지역 인천에 남아있는 유형의 일제 잔재에 대하여 언급하며, 유형의 일제 잔재의 처리 방안(철거 또는 다크투어 자료 활용)을 차시에 논의할 것임을 소개한다.

◎ 오늘 진행한 일상 속 일제 잔재 용어 청산을 위한 대안 용어 사용 실천 의지를 다지며 수업을 마친다.

활동 도움말

1.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교류한 결과를 토대로 일제 잔재를 올바르게 청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우리 지역 인천의 유형의 일제 잔재를 안내하며, 특정 지역 또는 집단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느끼지 않도록 정제된 용어로 안내한다.

자료 3 수업 활동지



자료 2 프리젠테이션 자료(9)



자료 1 프리젠테이션 자료(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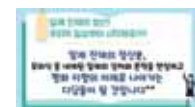


자료 2 프리젠테이션 자료(11)



자료 1 교사참고자료① 우리지역 인천의 교육현장에 잔존하 는 유형의 일제 잔 재 사례

자료 2 프리젠테이션 자료(12)



자료 1 교사 참고 자료- ①우리 지역 인천의 교육 현장에 현존하는 유형의 일제 잔재 사례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적색으로 기재함)

우리 지역 인천의 교육 현장에 현존하는 유형의 일제 잔재 사례

1. 제물포고등학교의 인천중학교 흔적물

제물포고	 〈정초석〉	 〈일본식 석등〉	전신인 인천중학교 건립 당시의 일본인 기부자들의 흔적이 남아있음.
	 ◀ 기부자 요시다의 비문으로 추정되지만, <u>엄밀한 학술조사가 필요함</u>		

- 일제 강점기인 1935년 4월 1일 일본인 학생만 입학하는 인천중학교의 정초석을 비롯해 기부자인 요시다 등이 남긴 표석과 일본식 석물 등이 여러 개 남아 있다.
- 제물포고 본관 기초석에서는 1935년 4월 1일 일본인 부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본관 앞에는 4개 정도의 일본식 석물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 교문을 지나자마자 왼편 둔덕에는 커다란 화강석에 “大望”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표석을 보게 되는데, 인천중학교 설립 당시 일본인 사회의 재력가인 요시다의 기부를 기념하면서 표석을 세운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엄밀한 학술조사가 필요하다.

■ 관련 자료

화평동 큰길에서 공작창 옆을 지나 바다로 흐르고 있는 큰 개천이 개발하기 전에는 큰 갯골이었다. 이 주변은 넓은 갈대밭 황무지였는데 이곳을 수문통이라고 했다. 1930년대에 상공회의소 회주 요시다 히데지로가 인천부와 제휴하여 이 일대를 매립하여 공장 부지를 조성했다. 공작창, 인천제철, 한국기계, 이천전기 등의 전신인 일본 군수공장이 설립되었고, 매립으로 기부한 요시다가 송현국민학교를 창립하는데 진력했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다. 1937년 송현초등학교를 지은 요시다는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그 다음은 아들이 이어받아 철수할 때까지 이사장으로 있었다.



인천송현공립초등학교
1937년 3월에 건립되었다. 1941년 4월 1일 인천송현사립국민학교로 불리다가 1944년 학교 재단이 인천부에 이관되면서 인천송현공립국민학교가 되었다. 동구 화평동 66-21번지 송현초등학교 자리이다.

우리 지역 인천의 교육 현장에 현존하는 유형의 일제 잔재 사례

2.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흔적물

인천여자 상업고			인천신사 흔적 산재
-------------	---	--	------------

- 일본신사가 위치했던 학교이기 때문에 신사의 흔적인 석주와 석등 등 흔적이 남아 있다.

■ 관련 자료

[사진에 비친 인천 100년] 38. 인천여상과 인천신사 (2017.4.12. 기사)

1890년 ‘인천대신궁’ 자리 … 30년 뒤 ‘인천신사’ 신축
그 곳에 1945년 일본인이 ‘인천공립여자상업학교’ 개교
광복 후 요정 ‘팔판루’ 남기고 주요 건물들 헐려



〈동그란 점선은 인천여상의 현재 모습〉



〈일제강점기 일본신사 모습〉

봄이 깃든 교정에 뚝뚝 떨어진 목련 꽃잎들이 따스한 햇살을 즐기고 있다. 바람을 맞은 벚꽃잎들이 나풀나풀 나비처럼 날아다닌다. 인조잔디를 깐 운동장에선 하늘색 체육복을 입은 여고생들이 원반 던지기를 하고 있다. 목련 처럼 환한 여고생들의 웃음이 운동장에 메아리친다.

“사랑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데 한 여고생이 인사를 건네온다.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러나 싫지 않은 인사말이다.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이하 인천여상, 인천시 중구 인종로 146)엔 성큼 봄이 와 있었다.

건물을 빠져나와 교정을 걷는데 실습동 앞에 부도처럼 보이는 ‘석탑’과 돌기둥 모양인 ‘석주’가 서 있다. 그 아래로 석축 같은 주춧돌도 여러 개가 눈에 들어온다.

“정확히는 모르겠구요. 아무튼 일본 관광객들이 오면 여기에 서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더라구요.”

“일제 강점기 일본 신사의 흔적이나”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혜리 행정실장이 대답해준다. 이것들은 모두 1890년 6월 17일 들어선 ‘인천대신궁’의 흔적이다. 인천대신궁은 개항 뒤 몰려든 수천여 일본인들의 정신적 구심점이던 건물로 그들의 조상신을 받는 곳이다. 그로부터 30년 뒤 총독정치가 자리를 잡으며 일제는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 ‘인천신사’였다. 인천사람들에겐 먼 발치에서나 볼 수 있는 ‘기분 나쁜’ 곳이었으나 일본인들의 인천신사는 봄이면 벚꽃놀이로, 가을엔 신사제로 일본인들이 들끓었다.

일본인들은 이 자리를 ‘동공원’이라, 각국공원(자유공원)은 ‘서공원’이라 이름 붙였다. 인천사람들은 그러나 ‘팔팔로’라 불렀다. 인천신사 경내에 야사카로(八坂樓)란 일본요정이 있었는데 1889년 수명루와 명월루란 작은 요정들을 합해 대연회장까지 갖춘 큰 술집이었다. 인천사람들은 이 술집을 한글음역으로 ‘팔판루’로 부르다가 나중에 부르기 쉽게 팔팔로로 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태범 박사는 1996년 3월 펴낸 <인천 한세기>에서 “지금의 교문(현 실습동건물 자리)에 돌로 만든 조그만 홍살문 같은 ‘도리이’(鳥居)가 서 있었고, 들어서면서부터 광장까지엔 잘 다듬은 돌길이 있었다. 길 양쪽과 경계선 밖에는 잡목과 잡초가 우거진 험한 땅이 군데군데 그대로 남아 있었고, 길가와 광장 주변에는 벚나무가 여러 그루 심어져 있었다”고 팔판루를 회상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뒤 일본은 이 곳에서 축하·승전기원·애국일 행사 등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인천 공립여자상업학교가 개교한 때는 건물들이 모두 헐리기 전인 1945년 4월 1일이다. 일본인들이 세운 학교였다.

광복을 맞으며 인천신사의 주요 건물들이 헐렸으나 일부는 남아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욱엽 인천시사편찬위원회 전문위원이 말해줬다. 남아있던 건물은 요정인 ‘팔판루’ 건물이었다. 이나리신사, 코도히라궁, 텐만궁 등 인천신사 경내의 건물은 그러나 1945년 광복 직후 사람들의 손에 부서졌다. 팔판루 건물만 남아 미군의 방첩대(CIC) 본부 사무실로 사용됐다.

출처 : 『인천일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58932>)

자료 출처

- 「인천 학교 내 일제잔재 및 군사문화 바로알기 조사 결과 보고서」, 인천교육청, 2020.
- 「학교 내 일제 잔재 동상 및 조형물 실태 조사 및 교육적 활용방안 모색」, 인천교육청, 2021.

자료 1 교사 참고 자료- ②멘티미터 프로그램 사용 방법 안내

1 멘티미터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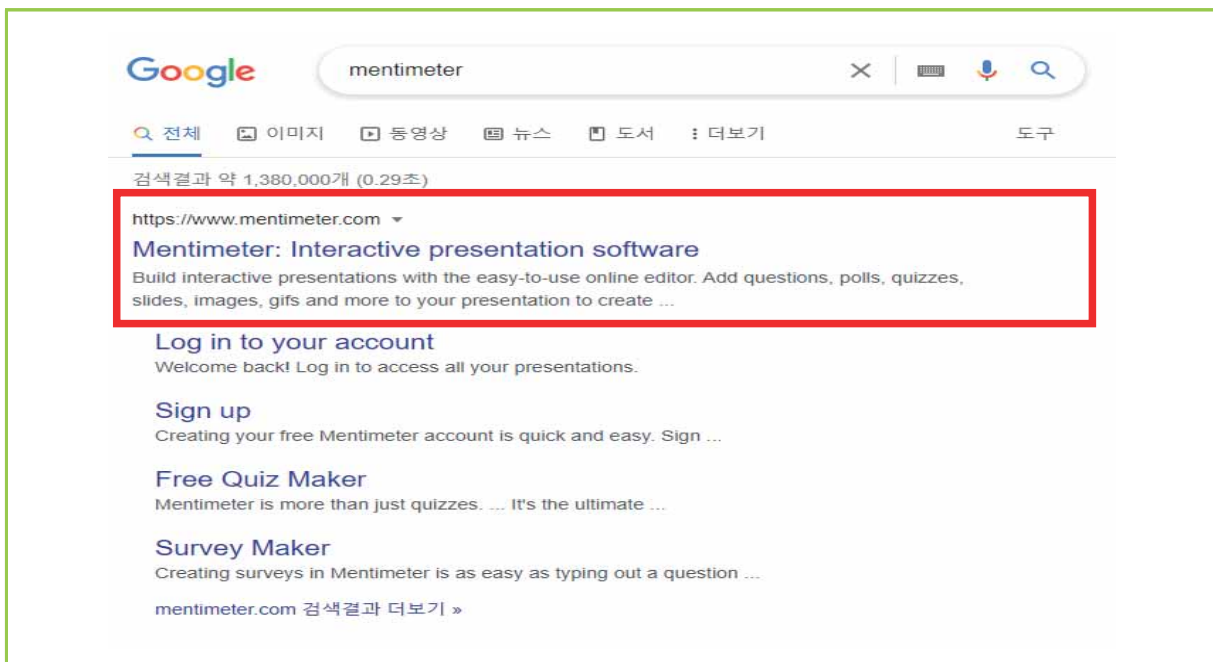
멘티미터는 설문조사에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이 응답된 단어들이 더 크게 보여집니다. 질문을 통해 실제 생각을 묻고 대화로 의견을 공유하는 창의적인 수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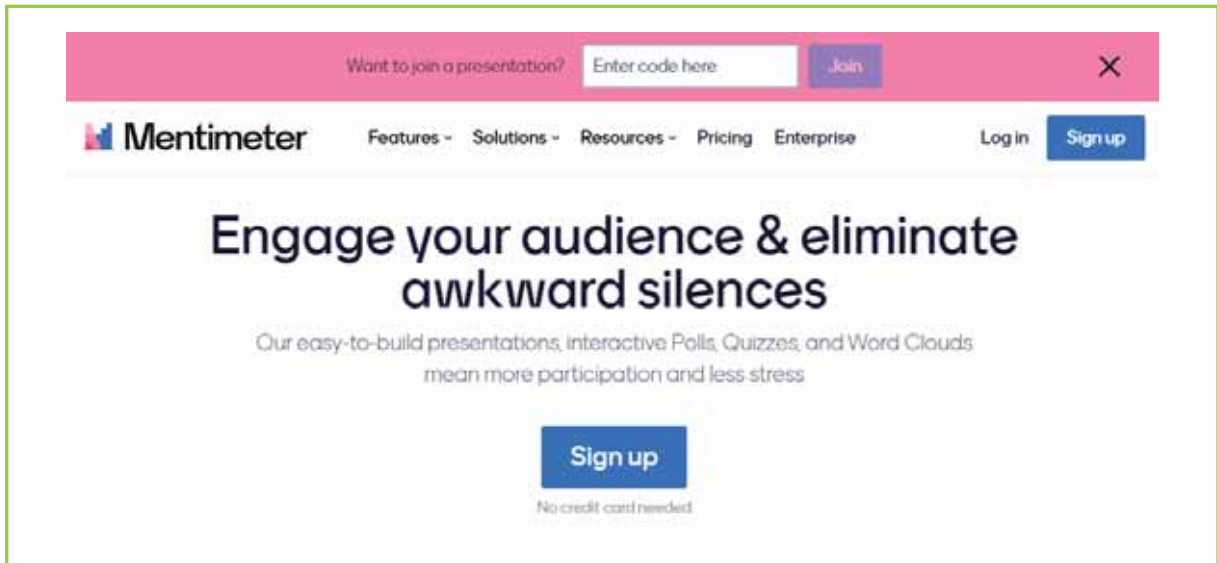
이미지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2 멘티미터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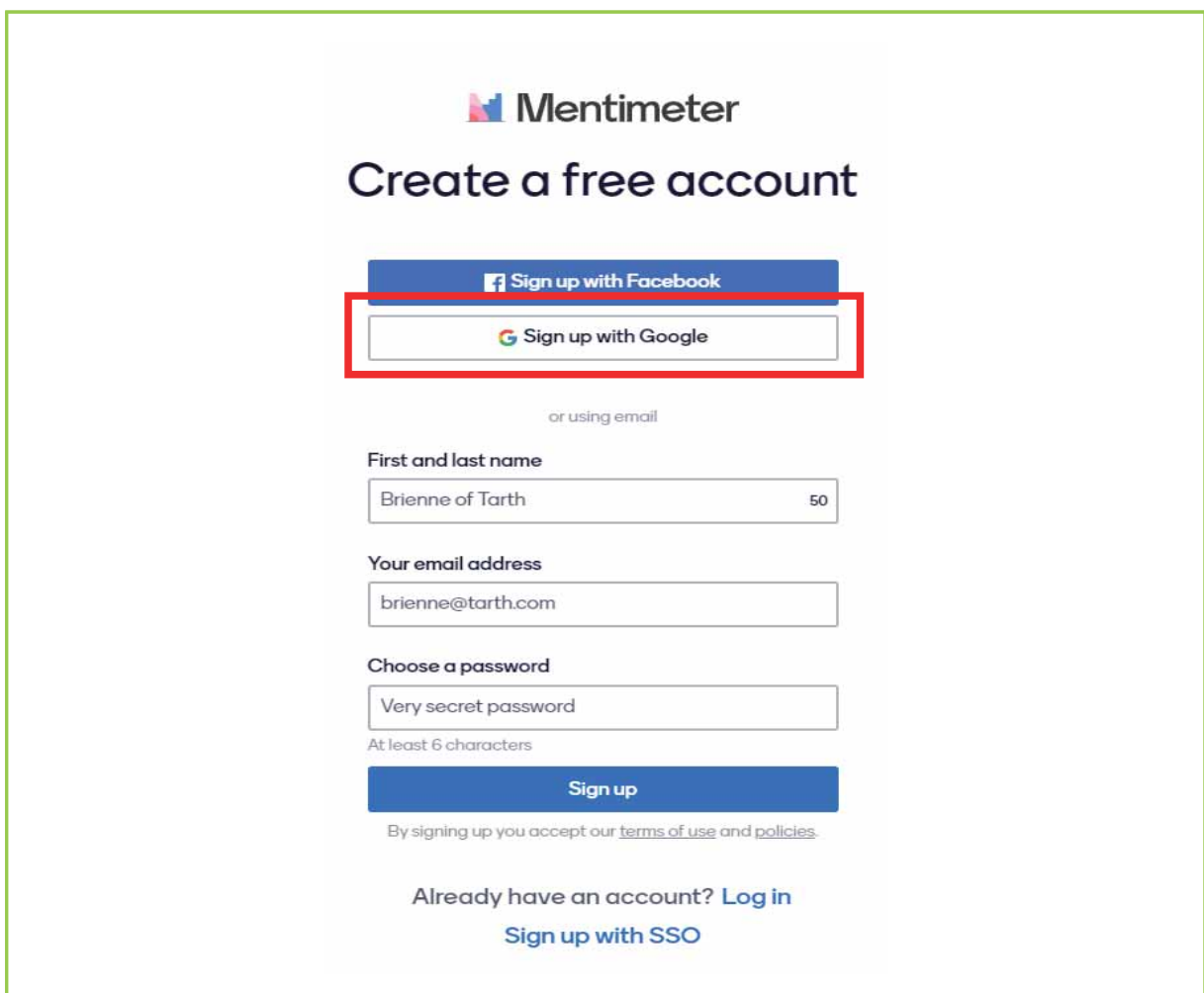
- 1)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를 엽니다.
- 2) 구글 사이트가 열리면 검색창에 멘티미터(mentimeter)를 검색하여 첫 번째 검색 결과를 클릭합니다. 또는 주소창에 'mentimeter.com'을 입력합니다.



3) 멘티미터의 첫화면의 가입하기(Sign up)를 클릭합니다.



4)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Log in with Google을 클릭하여 로그인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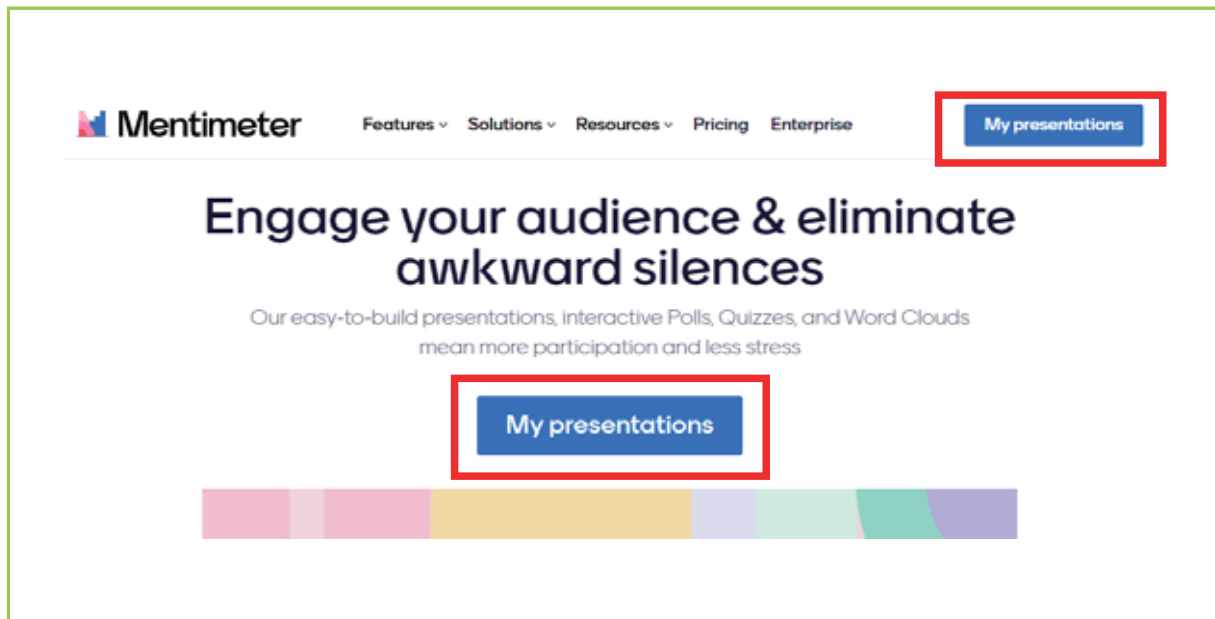


5) 멘티미터의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 입력하고, 멤버십 선택창이 나오면 무료버전인 'Free'를 선택합니다. 유료버전은 다양한 혜택(무제한 질문 슬라이드 생성하기, 엑셀로 내보내기, 나만의 로고 만들기 등)을 제공합니다. 무료 버전으로 충분히 활용하다가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하고자 할 때 유료로 전환하면 좋습니다(무료버전에서는 슬라이드를 최대 2개까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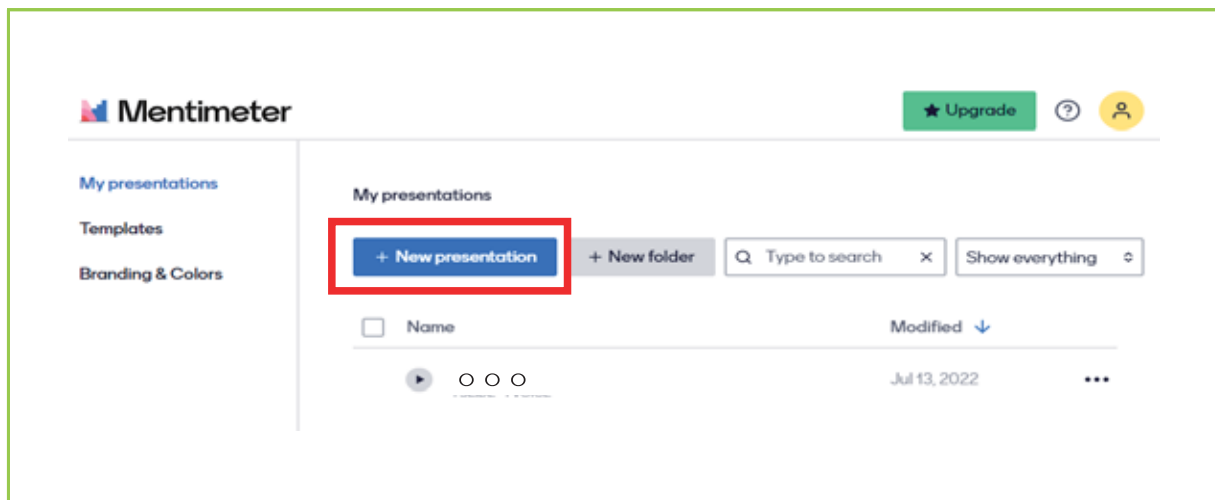
6) 선생님은 반드시 가입 후 로그인하여 사용해야 하지만, 학생들은 선생님이 보내준 QR코드 또는 url 주소로 로그인 없이 쉽게 접속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멘티미터로 간단한 질문 만들기

1) 멘티미터에 접속하여 'My presentations'를 클릭합니다.



2) New Presentation을 클릭합니다. 내가 만든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면 아래 그림의 과 같은 목록이 생성되어 보여집니다.



3) 프레젠테이션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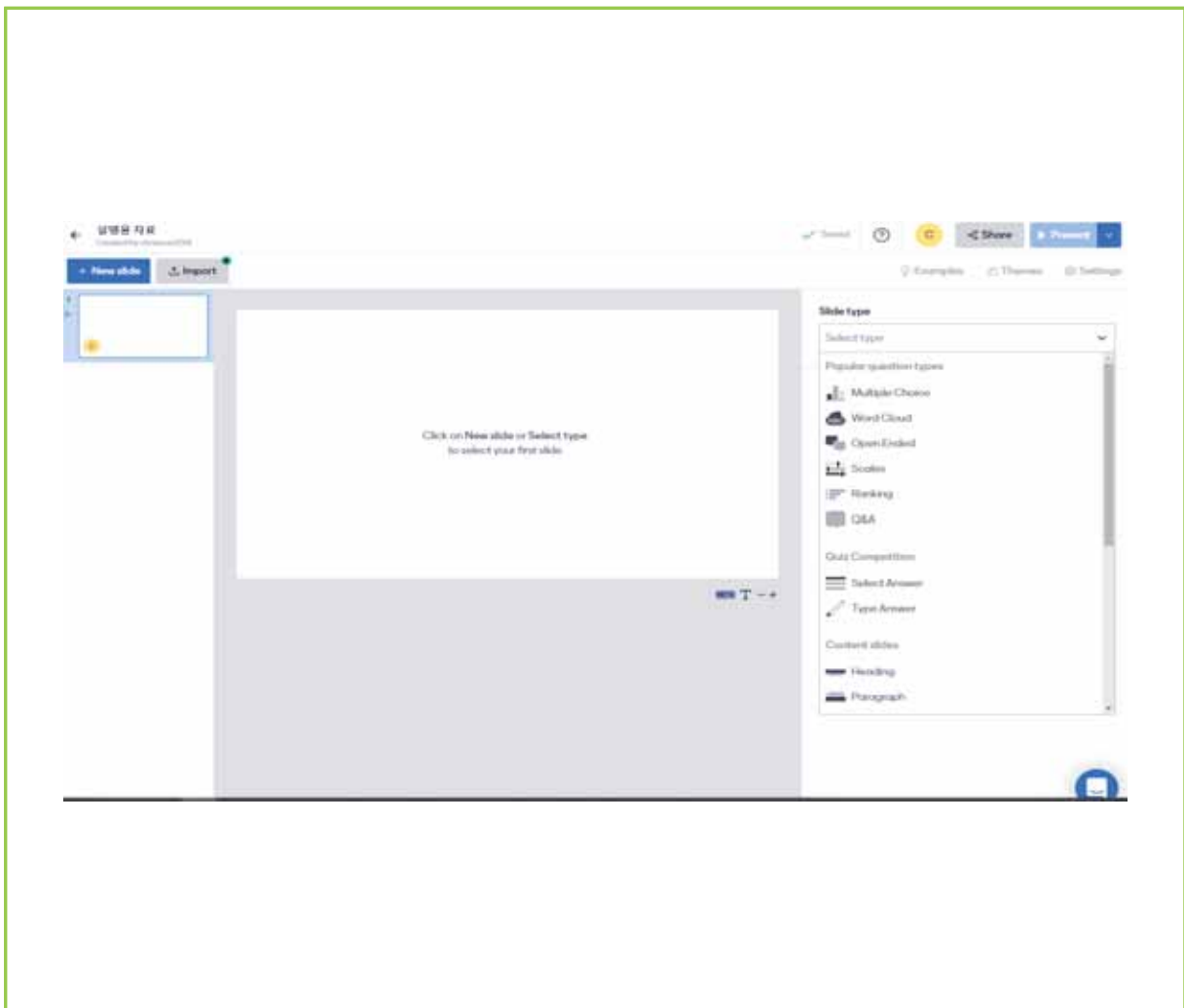


Create new presentation

Presentation name 100

Cancel Create presentation

4) 멘티미터의 기본 화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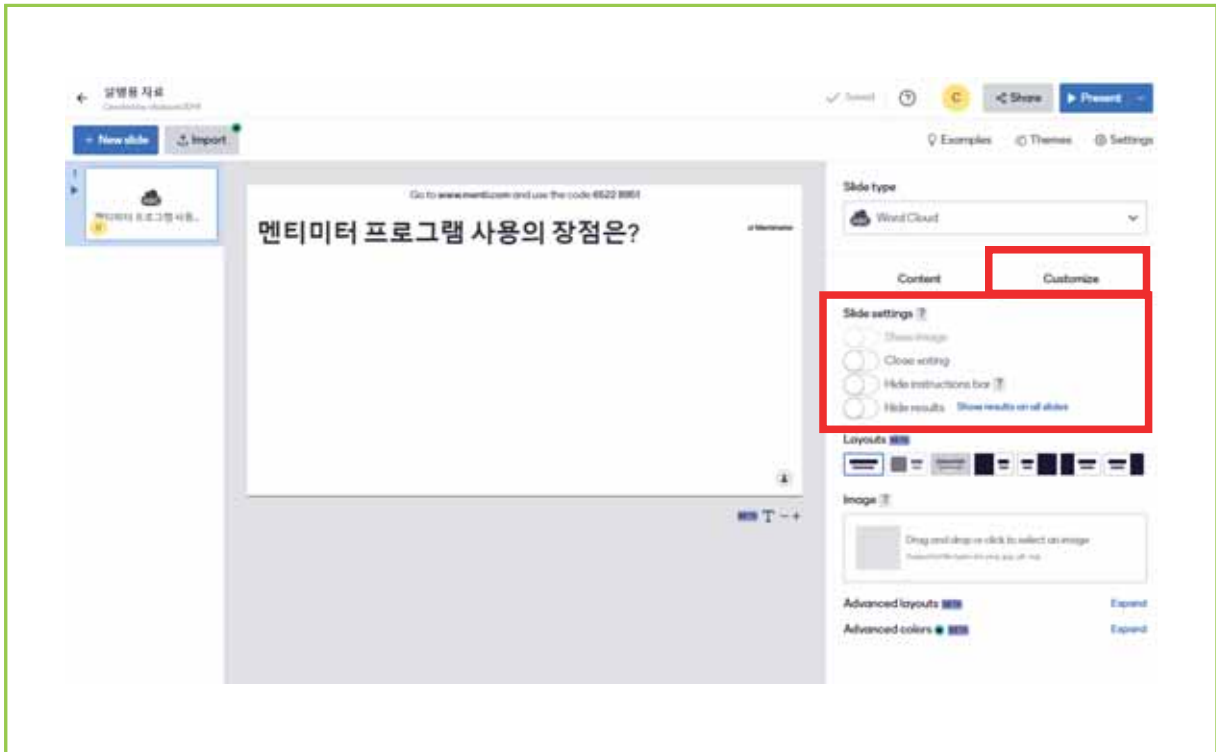


우측의 Slide type에서 원하는 설문조사 양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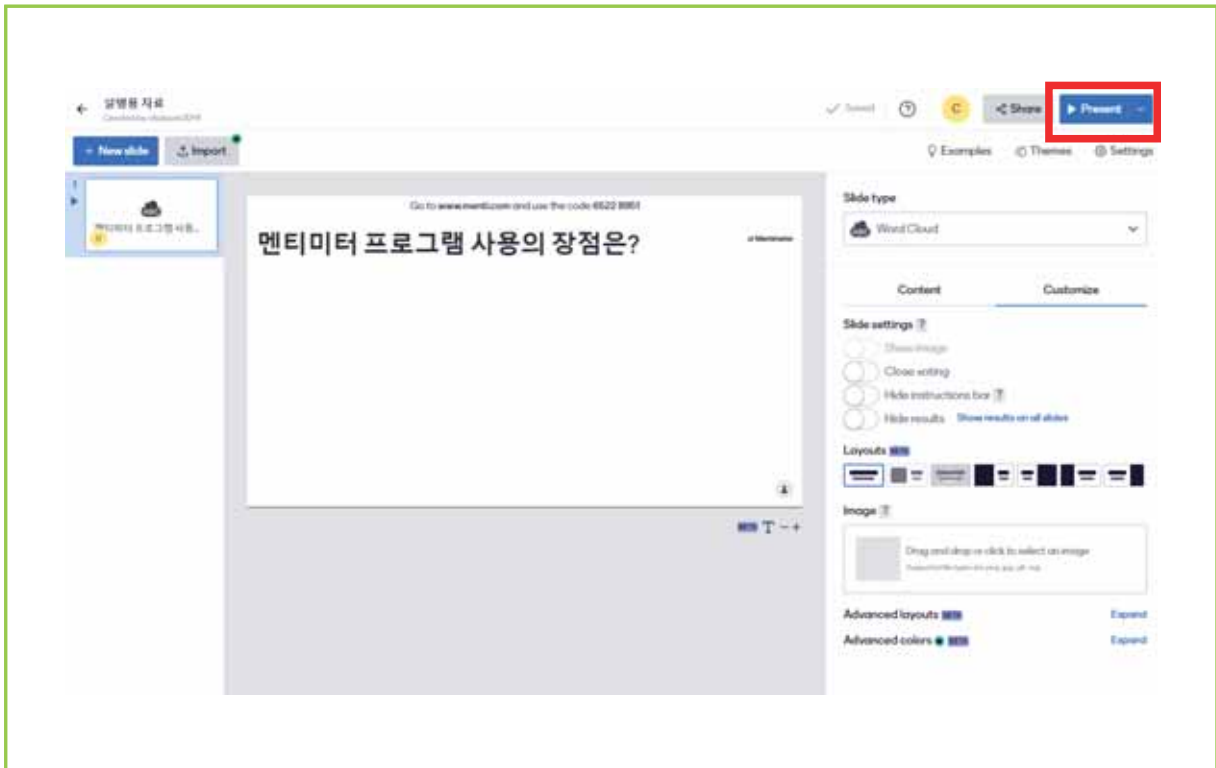
The screenshot shows the 'Word Cloud' slide type configuration interface. The 'Slide type' dropdown menu is set to 'Word Cloud'. The 'Content' tab is selected, and the 'Customize' tab is also visible. The 'Customize' tab contains the following fields:

- Your question ?**: A text input field containing 'Word Cloud'. Annotation: 질문을 입력하는 곳
- Entries per participant ?**: A numeric input field containing '3'. Annotation: 1인당 답할 수 있는 개수 입력
- Image ?**: A placeholder for an image with the text 'Drag and drop or click to select an image. Supported file types are: png, jpg, gif, svg'. Annotation: 이미지 삽입 시 활용
- Extras**: A toggle switch for 'Let participants submit multiple times ?'. Annotation: 중복 응답 허용 여부 결정

- 5) Customize를 클릭, 발표에 적합한 각종 설정(이미지 보여주기 여부, 투표 종료, 투표 참여 방법 제시 여부, 결과 숨기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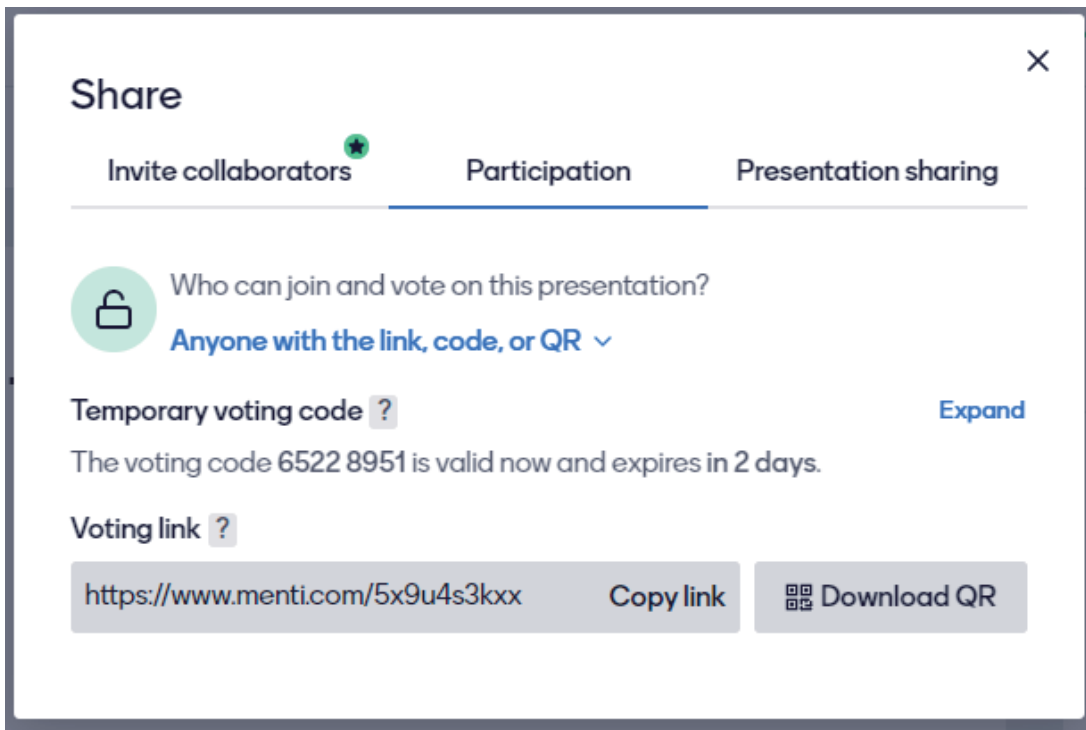


- 6) 멘티미터에서 만든 프레젠테이션은 자동 저장 됩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완성되었다면 우측 상단의 'Present'를 클릭하여 실시간 설문을 진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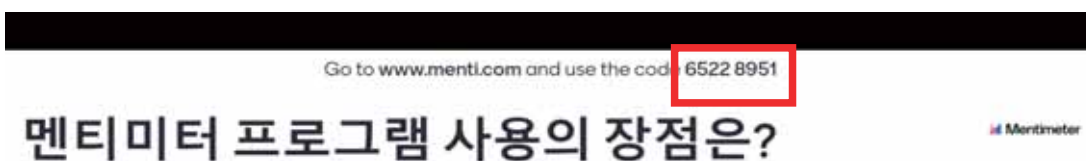


4 멘티미터 활용법

- 1) Share를 클릭하여 학생들의 참여 경로를 설정합니다. 이때 학생들에게 QR코드나 투표 링크 또는 투표 코드를 공유하여 참여하도록 합니다. 단, 참가자들이 웹으로 접속할 때는 www.menti.com으로 접속합니다(진행자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의 주소는 www.metimeter.com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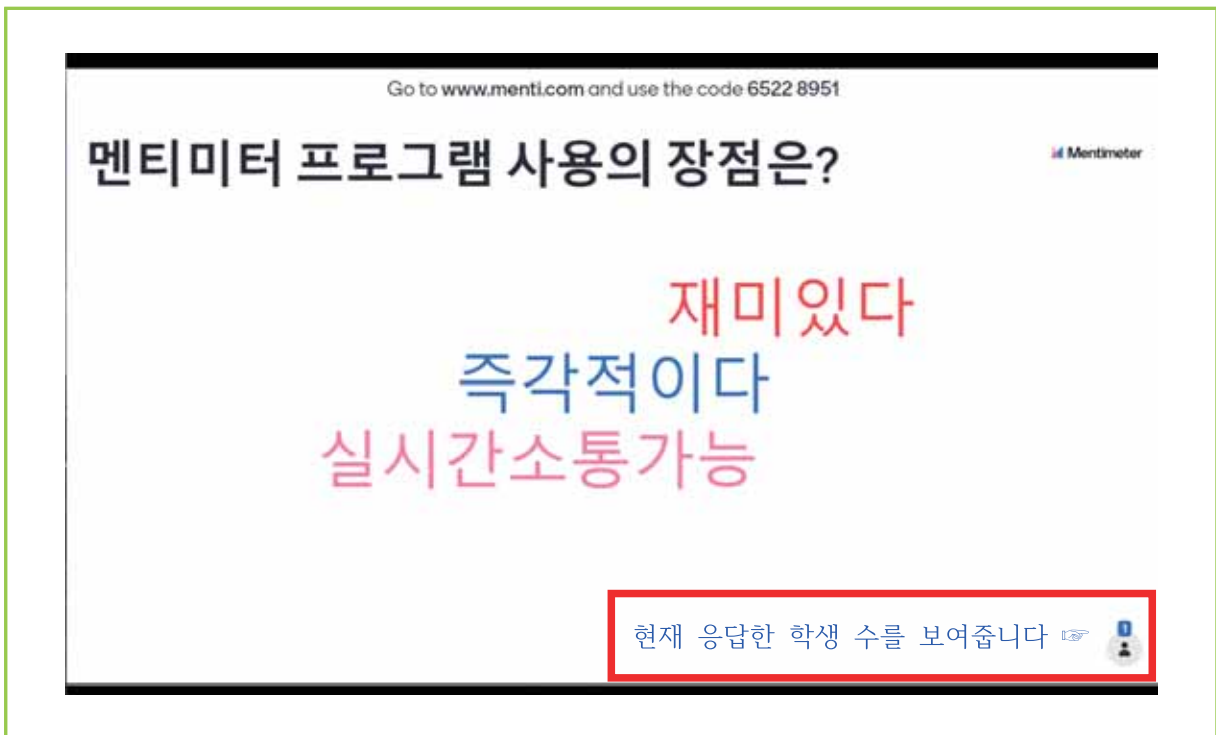
- 2) Present를 클릭하면 발표화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www.menti.com으로 접속한 학생들에게는 진행자 화면 상단에 보이는 코드(code)를 알려주고 입력하여 참여하게 합니다.



3) 학생 접속 화면

 코드를 입력하세요 1234 5678 제출하다 코드는 앱에 있는 화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멘티 프로그램의 장점은? 단어를 입력하세요 다른 단어를 입력하세요 다른 단어를 입력하세요 제출하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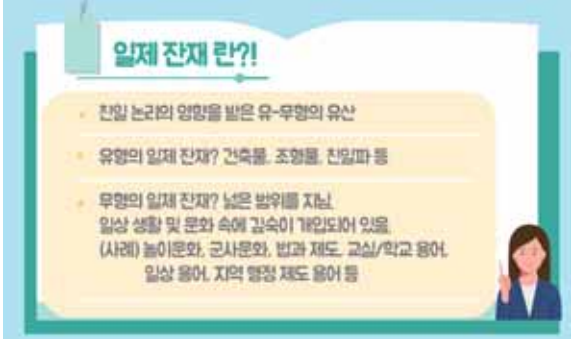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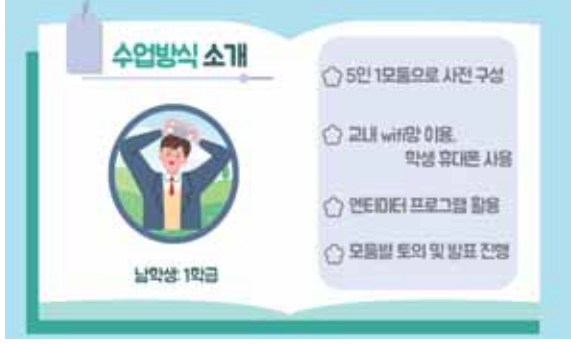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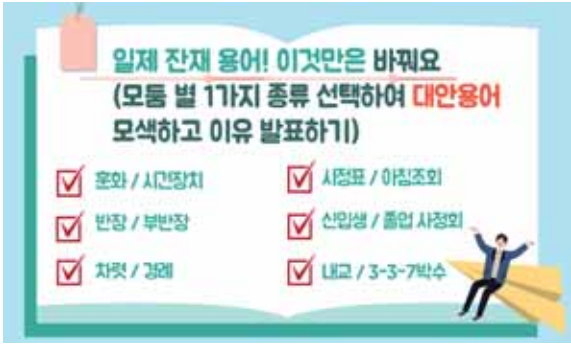
4) 전체 소통을 위해서는 교사가 제작한 화면에서 Present를 클릭하여 함께 봅니다.



자료 출처

- 멘티미터 홈페이지(<https://www.mentimeter.com/>)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https://www.serii.re.kr/>)
- 네이버 블로그 학교, 교실, 수업기록장(<https://m.blog.naver.com/twokimjang/222253431758>)
- 『수업도 잡고 놀이도 잡는 블렌디드 수업 레시피』, 안채원 외 3인, 비제이퍼블릭, 2021.

자료 2 프리젠테이션 자료(1~12)

 1/12	 2/12
 3/12	 4/12
 5/12	 6/12
 7/12	 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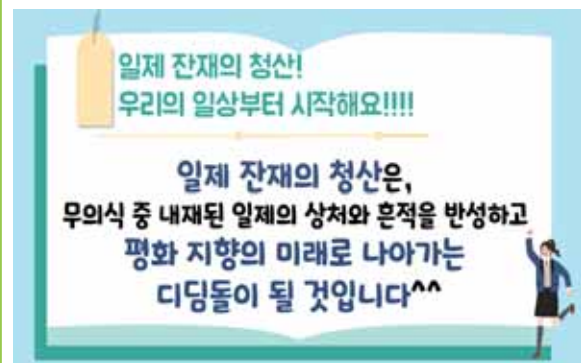
9/12



10/12



11/12



12/12

자료 3 수업 활동지

	학생 활동지	()학년 ()반 ()번 이름 ()
--	--------	---

1. 일제 잔재 용어! 이것만은 바꿔요.
 (모둠 별 1가지 종류를 선택하여 대안 용어를 모색하고 이유 발표하기)

훈화 / 시건장치	시정표 / 아침조회
반장 / 부반장	신입생 / 졸업 사정회
차렷 / 경례	내교 / 3-3-7 박수

개인별로 모색한 대안 용어를 적어요.

V 배부 받은 활동지에 선택한 일제 잔재 용어와 대안 용어, 대안 용어의 의미를 작성해요.

선택한 일제 잔재 용어 : _____

대안 용어 : _____

선정이유 : _____

모둠에서 모색한 대안 용어를 적어요.

V 배부 받은 활동지에 선택한 일제 잔재 용어와 대안 용어, 대안 용어의 의미를 작성하고 발표자를 선정해요.

선택한 일제 잔재 용어 : _____

대안 용어 : _____

선정이유 : _____

5. 일제 잔재의 개념과 우리 삶 주변에서의 일제 잔재

가. 수업 개요 및 교수-학습 지도안

과목	한국사	단원명	3.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성취 기준	[10한사03-01] 1차 세계 대전 전후 세계 정세의 변화를 살펴보고,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과 경제 구조 변화의 특징을 파악한다. [10한사03-04] 사회 모습의 변화를 살펴보고, 다양한 사회 운동을 근대 사상의 확산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10한사03-05] 일제의 침략 전쟁 이후 식민지 지배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전시 동원 체제로 달라진 민중의 삶을 사례 중심으로 파악한다.								
학습 목표	1. 일제 잔재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인천에 있는 일제 잔재에 관한 자료를 정리할 수 있다.								
수업유형	강의식(개념학습), 토의·토론, 협동학습, PBL		총 차시	4차시					
인천 핵심 역량	☐ 자기관리역량 ☒ 의사소통역량 ☐ 다양성존중역량 ☒ 문제해결역량 ☒ 협력역량								
수업 흐름	<table><tr><td> 개념의 명료화 및 사례 탐색 • 일제 강점기 시기 파악 • 일제 잔재 개념 파악 • 일제 잔재 사례 탐색 </td><td>⇒</td><td> 사례 발표 및 현장 답사 계획 • 일제 잔재 사례 발표 • 일제 잔재의 현장 답사 계획 </td><td>⇒</td><td> 현장 답사 및 추수 활동 • 일제 잔재의 현장 답사 • 나눔 등의 추수 활동 </td></tr></table>				개념의 명료화 및 사례 탐색 • 일제 강점기 시기 파악 • 일제 잔재 개념 파악 • 일제 잔재 사례 탐색	⇒	사례 발표 및 현장 답사 계획 • 일제 잔재 사례 발표 • 일제 잔재의 현장 답사 계획	⇒	현장 답사 및 추수 활동 • 일제 잔재의 현장 답사 • 나눔 등의 추수 활동
개념의 명료화 및 사례 탐색 • 일제 강점기 시기 파악 • 일제 잔재 개념 파악 • 일제 잔재 사례 탐색	⇒	사례 발표 및 현장 답사 계획 • 일제 잔재 사례 발표 • 일제 잔재의 현장 답사 계획	⇒	현장 답사 및 추수 활동 • 일제 잔재의 현장 답사 • 나눔 등의 추수 활동					

교수-학습 지도안(1차시 - 일제 잔재의 개념과 사례)

단계	교수·학습 과정	교수·학습 자료
도입 (5분)	▶ 일제 강점기 시기가 언제인지 확정하고, 그 시기 이루어진 일제의 통치 방식을 회상한다. -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를 일제 침략의 시작으로 보고 일제 강점기로 정의할 것인지, 러·일 전쟁 이후로 할 것인지, 국권 피탈 이후로 할 것인지 개념 정의 ▶ 학습 목표 안내 6학년 학습 목표 1. 일제 잔재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인천에 있는 일제 잔재에 관한 자료를 정리할 수 있다.	
전개 I (10분)	① 일제 잔재의 개념에 대해 소개 ▶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침탈과 식민지배 과정에서 남겨놓은 모든 형태의 부정적 유산을 말함.	교사 자료

- 사례 적용 : 용어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맞춰보기
- 드라마에서의 일본어 사용
<https://www.youtube.com/shorts/JiixD2u5WEM>
- 국회에서의 일본어 사용
<https://www.youtube.com/watch?v=YghppPavyOM>

🕒 활동 도움말

- | | |
|----------------|-----------|
| • 다이 → 받침대 | • 작일 → 어제 |
| • 나라시 → 평탄화 | • 금일 → 오늘 |
| • 단도리 → 채비, 준비 | • 명일 → 내일 |
| • 시마이 → 마감 | |

전개 II (25분)

② 일제 잔재 찾기

▶ 일제 잔재 중 현재까지 남아 있는 유형의 건축물, 동상 등을 찾아보고 자료 수집 및 답사 자료집 제작하기

- 인천 내로 조사 범위를 한정하여 추후 3~4차시에 진행할 실제 답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 활동 도움말

1. 지역을 인천 내로 한정한다.
2. 학교, 은행, 동상 등 조사할 유형에 따라 혹은 지역별로 나눠 모둠을 편성한다.
3. 태블릿 PC, 노트북,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조사하되 조사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조사한 자료를 단순히 복사+붙여넣기로 끝나지 않도록 학생 스스로 이해한 용어로 답사 자료집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한다.
5. 가급적 한 사람이 하나를 조사하는 것이 좋으나 동료 학습을 위하여 두 사람이 하나를 조사할 수 있다.

정리 (10분)

◎ 어려운 용어의 뜻 혹은 해설 달기

- 한자어, 일본식 표현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찾기
- 용어에 대한 해설 달기
-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무엇인지 제시하기
- 핵심 내용에 대한 퀴즈 만들기

🕒 활동 도움말

1. 교사의 시각이 아닌 학생의 시각에서 친구들이 어려워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용어를 모둠원끼리 선정하게 한다.
2. 해설은 꼭 글로 표현하지 않아도 됨에 유의한다.
3. 모둠원이 이해한 자료의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3~5개의 퀴즈를 제작한다.

자료 1 활동지

교수-학습 지도안(2차시 - 일제 잔재의 사례 발표 및 현장 답사 계획)						
단계	교수·학습 과정	교수·학습 자료				
도입 (5분)	▶ 모둠별로 어려웠던 용어, 이해하기 어려웠던 용어를 다른 모둠과 공유하기 참고 <table><tr><td>• 조계지</td><td>• 모더니즘</td></tr><tr><td>• 정초석</td><td>• 영사</td></tr></table> ▶ 학습 목표 안내 🎯 학습 목표 1. 인천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말할 수 있다. 2. 인천에 있는 일제 잔재 현장 답사 코스를 제시할 수 있다.	• 조계지	• 모더니즘	• 정초석	• 영사	
• 조계지	• 모더니즘					
• 정초석	• 영사					
전개 Ⅰ (25분)	① 모둠별로 조사한 인천 내의 일제 잔재에 대하여 발표하기 ▶ 각 모둠별로 5~6분 내외로 발표 및 퀴즈를 마칠 수 있도록 함 🕒 활동 도움말 1. 발표하는 와중 다른 모둠에서 자신들이 조사한 내용과 유사한 점이 많아 참언할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거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라면 발표보다는 세미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2. 발표 내용 중 큰 오류가 있다면 즉시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단서를 주어 답을 추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자료 1 활동지				
전개 Ⅱ (15분)	② 답사지 구성하기 ▶ 모둠별로 발표한 내용 중에 실제 답사를 실시할 곳을 학급 전체가 참여하여 구성하기 - 모둠 간 조사한 장소 중 가까운 거리인 곳을 묶기 - 학생들이 직접 답사하고자 하는 곳을 선정 - 선정된 지역 근처에 가볼만한 곳을 추가로 선정 - 선정된 답사지의 이동 수단과 이동 경로를 지도에 표시 🕒 활동 도움말 1. 학생들이 실제로 답사를 원하는 곳을 선정하는 의사 표현 방식은 스티커, 패들렛, e알리미 설문 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2. 실제 지도에 선정한 답사지를 표시함으로써 거리를 파악하여 답사 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자료 2 활동지				

정리
(5분)

◎ 답사시의 역할 분담하기



각 답사지마다 이동 경로 안내자, 발표자, 질의에 대한 응답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

3~4차시는 현장답
사로 진행

부록 추수활동 시 사용

나. **자료 1** 모둠 활동 예시

	일제 잔재물을 찾아보고 답사자료집 만들기	()학년 ()반 ()번 이름 ()
--	-----------------------------------	---

◎ 인천 지역에 남아 있는 일제 제국주의 침탈의 건축물, 동상 등의 잔재 찾아보기

유형	
이름	
설립연대	
사진 및 그림	
설명	
일제 잔재라고 선정한 이유	
어려웠던 용어	ex) 조계지 : 개항장에서 열강이 관리하도록 빌려준 땅을 의미 → 현재의 월세나 전세로 비유하여 설명
핵심 용어	
퀴즈	1. 2. 3.

다. **자료 2** 답사지 선정 및 경로 설정 예시

답사지 선정 및 경로 설정		()학년 ()반 ()번 이름 ()
1. 인천의 일제 잔재 답사지 선정하기		
		
▲ 청일 조계지 경계 계단 ¹¹⁾	▲ 인천 일본제1은행지점 ¹²⁾	▲ 인천 일본제18은행지점 ¹³⁾
2. 일제 잔재에 대한 현장 답사를 위한 이동경로 그리기		
		

11) <https://blog.naver.com/bms01234/80149528801>

12) <https://kieury.tistory.com/11306123>

13) <https://blog.naver.com/choipr179/222212880904>

라. 교사 참고자료(일본어 잔재)

1. 뉴스 기사

- 일본어 잔재 여전한 한글날...외래어 범람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Ql8q0zzBj18>

- 간식 → 새참
- 짬뽕 → 초마면
- 망년회 → 송년회

- 국기 게양 → 국기 올림
- 감사 → 지도 검사

- [쉬운 말로 우리말로] 야지·겐세이...일본어 잔재는 이제 그만 [온마이크]

<https://www.youtube.com/watch?v=TfEKwULyKew>

- 야지 놓다 → 야유하다, 놀리다
- 18번 → 애창곡

- 겐세이 → 견제
- 분배이 → 분배

- “시간이 좀 애매한데?” 일본어의 잔재입니다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OPW8ZAOFFrY>

- 구라 → 거짓말
- 애매하다 → 모호하다
- 땡깡 → 투정
- 건출지 → 찾음표

- 기스 → 상처
- 간지 → 멋
- 고참 → 선임자
- 시말서 → 경위서

2. 유튜브 영상

- 드라마 우영우에서의 일본어 사용 사례

<https://www.youtube.com/shorts/JiixD2u5WEM>

- [뉴스엔이슈] 국회에서 때어난 '야~~지' 릴레이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YghppPavyOM>

3. 그 밖의 단어

- 야마 → 헤드라인, 특종
- 가라 → 무늬
- 가오 → 체면
- 간지 → 멋, 느낌
- 나가리 → 무효
- 나와바리 → 구역

- 메지 → 줄눈
- 구루마 → 수레
- 함바 → 현장식당
- 헤베 → 평방미터
- 공구리 → 콘크리트
- 하이바 → 헬멧

마. **부록** 학급 전체 또는 동아리 활동지(추수활동 참고자료)

	내가 직접 만드는 청소년 정책 제안서	()학년 ()반 ()번 이름 ()
--	---------------------------------	---

1. 일제 잔재에 대한 활용방안 논의해보기(5/5차시에 진행. 청소년 정책 제안 공모, 학교로 찾아가는 2022 인천광역시 청소년 참여 예산학교 등과 연계)

2022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 정책 제안서	
학교명	
학년, 반, 이름	
대표 학생 연락처	
담당교사 연락처 (초등, 특수 해당)	
제안 정책명	
유형	① 기존 정책 변경(수정) / ② 신규 정책 / ③ 기존 정책 폐지
정책 제안 활동 계획	
문제 제기	Q.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Q. 이 문제가 어떤 불편함을 주고 있나요? (또는 어떤 가치를 훼손하고 있나요?)
문제 원인 분석	Q.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 해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Q. 문제와 관련한 정책을 찾아보세요. (교육청 홈페이지 등 검색)
해결방안	Q.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의 해결책을 써봅시다.
실천 활동	Q.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일까요? 예) 캠페인, 서명하기, 설문조사, 신문이나 방송국에 편지쓰기, 청원활동, 모금활동, 봉사활동, UCC 제작하고 알리기, SNS에 글 올리기, 사이버 서명운동 등
예산	Q. 해결방안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생각해 봅시다. 예) 50개 학교 * 100만원(동아리지원금) = 5천만원

6. 당신이 걷는 이 길은...

가. 교외 체험활동 수업 개요

과목	한국사 / 교외체험활동 / 동아리 활동	단원명	Ⅱ. 근대 국민 국가 수립 운동 Ⅲ.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Ⅳ. 대한민국의 발전
성취 기준	[10한사02-05] 개항 이후 열강의 경제침략과 이로 인한 경제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파악한다. [10한사02-06] 개항 이후 근대 문물 수용으로 나타난 사회·문화적 변화를 살펴본다. [10한사03-01] 1차 세계 대전 전후 세계 정세의 변화를 살펴보고,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과 경제 구조 변화의 특징을 파악한다. [10한사03-05] 일제의 침략 전쟁 이후 식민지 지배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전시 동원 체제로 달라진 민중의 삶을 사례 중심으로 파악한다. [10한사04-02]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과정과 의의를 살펴보고,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한다.		
학습 목표	1. 다양한 방법(지도, 디지털 기기, 현장 질문 등)을 이용해 주요 개항장을 답사할 수 있다. 2. 개항장 내 일본 조계지와 청국 조계지를 구분하는 특징을 말할 수 있다. 3. 개항장 내 유적/유물이 만들어진 의미를 말할 수 있다. 4. 모둠원들과 협력하여 활동 과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수업유형	현장 답사 / 협동 학습		
인천 핵심 역량	☐ 자기관리역량 ☒ 의사소통역량 ☒ 다양성존중역량 ☒ 문제해결역량 ☒ 협력역량		
수업 설계 의도	인천은 개항기에 성장한 주요 도시 중 한 곳이다. 한양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도시인 인천은 외국인들로 넘쳐났다. 인천에 들어온 외국인이 거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인천제물포 각국조계장정'에 따라 각국의 조계지가 설정되었는데, 이곳은 해당 외국인의 자유로운 상업이 허용되고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었다. 그 때문에 조계지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활, 건축, 종교, 사상이 깃든 문물이 물밀듯 들어왔다. 거리엔 외국인들의 문물을 수용할 항구시설, 외국인들을 상대하기 위한 점포와 새로운 직업들이 만들어졌고, 그 변화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 조선인들도 모여들었다. 인천의 개항장은 최초의 기차역·짜장면·근대식 공원 등 우리나라 최초가 준비하며, 우리의 이권을 빼앗기 위해 각축을 벌였던 열강들의 흔적도 남아 있다. 더불어 조선에 들어와 조선을 돕고자 한 외국인들, 인천에 두 번이나 투옥되었던 김구, 3.1운동에 참여한 인천사람들, 한성정부 수립을 위한 13도 대표자 회의를 기획했던 홍진, 이규갑 그리고 각국 공원에 모여든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그들이 지나온 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거니는 길 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답사 활동 수업은 한국사 수업에 맞추어져 있으나 교외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사회과 체험 수업 등에 독립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답사 형태는 모둠 활동을 염두에 두었다. 길을 찾아가는 과정, 과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의사결정능력, 소통능력,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즐거움을 얻길 고대한다. 더불어 개항장 일대의 거리를 걸으며 여럿이 과제를 해결해 가다 보면 역사가 책이나 미디어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다양한 역사 속 인물들과 그들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역사의 현장이었음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교수-학습 자료

교수-학습 자료(1)

활동지 외 사진 자료와 현장 스케치



인천세관 역사공원



원 위치에서 40m 이동된 구 세관 창고: 전시관으로 사용됨

수인선 신포역 2번 출구를 나오다 보면 인천 세관의 옛 창고 모습을 본뜬 독특한 형태를 볼 수 있다. 구) 인천 세관 창고는 수인선 공사 현장에 위치하였기에 현재는 원위치에서 40m 이동·복원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2번 출구의 왼편으로 인천세관 역사공원이 조성되어있다. 국가등록문화재인 구) 인천 세관 창고와 부속동이 정비되어 있고, 세관 창고는 '인천세관 역사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1876년 강화도조약 시기에는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 물품에 부과 징수하는 조세인 관세를 부여하지 않았으나(강화도조약이 불평등조약인 한 근거이자 당시 국제무역에 문외한이었던 조선의 사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1883년부터 세관을 설치해 관세를 부과하였다. 당시에는 세관을 '인천해관'이라 이름하였다. 인천해관 건물은 6.25 전쟁 중 소실되었고, 당시 인천세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건물로는 인천세관 역사공원에 복원된 인천세관 구 창고와 부속동으로 최초의 근대적 세관 업무가 시작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내 인천신사 흔적: 도리(추정)와 석등

답동성당의 6월항쟁 기념비와 애관극장

인천항이 훗날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일본인들은 '인천신사'를 지어 자신들의 조상과 신을 모셨다. 그리고 이 일대는 일제강점기에 공원화하여 동공원이라 이름하였다. 종교적인 신사 옆으로는 팔판루라는 요정을 세워 기묘한 조합을 이루기도 했다. 조선인들에게는 강제 신사 참배가 행해지던 이 동네는 일본 신궁(神宮)이 들어섰다 하여 궁정(宮町)이라 불리었는데, 일제 패망 후 시민들은 제일 먼저 신사를 허물었다. 이곳의 지명은 일본인이 물러나고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의미로 신생동이라 불렸으며, 무너진 신사 자리에는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가 세워졌다. 현재 학교 내에는 이곳이 신사였음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조금 남아 있다. 소화19년(1944년)이라고 새긴 일본식 석등, 일본 신사의 도리의 일부분으로 추정되는 두 개의 석축이 있다. 그 외에도 학교 건물 밖 축대의 일부 석재들도 인천 신사의 것들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운동장에서는 건너편 쪽으로 고풍스러운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바로 답동성당이다. 답동성당은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 성당중 하나이며 인천 최초의 성당이다. 1890년대에 세워진 성당은 현재는 1937년에 개축해 완성되었다. 고딕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을 함께 볼 수 있다. 성당 앞쪽으로는 6월항쟁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상징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현대사의 굴곡마다 민주주의와 양심을 지킨 천주교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 답동성당 일대와 그 아래 거리는 인천에서 1960년 4.19혁명, 1987년 6월항쟁 시기 학생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뛰어다녔던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답동성당 아랫길로 가다 보면 애관극장이 있다. 극장에 대한 전체적인 기록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 극장으로 보고 있다. 12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채 운영 중인 애관극장은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과의 경쟁과 코로나19 이후로 관객 수 감소로 운영난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극장 자체가 우리나라 극장계의 역사인 애관극장을 보존하는 문제는 인천 문화계와 애관극장을 이용했을 인천시민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다.



신포국제시장



최초의 우편배달부



대불호텔(복원) 전시관



구일본우선주식회사 인천지점

신포국제시장은 원래 청나라에서 건너온 청국 농부(화농華農)들이 씨앗을 가져와 키운 채소를 팔던 곳이었다 한다. 특히 일본인들이 주 소비 대상이었다. 현재는 각종 생활 물품은 물론 전국적으로 유명한 신포우리만두, 신포 닭강정 등이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입맛을 이끌고 있다.

인천 중구청 일대는 일본 조계 지역으로 일본식 건물이 재현되어 있다. 이곳에는 다양한 카페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는 재현이 아닌 옛 건물을 잘 복원한 사례도 있다. 한 블록 아래 거리는 일본은행들이 있었던 은행 거리이다. 일본 제1은행, 18은행, 58은행이 있으며 현재는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은행에 숫자가 붙은 것이 특이하다. 이는 1872년 실시된 일본의 국립은행 조례에 의해 인가된 허가번호에 따라 각 은행을 제**국립은행이라고 명명한 것을 따라서이다. 그러나 국립이라고 해서 국가가 운영한 것은 아니고 국가의 통제를 받는 민간업자가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현재 일본 제1은행 옆으로는 최초의 우편 배달부를 형상화한 동상이 있다. 이들 배달부는 직접 우편물을 한성(서울)의 우편 배달부들과 중간 지점인 구로구 오류동에서 만나 교환했다고 하는데, 거리로는 대략 40리(약 16km)에 해당한다. 당시에는 '00동 김진사택' 형태의 부정확한 주소가 많아 수소문을 통해 전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 거리의 끝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인 대불호텔은 경인선의 개통으로 인천에 하루를 체류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자 호텔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양한 업종으로 바뀌다가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었다. 지금은 대불호텔의 모습을 재현한 건물이 들어서 있고, 대불호텔 전시관과 중구 생활사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은행 거리를 지나 아래쪽으로 돌아 내려가다 보면 또 하나의 근대식 건물을 볼 수 있는데, 구 일본우선주식회사 인천지점이다. 이 회사는 인천항의 물류 운송을 독점한 회사일 뿐 아니라 그들의 배를 이용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당시 전쟁물자와 군인들을 운송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구 일본우선주식회사 인천지점 건물은 근대 사무소 건축을 보여주는 의의를 지녔다. 광복 이후에는 여러 향운 관련 회사의 건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조계지 경계 계단에서 본 인천항	청국영사관 회의청 건물과 건물 내 화교역사관	

현재의 자유공원의 원이름은 각국공원(만국공원)이었다. 각국공원이라 불렀던 이유는 각국 조계가 그 인근에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러 나라의 조계 중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던 조계지는 청국과 일본의 조계지이다. 인천항이 내려다보이는 계단을 사이로 왼쪽은 일본, 오른쪽은 청국 조계지가 형성되었다. 자연스럽게 계단의 석등의 차이처럼 건축물들의 모습이 확연히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계단을 사이로 오른쪽으로는 청국 조계지였다. 청국의 영사관이 있던 자리에는 화교소·중산중고등학교가 세워지고 그 옆으로 청국영사관 회의청 건물이 남아 있다. 회의청 건물은 현재 화교역사관으로 그 내부를 볼 수 있다. 회의청 건물에는 초대 청나라 영사였던 자원엔이 썼다는 만국의관(萬國衣冠: 만국의 의관을 갖춘 각국사신이라는 뜻으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한데 뒤섞여 새로운 융성을 꿈꾸는 것), ‘조선인중화총상회’의 낙선호시(樂善好施: 착한 일을 즐기고 베풀기를 좋아한다라는 뜻으로 선행과 자선을 최고의 덕목으로 봄)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회의청 안으로 들어가면 화교의 시작과 현재, 화교로 살아간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을 볼 수 있다.

		
인천 측후소 창고건물	제물포고등학교 강당 건물(성덕당)	제물포고등학교 대망 석비

현재의 인천기상대 내 인천 측후소의 흔적은 돌계단과 1923년에 준공하여 창고건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건물이 있다. 현재 계단까지는 직접 볼 수 있으나, 창고건물이 있는 곳은 출입이 금지되어 멀리서 건물 상부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여야 한다. 인천 측후소는 중앙기상대의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76년만에 한 번씩 볼 수 있다는 핼리 혜성을 1910년 4월에 관측했다고 전해진다.

기상대 아래쪽으로는 제물포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응봉산의 정상 부분이 분지 지형이어서 최초의 공설 운동장인 웃터골 공설 운동장이 만들어졌다가 이후 공설 운동장이 이전되면서 학교 건물이 세워졌다. 당시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건물로는 현재도 사용 중인 강당이 있다. 몇 차례 허물어질 뻔한 위기가 있었던 건물이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많아져 강당으로서 비좁아 역할을 못 하게 되었다는 점, 오래된 건물로 안전등급의 문제, 일본인이 일본인들을 위해 만든 건물이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동문회의 철거 반대의견과 일본인이 만든 건물도 우리 역사로 함께 안고 가야 한다는 의견, 인재 양성의 장이었으며, 애국지사의 강연이 있던 장소라는 점, 학교 외적인 지역사회의 집회가 이루어졌던 장소라는 역사적 의의들로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현재도 학교 강당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제물포고등학교의 정문에서 학교로 걸어오는 길에는 대망(大望)이라고 쓰인 석비가 눈에 띈다. 이 석비는 요시다라는 일본인이 기부한 비석으로 보이니 엄밀한 학술조사가 더 필요하다 한다.



자유공원에서 바라본 인천항



제물포 구락부



각국지계석

현재의 자유공원 일대는 다양한 문화유산이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장소이다. 인천항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며 가까이에 월미도가 한눈에 들어온다. 각국 조계가 설치되어 있던 곳으로 외국인들의 별장, 사택들이 있던 곳이기도 하다. 건물 대부분은 6.25 전쟁 당시 소실되었다.

자유공원에서 계단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보이는 제물포 구락부는 대표적인 근대건축물이다. 독특하고 멋스러운 외관으로 자주 촬영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구락부는 클럽의 일본식 음역어로 제물포 구락부에서는 각국 외교관들이 사교모임을 하며 치열한 외교전을 벌였다. 그 외교전이 대한제국의 이권을 둘러싼 것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당시 대한제국의 현실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제물포 구락부 바로 옆에는 각국지계석이 놓여 있다. 조계는 '개항장에 외국인이 자유로이 통상하고 거주하며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으로 이 각국지계석은 현 자유공원 일대가 열강의 각축장이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활동 도움글〉

1. 애초 활동지 설계가 동공원(현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서공원(현 자유공원)에 이르는 길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동공원의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와 서공원의 제물포고등학교는 수업 활동이 진행되는 공간이어서 체험학습 허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포역 2번 출구 세관 역사공원에서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를 바라보면서 바로 답동성당으로 이어져도 괜찮으리라 봅니다. 또, 자유공원 일대에서는 인천기상대에서 역시 제물포고등학교를 바라보면서 자유공원 광장 쪽으로 마지막 경로를 잡으셔도 좋으리라 봅니다.
* 화교소·중산중고등학교 시설 또한 수업 공간이니 함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학생들의 이동이 수인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효율적이어서 활동지처럼 신포역에서 출발하여 마무리는 인천역으로 잡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만 전체 경로가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면 인천역에서 출발하여 활동지의 역방향으로 신포국제시장과 답동성당을 제외한 일본 조계지까지만 재구성하여 다시 인천역으로 돌아가는 방법도 좋으리라 봅니다. 직접 답사한 경험으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멀거나 시간이 길게 걸리지 않은 길이어서 가능하면 원래 코스를 권해드립니다.
3. 교사 자료에 나와 있는 ‘활동지 외 사진 자료 및 현장 스케치’ 내용은 학생들의 체험 활동지에 없는 내용으로 가능한 한 정리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답사하시다가 활동지에 없는 내용을 덧붙여 안내하시면 학생들 입장에서 이야깃거리가 더욱 풍부하게 남는 답사가 되리라 봅니다.
4. 본 답사 활동지와 별개로 인천 중구청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코스와 문화해설사님이 연결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본 활동지는 하나의 사례이며,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주제별, 코스별로 재구성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활동 대상이 여러 모둠일 때는 모둠별로 경로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여도 좋으리라 봅니다. 아래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더욱 자세하고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및 웹기사 및 웹사이트〉

참고 문헌

- 인천광역시, 『술술 익는 인천 역사』, 2020.
- 인천광역시, 『선생님이 들려주는 청소년을 위한 인천역사』, 2020.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외국인의 기록으로 보는 인천 근대』, 2007.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테마로 찾아보는 인천 개항장 역사기행』, 2007.
-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교 내 일제 잔재 동상 및 조형물 실태 조사 및 교육적 활용방안 모색』, 2021.

인터넷

- 인천 중구청 홈페이지: <https://www.icjg.go.kr/>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
- 화도진 도서관 홈페이지: <https://lib.ice.go.kr/hwadojin>
- 인천시립 박물관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museum>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main/?v=1659450785479>
- 블로그: 붓다와 아이들 인천의 역사 이야기: <https://m.blog.naver.com/youngh98?categoryNo=41>

- 인천투데이 [개항장 기행] 연재기사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List.html>
- 경인일보 : [오래된 것들의 귀환] 다시 문 여는 인천 개항장거리 유명 명소 '카페 팻알' (kyeongin.com)
- 인천의 근대시설(6) -근대 기상관측의 시작, 인천 기상대-
-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802> 기호일보 2008년 2. 18.
- http://www.ombudsmannews.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4430&idx=1246

5. 체험활동 후 정리 수업으로 반드시 활동지의 '#. 우리가 걸었던 길에 대하여 수업'을 권합니다. 단지 힘들었던 걸음들 또는 즐겁게 친구들과 함께했던 기억만이 아니라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살아왔던,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래에 우리가 걸으며 살아야 할 인천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진다면 활동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리라 봅니다. 더불어 활동지의 좋은 답변이나 성찰 활동의 이야기를 모듈별로 이야기를 나누고, 전체적으로 한번 발표를 통해 공유하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6. 활동지의 출처가 따로 적혀 있지 않은 사진들은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따로 출처를 밝히지 않으시고 수업 활동에 쓰셔도 무방합니다.

활동지 답안 예시

#1. 당신이 걷는 이길은...

▣ 석등에는 '昭和十九年'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 몇 년도인지 확인하고 왜 석등에 소화(昭和)란 이름이 적혔을지 추측하여 적어봅시다.

"소화 19년은 1944년으로 소화는 당시 일본 천황의 연호이다. 이 시기는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일본인이 석등을 제작한 후 소화로 시작되는 연호를 쓴 것이다."

1897년에 프랑스인 천주교 선교사 코스트의 설계로 건립된 (고딕/로마네스크 또는 고딕에 로마네스크가 결합된) 양식의 성당이다.

◆ 서양건축양식 : 다음 설명을 보고 아래 건축물이 어떤 양식인지 적어봅시다.
순서대로 "고딕 양식 - 로마네스크 양식 - 비잔틴 양식"

▣ 답동 성당의 초대 주교였던 빌렘 신부는 우리나라의 독립 투사와 인연이 있다. 토마스라는 세례명을 지닌 왼쪽 인물의 세례와 고해성사를 집전하였는데, 세례명 토마스는 바로 (안중근)의사이다.

* 빌렘 신부는 사진에서 안중근 의사의 맞은편에 앉아 있는 인물이다.

#2. 당신이 걷는 이길은...

◆ 1933년에 세워질 당시 인천부 청사는 모더니즘적인 건축양식으로 증기난방과 (수세식 화장실)(이)라는 최신 장치가 설치되어 주목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조선 시대 이전 주거 형태와 현대 주거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 금융 수탈을 위해 세워진 이 일본 은행 지점들의 이름은 제1은행, 제18은행, 제54은행과 같은 독특한 명칭입니다. 이렇게 숫자로 이름이 붙은 이유를 추측하여 적어봅시다.
"은행으로 허가한 순서에 따라 숫자를 붙였다."

◆ 은행 거리 끝에는 우리나라 최초 호텔인 대불 호텔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관 숙박비는 30전 이내였는데 비해 호텔 숙박비는 1원50전-2원50전이었다고 합니다. 서울로 들어가는 교통편이 어려웠던 시기에 그래서 호황을 누렸습니다.
이런 대불 호텔은 1899년에 만들어진 (경인철도(선))(으)로 인해 시간이 단축되면서 점차 쇠락하여 중화루라는 청요릿집으로 바뀝니다. 교통의 발달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당신이 걷는 이길은...

주요 사상인 유교를 대표하는 인물은 (공자)이다.

■ 계단 좌우로는 오른쪽 사진에서 보듯이 모양이 다른 석등이 줄지어 있다. 좌우의 석등의 모양이 다른 이유를 모듬 원들과 함께 생각하여 적어보고, 계단을 배경으로 세로로 줄지어 모듬 사진을 찍어 봅시다.
이유는 “계단을 보는 방향에서 왼쪽은 청국, 오른쪽은 일본 조계지가 형성되어 있어 청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양식의 석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양이 다르게 세워졌다.”

◆ 화교소·중산중고등학교에는 국기가 게양되어 있다. QR코드를 찍어 국기를 확인하고, 화교의 국적(또는 정체성을 강조하는 국가)을 적어보고, 그 이유도 적어봅시다.
국적은 “대만”이고 이유는 “중국공산당이 아닌 대부분의 화교들이 중국 국민당 정부를 지지하였기 때문이다.”

#4. 당신이 걷는 이길은...

■ 일본이 문화통치와 같은 유화정책을 쓰게 된 계기는 1919년에 있었던 (3.1만세운동) 때문이다.

◆ 13도 대표자 회의를 각국 공원에서 개최한 이유에 대해 적어봅시다.
이유로는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한양에서 떨어진 곳에서 모였을 것이다 / 각국공원 일대에 외국의 조계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 위상을 고려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 각국공원 앞에 인천역이 있어 경인선을 통한 접근성이 좋았을 것이다.”

○○학교 교외체험활동

○반 ○번 이름: ○○○

“당신이 걷는 이 길은... 개항, 일제강점기, 해방 전후의 역사를 걷다”

모듬원

〈전체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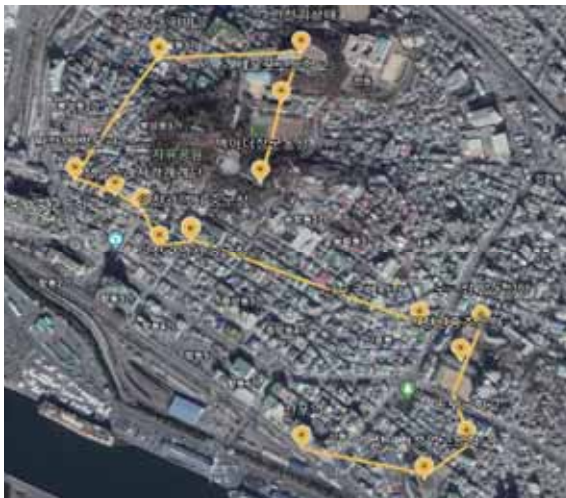
신포역 2번 출구: 인천 세관 부속 창고

구)동공원(인천신사): 현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 (송도중학교/인천신흥초등학교) - 답동성당

- 신포국제시장 - 구)일본영사관: 현 중구청: - 개항누리길: 일본 은행거리(일본 제58은행/18은행/1은행)

청·일조계지경계계단 - 화교소·중산중고등학교 - 구)공화춘: 현 짜장면박물관 - (송월동 동화마을)

- 인천기상대 - 구)윗터골 공설 운동장: 현 제물포고등학교 - 구)각국공원/서공원: 13도 대표자 회의 표지석



출처: 구글어스

관람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입장마감 30분전)

휴관일: 매주 월요일, 설날, 추석연휴, 1월 1일

인천 개항장 근대 건축 전시관	성인 500/청소년 300/어린이 무료
인천개항 박물관	성인 500/청소년 300/어린이 무료
대불호텔 전시관 중구 생활사 전시관	성인 1000/청소년 700/어린이 무료
짜장면 박물관	성인 1000/청소년 700/어린이 무료
한중문화관 인천화교역사관	성인 1000/청소년 700/어린이 무료
통합권	성인 3,400/청소년 2,300/어린이 무료 단체관람 문의 032-760-7860

▲ 개항장 박물관·전시관 가격

일러두기: 활동지 사용법

1. 활동지의 내용을 잘 읽고, 순서에 맞게 이동하세요.
2. 지도를 참조하시고, 스마트폰 지도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3. ■ 표시는 모듬별로 장소 찾기, 모듬원과 사진찍기 활동입니다. 사진은 이후 프린트하여 활동지에 붙여요.
4. ◆ 표시는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고, 마음껏 의견을 적어보는 활동입니다. 오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에 따라서는 일정한 정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5. 지문 중간에 ()표시도 꼭 해결하세요.
6. 이 활동은 무엇보다 친구와 함께 걸으며 우정도 나누고 사진도 찍으며,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이 역사임을 느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즐거운 답사 활동이길 바랍니다. 참, 스마트폰, 거리 묻기 등 문제 해결의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1. 당신이 걷는 이 길은...



▲ 인천세관부속창고
: 신포역 2번 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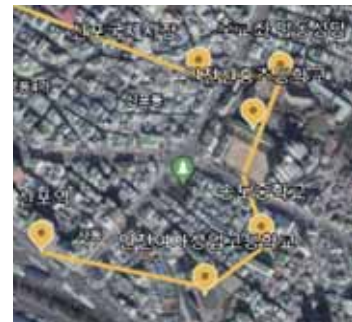


▲ 동공원/인천신사
: 현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 답동 성당

인천(제물포)항은 한양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로 조선과 세계를 잇는 관문의 역할을 하였다. 그 흔적으로 세관 부속 창고가 있다.
인천항을 벗어나 시내 쪽을 바라보면 우뚝 솟은 언덕이 보인다. 현재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이 전망 좋은 장소는 일본인들의 종교사원인 신사가 자리해 있었다. 언덕 넘어 다시 오르막에 고풍스러운 답동 성당이 서 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역사와 일본의 민족종교인 신도의 흔적, 우리나라 초기 천주교 성당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신포역 2번 출구

2016년 개통된 신포역 2번 출구는 매우 독특한 입구 모습을 하고 있다. 붉은 벽돌 모양의 이 건축물은 세관 부속 창고의 모습이다.

■ 오른쪽 [QR코드]를 찍어 **인천세관 창고**에 관한 영상을 보고, 주변에서 실제 건물을 찾아 사진을 찍어 봅시다.



https://www.youtube.com/watch?v=BPmUH_LE3eM&t=4s



신포역에서 바라본 인천 동공원, 즉 현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는 우뚝 솟아 한눈에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학교 본관 건물 뒤편 주차장 방향으로 바라보는 항구의 해질녘 모습은 지금도 장관입니다. 일본인들은 바로 이 아름다운 해넘이를 볼 수 있는 곳에 그들의 종교인 신도(神道)의 신사를 지은 것입니다.



▲ 인천신사에서 바라본 전경

인천 동공원(현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1910년 한·일 강제합병 이후 일본은 시가지 동쪽 언덕에 인천 대신궁 자리를 정비하고 동공원이라 이름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원이었던 각국공원의 이름은 동공원의 서쪽에 있다는 의미로 서공원이라 불렸다. 그리고 일본인들의 정신적 단합을 위해 그들의 종교사원인 인천 신사를 조성하였다.



■ 현재 남아 있는 신사의 흔적인 **본관 앞 석등**을 찾아 글씨가 적힌 부분을 사진 찍어 봅시다.



■ 석등에는 '昭和十九年'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 **몇 년도인지 확인**하고 왜 석등에 **소화(昭和)**란 이름이 적혔을지 추측하여 적어봅시다.

인천여상에서 답동 성당으로 가는 길에는 송도중학교와 그 건너편에 인천신흥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본래 신흥초등학교는 인천공립심상소학교로 일본 불교사원인 동본원사에서 세운 학교였습니다. 건너편 송도중학교는 서본원사란 불교 사원이 자리했던 곳이고요. 이 길의 연장선에 일본 신도의 인천신사, 일본 불교사찰인 동·서본원사, 천주교 답동성당, 감리교회인 내리교회, 성공회 내동 성당이 자리한 셈이죠.



▲ 동본원사: 현 인천신흥초 인근



▲ 내리교회



▲ 내동 성동



답동 성당

1897년에 프랑스인 천주교 선교사 코스트의 설계로 건립된 ()양식의 성당이다. 6·25전쟁 때 훼손된 부분은 모두 복원되었고, 1979년에는 창문에 스테인드글라스를 설치하는 등 서울의 명동성당, 전주의 전동성당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 중 하나이다.

서양건축 양식

다음 설명을 보고 **아래 건축물이 어떤 양식인지 적어봅시다.**

로마네스크양식은 11세기경 두꺼운 벽과 돔, 반원의 아치가 특징적인 건축 양식이다. 그러다 12세기 경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두꺼운 벽면을 없애고 수직성을 강조하여 높은 첨탑과 큰 창문, 높이를 지탱하기 위한 부벽으로 해결한 고딕 양식이 등장한다. 한편 동로마 제국의 그리스정교를 바탕으로 비잔티움 지역의 웅장한 돔과 내부의 모자이크 벽화가 특징인 건축양식을 비잔틴 양식이라 한다. 더 자세한 설명을 보고자 한다면 아래 [QR코드]를 확인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3L-5VWNamztw&t=18s	 로테르담 성당 () 양식	 피사 대성당 () 양식	 성 소피아 성당 () 양식
--	---	---	--



■ 답동 성당의 초대 주교였던 빌렘 신부는 우리나라의 독립 투사와 인연이 있다. 토마스라는 세례명을 지닌 왼쪽 인물의 세례와 고해성사를 집전하였는데, 세례명 토마스는 바로 ()의사이다.

■ 답동성당 앞에서 성(聖)스러운 모습의 모듬사진을 찍어 봅시다.



#2. 당신이 걷는 이 길은...



▲ 1950년대 신포국제시장



▲ 일본 영사관: 현 인천 중구청



▲ 일본 은행 거리

답동 성당에서 내려와 맞은 편으로 건너가면 먹을거리로 유명한 신포국제시장이 있다. 이곳 시장을 통과하면 일본인들이 거주했던 일본 **조계**¹⁴⁾ 지역으로 곳곳에서 그들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일본식 가옥 건물, 일본 영사관(현재 인천 중구청) 건물, 이국적인 서양 건축물 형태의 일본 금융기관들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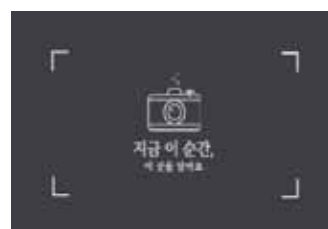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인천 중구 지역이 금융, 행정의 중심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개항박물관이 모여 있는 이곳을 살피다 보면 안타깝게도 이곳이 일본의 행한 각종 수탈의 중심지였음도 확인할 수 있다.



신포국제시장

작은 어촌 마을이었던 제물포는 각국 조계지가 만들어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청·일본인의 증가로 조계지역의 신포동에 시장이 만들어진 것이 시초이다. 시장은 점차 규모가 커지다 일제강점기에 인천에서 가장 먼저 상설시장이 되었다.

▣ 신포국제시장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먹을거리들이 있습니다. 대표 먹거리를 하나 선정하여 식당 앞에서 **맛있게 먹는 모습의 사진** 한 컷을 찍어 봅시다.



신포국제시장에서 중구청을 향하다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건물들도 조금 이국적인 모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택들은 하나의 지붕에 여러 가구가 공유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나가야(長屋장옥)라는 가옥 형태로 이러한 일본식 가옥들은 여전히 신흥동 일대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4) 조계(租界): 주로 개항장에서 외국인이 자유로이 통상 거주하며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일본영사관

일본 조계지에 2층 목조 건물로 지어진 일본영사관은 일제강점기에 인천부청사의 역할을 하다가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1933년에 모더니즘 건축양식의 새 청사가 세워졌다. 광복 이후 인천시청사로 쓰이다 시청사가 이전하고 난 후 현재는 중구청사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외관의 스크래치 타일은 희귀성으로 건축학적 가치가 높다.



■ 중구청 건물의 아래 사진과 같은 **스크래치 타일**을 찾아 타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사진을 찍어 봅시다.



◆ 1933년에 세워질 당시 인천부 청사는 모더니즘적인 건축양식으로 증기난방과 () (이)라는 최신 장치가 설치되어 주목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조선 시대 이전 주거 형태와 현대 주거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중구청에서 금융 거리로 이어지는 길에는 일본식 목조건물들이 잘 재현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화조'라는 하역회사 건물은 원형에 가깝게 복원되어 카페로 사용하고 있고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 주택 겸 사무실을 겸한 당시 일본 건축물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항 이후 인천의 변천사를 담은 "인천 번창기(1903)"의 부록에는 당시 조선인 하역 노동자들이 '대화조'와 같은 일본인 회사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재현된 일본 거리



▲ 구) 대화조 건물과 현 카페



인천 제1은행

‘인천개항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은 1899년에 반원형 돔을 설치한 르네상스식 건축물이다. 조선의 금고 및 사금 매입 업무, 영사관 금고 역할을 하였다. ‘한국은행’, ‘조선은행’으로 이름을 바꿔 가며 일제의 금융 수탈을 주도하였다.



인천 제18은행

‘인천 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이 은행 건물은 1890년에 금융계의 식민지화를 위해 세워진 최초의 해외지점이다. 정교한 돌기둥과 일본식 기와 형태가 특징이다. 1954년에는 한국흥업은행지점으로 사용되었다.



인천 제58은행

‘인천 중구 요식업조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은 1892년에 인천 전환국의 신·구화폐를 교환하는 업무를 위해 설립되었다. 프랑스풍의 건물로 2층에 발코니와 이국적인 지붕이 특징이다.

◆ 금융 수탈을 위해 세워진 이 일본 은행 지점들의 이름은 제1은행, 제18은행, 제54은행과 같은 독특한 명칭입니다. 이렇게 **숫자로 이름이 붙은 이유**를 추측하여 적어봅시다.

.....

.....

◆ 은행 거리 끝에는 우리나라 최초 호텔인 대불호텔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관 숙박비는 30전 이내였는데 비해 호텔 숙박비는 1원50전-2원50전이었다고 합니다. 서울로 들어가는 교통편이 어려웠던 시기에 그래서 호황을 누렸습니다. 이런 대불호텔은 1899년에 만들어진 () (으)로 인해 시간이 단축되면서 점차 쇠락하여 중화루라는 청요릿집으로 바뀝니다. 교통의 발달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인천 개항박물관 옆 기획전시실 앞에는 아래 사진과 같은 최초의 우편 배달부 동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편 배달부에게 편지를 전달받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 봅시다.



#3. 당신이 걷는 이 길은...



▲ 청·일 조계지 경계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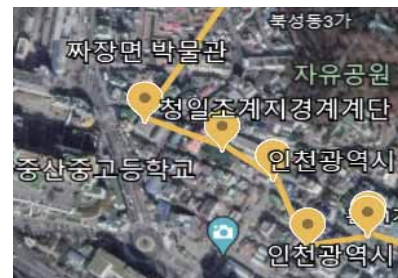
▲ 구) 청국영사관:
현 화교소·중산중고등학교



▲ 구) 공화춘:
현 짜장면 박물관

일본 금융 거리를 지나면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인 대불호텔을 재현한 전시관이 있다. 그 길 오른쪽으로 자유공원 쪽으로 향하면 긴 계단이 눈에 들어온다. 청·일 조계지 경계 계단이다. 계단을 기점으로 왼편은 일본 조계지와는 또 다른 청국 조계지를 볼 수 있다. 이때 우리나라로 건너온 화교들은 이곳에 자연스럽게 차이나타운을 형성하였다.

길의 초입에는 청국영사관이 있던 자리에 교육기관인 화교소·중산중고등학교가 있다. 그 길 이후로 여러 중국상점과 중국요리점이 있고, 최초 짜장면 판매점으로 알려진 구 공화춘 자리에 짜장면 박물관을 만나게 된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여전히 활력이 넘치는 차이나타운의 모습과 오랜 기간 이 땅에 살아온 화교의 파란만장한 삶의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청·일 조계지 경계계단

청·일 조계지 경계계단을 오르다 보면 조각상이 눈에 띈다. 중국은 물론 동아시아의 주요 사상인 유교를 대표하는 인물은 ()이다.



□ 계단 좌우로는 오른쪽 사진에서 보듯이 모양이 다른 석등이 줄지어 있다. 좌우의 석등의 모양이 다른 이유를 모둠원들과 함께 생각하여 적어보고, 계단을 배경으로 세로로 줄지어 모듬 사진을 찍어 봅시다.

이유:



구) 청국영사관

현재 화교소·중산중고등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화교 학교이다. 원래 이 자리에 있던 청국영사관은 1930년대 만주사변 등 전쟁으로 중국과 일본의 사이가 나빠지고, 이로 인하여 폐쇄되었다. 그 자리에 기존에 있던 화교소 학교 등을 중축하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화교들은 일제강점기 일제의 이간질, 광복 이후 경제적 불이익, 영주권 및 공무원 임용 제한 등의 차별을 감내하며 살아왔다.

◆ 화교소·중산중고등학교에는 국기가 게양되어 있다. QR코드를 찍어 국기를 확인하고, 화교의 국적(또는 정체성을 강조하는 국가)을 적어보고, 그 이유도 적어 봅시다.



국적:
이유:



구) 공화춘

청나라 장인들이 세운 건축물로 등록문화재로서 지정되었다. 현재는 짜장면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짜장면은 중국 산둥지역의 작장면(炸醬麵)을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하여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음식이 되었다. 인천항에서 힘든 일을 해야 했던 부두 노동자들의 끼니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 부두 노동자들의 삶의 애환이 담긴 음식이다.



많이 걸어 힘드시죠. 맛있는 중국요리집을 찾아 잠시 자 유롭게 쉬며 짜장면 한 그릇 하시죠^^

#4. 당신이 걷는 이 길은...



▲ 인천 측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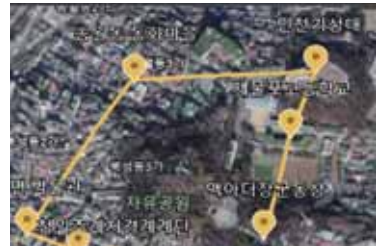
▲ 구) 윗터골 공설 운동장:
현 제물포 고등학교



▲ 각국공원:
13도 대표자 회의 장소

송월동 동화마을의 가파른 길을 올라 왼쪽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좁은 길 끝으로 인천기상대가 나타난다. 또, 기상대 바로 옆으로는 유서 깊고 규모가 꽤 큰 학교가 눈에 들어온다. 제물포 고등학교이다. 이곳은 원래 윗터골 공설 운동장이 있던 자리이다. 자유공원에 해당하는 이 일대는 각국 조계가 형성된 곳이기에 다양한 역사적 장소가 공존한다.

이 길에서 우리는 휴식 공간이며 외교 공간이기도 했던 '각국공원', 일제강점기에는 3.1운동 이후 임시정부 구성을 위한 13도 대표자가 모였던 '서공원', 광복 이후에는 '만국공원'에서 현재의 '자유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변신한 역사의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다.



구) 기상측후소

지금의 인천기상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기상관측이 이루어지던 중앙기상대였다. 이는 서울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인천항의 기후 변화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광복 후 1948년에 중앙기상대가 인천에서 서울로 이전되고, 6.25 전쟁으로 인한 시설 파괴가 있었고, 이후 지역 측후소로 축소 운영되었다. 1992년에 다시 인천기상대로 명칭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 현 인천 기상대



▲ 1928년에 만들어진 돌계단



▲ 1923년에 만들어진 창고

구) 윗터골 공설 운동장

현재 제물포 고등학교가 자리한 이곳은 분지 지형으로 윗터골이라 불렸다. 1920년, 일제는 이 분지에 우리나라 최초의 공설 운동장을 설치하였다. 문화통치를 위한 유화정책 중 하나로 체육활동을 활성화하였기 때문이다.

윗터골 공설 운동장이 이전하면서 1934년에는 인천부립중학교가 세워졌다. 광복 후 인천중학교로 이름을 바뀌었고, 3.1 만세운동 당시 학생대표였으며, 이후 교육학자였던 길영희 교장이 시민의 추대로 취임하였다. 이후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분리되고, 현재는 제물포 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강당, 정초석 등 과거의 흔적이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다.

 ▲ 윗터골 상설 운동장	 ▲ 인천 중학교	 ▲ 제물포 고등학교	■ 일본이 문화통치와 같은 유화정책을 쓰게 된 계기는 1919년에 있었던 () 때 문이다.
---	---	--	--

각국공원 13도 대표자 회의

현 자유공원은 많은 역사적 사건과 유물과 유적이 남아 있는 곳이다. 특히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이 규갑, 홍진 등이 주도하여 13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한성정부 수립의 근간이 되었다.



◆ 13도 대표자 회의를 각국 공원에서 개최한 이유에 대해 적어봅시다.
이유:

■ 마지막으로 13도 대표단의 심정으로 각국 공원 내 회의 장소를 찾아 독립을 염원하는 모습으로 마지막 사진을 찍어 봅시다.



우리가 걸었던 길에 대하여...

1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장소: 이유:
2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활동: 이유:
3	답사 활동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어려웠던 점: 이유:
4	이번 활동의 개선해야 할 점(활동지 포함)은 무엇이었나요?	문제점: 이유: 개선할 아이디어가 있다면:
5	여러분이 답사를 구성한다면 꼭 가고 싶은 장소(또는 주제)는 어디인가요?	장소(또는 주제): 이유:
6	이번 활동을 통해 배운 가치가 있다면?	가치:
7	활동 가운데 자신의 활동 중 반성해야 할 부분, 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적어 봅시다.	반성(아쉬움):

사진 출처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2016인천광역시시사 제7호<인천의 건축>(하) : 인천세관부속창고, 일본영사관, 인천축후소, 인천중학교, 내리교회, 동본원사, 내동성당, 각국공원 13도 대표회의 장소(존스톤 별장), 윗터골 공설운동장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2013 인천정명 600년 기념<사진으로 보는 인천시사>(1권) : 청일조계 경계지 언덕길, 청국영사관, 일본 은행거리, 당시 우체부(1, 2), 답동성당
-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young98> 붓다와 아이들 인천의 역사 이야기 : 동공원/인천신사, 인천신사에서 바라본 전경, 인천신사, 신평국제시장
- 경인일보 : [오래된 것들의 귀환]다시 문 여는 인천 개항장거리 유명 명소 '카페 팻알' (kyeongin.com) : 구)대화조 건물과 현 카페
- http://www.ombudsmannews.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4430&idx=1246 : 제물포고등학교 전경
- <https://m.cafe.daum.net/hwaseo9014/G92g/52?> : 안중근의사와 빌렘신부
- <https://www.visionstudy.net/m>: 로트르담 성당, 피사 대성당, 성소피아성당

기 획 이종태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과장
 장인숙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평화공존교육팀 장학관
 박정순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평화공존교육팀 역사교육담당

집필위원 강미영 제물포고등학교
 박희선 인천아라중학교
 오미영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조인규 연수여자고등학교
 최선미 동인천고등학교
 최은희 인천여자고등학교

일제 잔재 청산 교육프로그램 자료집

발 행 인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발 행 일 2022년 12월
발 행 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기 획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저 작 권 인천광역시교육청
제작·디자인 쥬니어스

본 교수학습자료는 학교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교사와 학생의 수업 이외의 무단사용이나 복제 및 변형·배포를 금지합니다.

